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2020년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연구

이 연구는 2020년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한국정치학회

2020년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과제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사업추진단체: 한국정치학회

연구자:

- 책임연구원:

이소영 (대구대학교)

- 공동연구원:

박영환 (영남대학교)

이한수 (아주대학교)

임유진 (강원대학교)

사업기간: 2020. 3. ~ 2020. 7.

차 례

2020년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I. 서론	1
II. 기존 연구 검토	7
1. 후보자토론회의 제도적 측면	10
2. 후보자토론회의 현실적 측면	16
3.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적 측면	19
III. 연구의 내용과 방법	23
1. 연구의 대상 및 내용	25
2. 조사 방법	28
3. 응답자 특성	31
4. 분석방법	34
IV.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37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39
2. 조사 대상 선거구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43
V.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47
1. 제도적 측면	49
2. 현실적 측면	60
3. 효과적 측면	84
VI. 기존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와의 비교	107
1. 제도적 측면	109
2. 현실적 측면	112
3. 효과적 측면	115

VII.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 분석	119
1. 인터뷰 대상과 질문내용	121
2. 인터뷰 결과 분석	122
VIII.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141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효과	143
2.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144
참고문헌	153
부록	159
사전조사 설문지	161
사후조사 설문지	169

표 차례

2020년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표 III-1-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 선거구	26
〈표 III-1-2〉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의 내용과 범위	26
〈표 III-2-1〉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조사 설계(사전)	28
〈표 III-2-2〉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조사 설계(사후)	29
〈표 III-2-3〉 설문 문항 구성	30
〈표 III-3-1〉 설문 응답자 특성	32
〈표 IV-1-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40
〈표 IV-1-2〉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초청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42
〈표 IV-2-1〉 12개 선거구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44
〈표 IV-2-2〉 12개 선거구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45
〈표 V-1-1〉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 (사전조사)	50
〈표 V-1-2〉 후보자토론회 횟수 선호(%)	50
〈표 V-1-3〉 후보자토론회 횟수 선호 분석 (프로빗분석)	51
〈표 V-1-4〉 적절한 후보자토론회 횟수	53
〈표 V-1-5〉 후보자토론회 진행시간 선호 (사후조사)	54
〈표 V-1-6〉 후보자토론회 진행시간 선호 분석	55
〈표 V-1-7〉 선호하는 후보자토론회 유형 (사후조사)	57
〈표 V-1-8〉 유권자 참여 방식에 대한 선호 (사후조사)	58
〈표 V-1-9〉 후보자 상호토론 방식 선호 (사후조사)	58
〈표 V-1-10〉 상호정책검증토론 방식 유용성 평가 (사후조사)	59
〈표 V-1-11〉 주도권토론 방식 의견 (사후조사)	59
〈표 V-1-12〉 사회자 역할 평가 (사후조사)	60
〈표 V-2-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의 투표의향(사전조사)과 투표여부(사후조사)	62
〈표 V-2-2〉 선거에 대한 관심과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 (사후조사)	63
〈표 V-2-3〉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과 투표여부 (사후조사)	63
〈표 V-2-4〉 사회·인구학적/정치적 특성과 후보자토론회 관심 정도 (사후조사)	64
〈표 V-2-5〉 선거기간 정보습득 매체 (사후조사)	65
〈표 V-2-6〉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 조회수	66

〈표 V-2-7〉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 평가 (사전-사후조사 비교)	67
〈표 V-2-8〉 사회·인구학적/정치적 특성과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 평가	68
〈표 V-2-9〉 후보자토론회 공정성 평가 분석	70
〈표 V-2-10〉 후보자 선택 시 최우선 고려사항 (사전조사)	72
〈표 V-2-11〉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가장 잘 검증된 영역 (사후조사)	73
〈표 V-2-12〉 후보자토론회의 선거정보 획득에 대한 유용성 평가 (사전-사후)	73
〈표 V-2-13〉 타정보매체와 비교한 후보자토론회의 상대적 유용성 (사후조사)	74
〈표 V-2-14〉 후보자토론회 유용성 평가 분석	76
〈표 V-2-15〉 사회·인구학적 정치적 특성과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 평가	77
〈표 V-2-16〉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 평가 (사전-사후조사 비교)	79
〈표 V-2-17〉 사회·인구학적/정치적 특성과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 평가	80
〈표 V-2-18〉 후보자토론회 흥미성 평가 분석	81
〈표 V-3-1〉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 (사전-사후조사 비교)	85
〈표 V-3-2〉 후보자토론회 시청을 통한 선거관심도 제고 (사후조사)	86
〈표 V-3-3〉 후보자토론회 시청과 공약인지의 관계 (사후조사)	87
〈표 V-3-4〉 후보자토론회를 통한 새로운 이슈 인지여부 (사후조사)	87
〈표 V-3-5〉 후보자토론회의 선거정보 습득에 대한 효과 (사후조사)	88
〈표 V-3-6〉 후보자토론회와 후보의 전반적 자질 특성의 관계 (사후조사)	89
〈표 V-3-7〉 후보자토론회 시청 유무와 정치효능감의 관계 (t검정)	90
〈표 V-3-8〉 후보자토론회 시청자의 선거관심도 제고 요인 (순서로짓회귀분석)	90
〈표 V-3-9〉 후보자토론회 시청과 주요 정당 호감도 형성 관계 (t검정)	92
〈표 V-3-10〉 후보자토론회의 변수가 주요 정당 후보의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력 (OLS회귀분석) ..	93
〈표 V-3-11〉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 정치적 대화빈도 (사후조사)	95
〈표 V-3-12〉 과거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투표참여 의사에 미친 영향 (사전조사)	95
〈표 V-3-13〉 후보자토론회 시청과 실제 투표참여의 관계 (사후조사)	96
〈표 V-3-14〉 후보자토론회의 변수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빈도에 미치는 영향력 (순서로짓회귀분석)	97
〈표 V-3-15〉 후보자토론회 변수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력 (로짓회귀분석)	98
〈표 V-3-16〉 과거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투표결정에 미친 영향 (사전조사)	99
〈표 V-3-17〉 이번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후보선택에 미친 영향 (사후조사)	100
〈표 V-3-18〉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지지후보의 지지 정도에 미친 영향 (사후조사)	101
〈표 V-3-19〉 후보자토론회 변수가 후보지지에 미치는 영향력 (로짓회귀분석)	102
〈표 VI-1-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시간	110
〈표 VII-1-1〉 전문가 인터뷰 참가자	121
〈표 VII-1-2〉 전문가 인터뷰 질문 내용	122
〈표 VII-2-1〉 전문가 인터뷰 결과: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 및 유용성	123
〈표 VII-2-2〉 전문가 인터뷰 결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만족도	124

〈표 VII-2-3〉 전문가 인터뷰 결과: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성	126
〈표 VII-2-4〉 전문가 인터뷰 결과: 후보자토론회에서 잘 검증된 영역	128
〈표 VII-2-5〉 전문가 인터뷰 결과: 후보자토론회의 적절한 횟수	129
〈표 VII-2-6〉 전문가 인터뷰 결과: 후보자토론회의 적절한 시간(길이)	130
〈표 VII-2-7〉 전문가 인터뷰 결과: 후보자토론회의 진행방식에 대한 평가	132
〈표 VII-2-8〉 전문가 인터뷰 결과: 주도권토론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133
〈표 VII-2-9〉 전문가 인터뷰 결과: 현장감, 흥미유발, 후보자비교 용이한 토론회 진행방식 ..	135
〈표 VII-2-10〉 전문가 인터뷰 결과: 사회자 역할 평가	136
〈표 VII-2-11〉 전문가 인터뷰 결과: 유권자 참여에 대한 의견	138
〈표 VII-2-12〉 전문가 인터뷰 결과: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핵심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 ...	139

그림 차례

2020년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그림 V-2-1〉 제21회 국회의원선거 관심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비교	61
〈그림 V-2-2〉 후보자토론회 관심도(%): 사후조사	62

I 서론

I 서론

본 연구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진행되는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존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와 비교 분석한다. 더불어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후보자토론회의 장단점을 검토한다.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후보자토론회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에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의 정책, 능력, 자질을 검증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중 약 90%가 후보자토론회가 선거정보를 얻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하였다(이소영 외 2017). 또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실시된 인식조사에서도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사람들 중 약 98%가 후보자토론회가 반드시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이소영 외 2018).

특히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선거 및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얻을 필요성은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든 선거 환경일수록 더욱 증대된다. 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광역단체장선거에 비해 유권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선거이다.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몇몇 후보들을 제외하고는 유권자가 지역의 후보자에 대해 잘 알고 있기가 힘들다. 이런 의미에서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는 기대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그 의미와 유용성이 다소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평균 시청률은 1.31%에 불과했다(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2016).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평균 시청률은 약 38%에 달했고, KBS에서 주관한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시청률이 약 8%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지극히 낮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먼저, 대통령선거나 광역자치단체장선거와는 달리 전국의 253개 지역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해서는 미디어의 관심이 몇몇 지역구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미디어에서 주목하지 않는 캠페인 이벤트를 유권자들이 찾아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더구나 많은 경우 후보자토론회는 공중파 채널이 아닌 지역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방영되고 그것도 황금시간대가 아닌 낮 시간대나 늦은 밤 시간에 방영되는 경우가 많아 유권자들의 접근성이 낮은 환경이다.

더불어, 후보자나 선거에 대한 정보의 소스가 너무나 다양해졌다는 점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신문이나 TV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데 익숙해짐에 따라 후보자토론회에서 정보를 획득할 개인적 필요성 역시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치적이슈와 선거이슈를 다루는 많은 유튜브 방송들이 자극적인 방식을 통해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어 유권자들은 정해진 틀 속에서 다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후보자토론회에 더욱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있다.

언론의 태도와 미디어 환경 외에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이유는 후보자토론회 자체의 문제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토론회 진행방식, 사회자의 역할, 후보자의 답변과 토론의 내용 등이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비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들이 출연하는데다 대통령선거 때와는 달리 토론이 긴장감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사회자는 단순 진행자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 역동성이 떨어진다. 또한 지역구마다 토론회 참여 기회가 한번씩 밖에 없고, 한 시간 내외의 길이에 정해진 형식에 따른 간단한 답변으로 토론이 진행되어 심도 있는 토론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유권자가 후보자를 관찰하고 비교할 충분한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토론 내용 또한 흥미를 끌기도 힘든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토론회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1인 미디어 등을 통한 부정확한 정보가 만연하는 시점에 걸러지지 않은 정보를 후보자로부터 직접 획득하는 장치는 선거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광역자치단체장선거에 비해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SNS나 1인 미디어가 부정확한 정보를 유통하기 쉽고 유권자들이 이 부정확한 정보에 설득당하기도 쉽다. 따라서 후보자토론

회가 직접적인 정보로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그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더욱 중요해진다. 더구나 대통령선거 등에 비해 국회의원선거는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이 상대적으로 늦은 시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들에게는 토론회가 제공하는 정보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후보자토론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효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간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들의 관심과 신뢰를 얻기 위해 제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다각도의 변화를 모색해 왔다. 그 결과 지난 대통령선거나 광역단체장선거에서는 후보자토론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고 그 영향력과 역할 또한 컸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소영 외 2017; 2018). 물론 토론회 형식, 진행방식, 토론회 시간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이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토론회의 유용성과 효과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후보자토론회가 대통령선거나 광역단체장선거 과정에서 핵심적인 캠페인 기제로 자리매김하였음은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그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 크게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그 영향력 또한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번 후보자토론회 역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몇 가지 이유에서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과 토론회의 영향력이 과거의 국회의원선거 때보다 컸을 것이라고 예측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대면 선거운동이 제한되면서 유권자들이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원과 기회가 축소되었다. 반면, 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합당 및 창당, 위성정당의 창당 등 과거에 흔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선거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유권자들이 보다 명확하게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알고 비교해야 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게다가 마지막까지 승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후보 간 경합을 한 지역이 많았고 코로나 19 국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총선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선거였던 만큼, 선거 캠페인 막판에 진행된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과 토론회의 영향력이 과거의 국회의원선거 때보다 컸을 것이라고 예측되기도 한다. 특히 마지막까지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또는 무당층 유권자들에게 그 효과는 상당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렇듯 후보자토론회는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그 역할이 결코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공약을 유권자들이 직접 비교해 볼 유일한 수단이 후보자토론회인 만큼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더 많은 유권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더 정교히 디자인될 필요가 있으며, 형식과 내용 면에서 유권자들의 변화하는 요구를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토론회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여 그 장단점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이 이번 국회의원 후보자토론회의 제도적 측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과 흥미성 및 공정성 등 현실적 측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들의 선거행태에 미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후보자토론회의 제도, 현실, 효과적 측면을 분석한다. 이 분석을 위해 전국에서 12개 지역구를 선택하여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의 평가와 인식을 조사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또한 이번 후보자토론회 효과를 기존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와 비교해 보고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후보자토론회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취합하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점을 강구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기존 연구 검토

II 기존 연구 검토

1995년 서울시장선거에 처음 도입된 이래 한국 선거에서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을 비교하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로 작용해 왔다. 매선거마다 형식 및 내용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지만, 25년간 각종 선거를 거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후보자토론회는 제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진화를 거듭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8년 이래로 한국의 정치학계와 언론학계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함께 후보자토론회의 실질적 효과를 파악하여 그 한계점을 검토하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이 작업은 주로 후보자토론회의 제도와 현실적 측면, 그리고 실제 효과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 기존의 여러 연구들 또한 후보자토론회의 제도, 현실, 효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고 그 개선점을 모색해 왔다. 본 연구도 후보자토론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기존 연구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2004년 후보자토론회가 우리 국회의원선거 과정에 최초로 도입된 이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도입 초기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운영이나 토론회의 규칙 등에 논의가 집중되었다면, 보다 최근에는 후보자토론회의 형식이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후보자토론회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는 대통령선거와는 달리 지역구별로 다른 후보자를 대상으로 각기 다른 형식과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 253개 지역구 전체 후보자토론회를 대상으로 경험적 분석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만큼 다양한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편이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제도, 현실, 효과적 측면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언급했듯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연구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대통령선거 및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자토론회에 관한 기존 연구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후보자토론회의 제도적 측면

많은 기존 연구들이 진행방식, 사회자 역할, 방송시간대 등 후보자토론회의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관한 여러 연구들 역시 제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개선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1) 후보자토론회 형식과 진행방식

1995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자토론회가 시작된 이래 다양한 진행방식이 후보자토론회에 도입되어 활용되었다. 2004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상설기구로 출범하면서 다양한 토론 진행방식이 개발되었고,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는 조금씩 다른 10가지 유형의 토론방식이 채택되었다. 주로 사회자에 의해 공통질문이 주어지고 후보자가 응답하는 단순 질문-응답 방식이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활용되었지만, 사회자가 후보자들에게 개별질문을 하고 후보자가 답변을 하면 다른 후보자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여기에 후보자가 재반론하는 방식도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었다. 124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2004년 총선 후보자토론회를 연구한 송종길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자 공통질문에 따른 단순 응답 방식을 124개 지역구 중 107개 지역구에서 채택하였고, 사회자 개별질문에 대한 응답-반론-재반론 형식은 39개 지역구에서 채택하였다. 특히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답변 후 반론, 재반론으로 이어지는 상호토론 방식과 후보자 간 또는 유력후보에게 토론이 집중되는 자유토론방식도 여러 지역에서 활용되어 후보자토론회 형식에 상당한 변화가 오는 계기가 되었다(송종길 2006).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여러 가지 토론방식이 활용되었는데, 전국적 관심이 집중된 광역단체장선거 후보자토론회에는 사회자 질문에 의한 토론 방식이 약 70%, 후보자 질문에 의한 토론 방식이 약 30% 활용되었다. 다만, 이 때는 2004년 도입된 후보자 간 자유토론방식은 거의 사용되지 않아 토론의 흥미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송종길 2006).

2007년 제17대 대선 후보자토론회 역시 반론과 재반론으로 이어지는 상호토론의 형태가 사라지긴 했지만 시민들이 동영상으로 올린 질문에 후보자들이 답하는 형식의 시민참여형 후보자토론회라는 새로운 형식이 추가되었다.

이어진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도 기존 틀을 유지하여 주로 사회자 공통질문과 개별후보자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2004년 총선 후보자토론회처럼 사회

자의 개별후보자 질문의 경우 지역에 따라서는 반론과 재반론의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과 후보자 간 자유토론 방식이 활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이 때에는 후보자의 솔직한 입장을 듣기 위해 신상자유토론이 활용되었는데, 상대후보에 대한 공격에 일관하면서 성과가 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정창화 외 2008). 2008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중 3개 토론회 사례연구를 진행한 김연종은 공정성과 균형성이 너무 강조되는 바람에 각 후보에게 균등한 발언의 기회는 주어졌지만 충분히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이 때문에 후보자의 입장과 정책, 주장이 제대로 충돌하지 못했고 대신 후보자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 묘사만, 상대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폭로의 방식을 사용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유권자들은 후보자 간 장단점을 비교할 수 없었기에 사실상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지 못한 토론회라는 것이다(김연종 2009).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 간 직접적인 상호토론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자유토론방식이 많이 활용되었고 특히 후보자 간 자유롭게 상호토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자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형식들이 사용되었다. 상대를 지정하여 질의응답하거나 일정시간 토론을 주도하는 주도권토론 방식도 다양한 세부규칙 하에 활용되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 후보자토론회를 대상으로 한 이종희와 오지양의 연구는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보다는 후보자 간 직접 상호토론하는 형식에서 후보자의 발언 횟수가 급격하게 많아지며 주장, 반론, 반박, 동의, 사실확인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나타나 토론의 역동성을 높여준다는 것을 보여준다(이종희·오지양 2011).

2010년 후보자토론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주도권토론의 확대이다. 오창우의 연구는 2010년 후보자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이 주도권토론을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주도권토론이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활용되었다는 데 주목한다. 후보자들의 주도권토론 방식에 대한 이해가 낮아 주도권토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고, 자기자랑이나 홍보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비논리적, 감정적 내용의 표출, 화법 및 문법 체계 오류 등의 문제도 드러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주도권토론 시간을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흠집내기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주도권토론에서 밝혀진 사실에 대한 검증방법이나 사후 처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들이 주도권토론 시간을 악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주도권토론의 이러한 경향은 토론회에 대한 유권자의 저항감을 키우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적 태도를 부추기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오창우 2012).

다양한 토론형식에 대한 실험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계속되었다. 2014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토론회에는 총 10개의 토론 형식이 활용되었는지만 토론회의 거의 반 정도가 사회자 질문에 후보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기존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후보자 간 상호토론 방식도 많이 사용되었으나 그 중 약 70%는 반론과 재반론 없이 질문과 답변으로만 끝나 토론의 역동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송종길 외 2014).

후보자토론회의 형식과 진행방식에서 가장 다양한 형식이 도입된 것은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였다.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후보자들이 토론회 진행 내내 서서 대본 없이 토론을 하는 스탠딩 토론 방식이 도입되었고, 주도권토론, 정책검증토론, 자유토론, 유권자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소영 외(2017)의 연구에 의하면, 유권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토론방식은 후보자들 간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실제 자유토론 방식을 활용한 토론회에서는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 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한편 처음 선보인 스탠딩 토론 방식은 유권자들의 선호도는 높은 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토론의 질과 내용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이재목 2017), 상호정책검증토론 방식에 비해 만족도가 10%p 이상 낮게 나타났다(이소영 외 2017).

상호정책검증토론 방식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유권자들이 상호정책검증토론 못지않게 선호하는 토론 방식은 유권자의 질문에 후보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나타나 후보자토론회 과정에 유권자들의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조사에서는 주도권토론 방식이나 후보자 간 자유토론방식에 대한 선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이소영 외 2018).

이렇게 사회자와 후보자 간 단순 질의응답 형식부터 후보자 간 상호토론 및 자유토론 형식까지 한국 선거에서 후보자토론회는 그 형식과 진행방식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계속 해 왔다. 이 시도들은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과 유용성, 역동성 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며,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질 높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공정성을 의식한 기계적인 진행방식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토론과 자질 검증이 부족하고 흥미도 또한 떨어진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한정택 외 2013).

특히 대통령선거나 광역자치단체장선거에 비해 관심과 정보의 양이 적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들을 TV 앞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흥미와 유용

성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더불어 인신공격과 상호비방이 난무하는 토론이 아니라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일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2) 사회자의 역할

후보자토론회 사회자의 역할은 토론회의 흥미성과 역동성, 그리고 토론의 깊이와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사회자는 토론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본래의 취지에서 어긋날 경우 이를 제지하는 역할과 함께 토론내용을 요약하여 참여자와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송종길 2006).

일반적으로 후보자토론회 사회자의 역할은 후보자들의 발언시간을 조정하고 주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제지하는 등 토론의 전반적인 질서와 흐름을 정돈하는 단순진행 역할과 사회자가 주제를 제시하거나 질문을 통해 토론의 흐름을 정하고 후보자 발언에 대해 보완설명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토론개입 역할로 나뉘어진다(이종희·오지양 2011). 한국 도입 초기 후보자토론회 사회자들은 대부분 토론개입 역할보다는 단순진행 역할에 그치는 경향을 보이고 후보자들 간 인신공격을 사회자가 제대로 제지하지 못해 사회자의 재량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정인숙 1998). 다양한 진행방식이 후보자토론회에 시도되었던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사회자는 주로 단순진행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장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조사한 이종희와 오지양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자의 단순진행 역할은 통 201회였던 데 반해 토론개입 역할은 총 15회에 그쳤다(이종희·오지양 2011). 이렇게 한국의 후보자토론회에서 보인 사회자의 단순진행 역할은 토론회가 무미건조해질 위험을 높인다. 이 때문에 그간 연구자들은 사회자가 토론의 촉진자가 되어 자유롭게 보충질문을 하고 질문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는 방안을 제안하였다(송종길 2006; 정성호 2010).

사회자가 토론과정에 보다 많이 개입하였던 2017년 제19대 대선 후보자토론회의 경우에도 새로이 도입된 스탠딩 방식의 토론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지 않았던 이유로 사회자의 역할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보다 의미 있는 개입과 진행이 가능했다면 보다 만족도 높은 토론이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이소영 외 2017).

과거에 비해 한국의 후보자토론회에서 사회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단순진행 역할에서 벗어나 적절히 토론에 개입하고 보충질문을 던지거나 보완설명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 및 경기도지사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57%의

응답자가 사회자가 토론과정에 적당히 개입하면서 그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유권자들은 사회자의 단순진행 역할에 대한 선호는 매우 낮은 편이지만, 사회자가 주제를 제시하고 자유롭게 질문하는 적극적인 토론개입보다는 단순진행 역할을 중심으로 하되 가끔 보충질문을 던지는 소극적 토론 개입 역할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소영 외 2018).

이렇게 한국의 후보자토론회에서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고 토론 개입 정도도 변화해 오고 있지만,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사회자는 여전히 단순진행 역할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의회선거 후보자토론회는 많은 경우 사회자를 대학교수 출신으로 선정하고 있어 매끄럽고 흥미로운 토론을 이끌어가는 데는 한계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정성호 2010). 사회자의 진행 미숙은 토론 참가자들의 토론 미숙과 더불어 토론회를 열기가 없이 느슨하게 만들고 토론회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김연중 2009).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후보자토론회 사회자의 진행 스타일이 진행자에 대한 공신력과 수용자의 태도 및 시청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지원과 허경호의 연구에 의하면, 적극적인 진행스타일을 보인 사회자가 기계적 단순진행 스타일을 보인 사회자보다 더 공신력을 얻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만족도를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적극적인 진행의 경우, 시청자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고 태도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최지원·허경호 2014).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자의 보다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공정성과 중립성, 객관성이 매우 중요한 요건이며 이를 위해 사회자의 자질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후보자토론회 토론 시간, 방송시간대 및 방송 채널

여러 차례 후보자토론회가 진행되는 대통령선거와는 달리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단 한 차례의 토론회에 참가하게 된다. 한국정치학회가 2017년 대선과 2018년 서울시장 및 경기도지사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7년 대선 유권자들의 약 74%가 언론사 주관 토론회 포함 7회 실시된 후보자토론회 횟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던 반면, 2018년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유권자의 약 58%는 언론사 주관 토론회 포함 3회의 토론회 횟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후보자별로 한번밖에 치러지지 않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횟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253개 지역 모두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초청 뿐 아니라 초청 외 토론회와 합동

연설 및 비례대표 후보자토론회도 개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구 후보자토론회의 횟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서복경 2012). 따라서 주어진 토론 시간에 후보자들이 최대한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토론회가 디자인된다.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시간은 참석 후보자 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시간~1시간 반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토론회가 시작발언, 공통질문, 후보별 개별질문, 주도권토론 또는 자유토론, 맺음말 등으로 구성되면서 사회자의 질문에 후보자는 응답, 반론, 재반론 시간을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밖에 가질 수 없다. 2008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사례에서는 짧은 시간에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발언시간이 부족하거나 혼란스러워 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연중 200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을 위한 조사에서 후보자토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약 19%의 응답자들이 '충분한 발언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는데 이는 '질문과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았다'(20.3%)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지적된 사항이었다(이수범·박정의 2008). 특히 이렇게 짧은 답변 시간으로 인해 답변을 충분히 못한 경우에는 주도권토론 등을 활용하여 앞의 질문에 대해 해명하거나 장황한 설명을 하는 경우도 많아 주도권토론의 취지를 흐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오창우 2012).

토론회 진행시간과 관련하여 대통령선거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시청자들은 대다수가 2시간 정도의 진행시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소영 외 2017; 2018; 한정택 외 2013). 토론회가 여러 차례 실시되는 경우에도 2시간 정도의 토론시간이 요구된다면, 단 1차례 밖에 토론의 기회가 없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경우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적정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탐구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예외 없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후보자토론회의 방영시간이다.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와 달리 공직선거법에 방영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는 황금시간대(오후 7~11시)에 방영되는 경우는 드물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는 가장 많은 48건이 오후 2~3시, 그 다음으로 44건이 오전 10~11시 사이에 개최되었고, 황금시간대에 방영된 경우는 8~9시 사이에 총 26건, 9~10시 사이에 15건, 10~11시 사이에 총 35건이었다. 황금시간대 방송은 주로 수도권 지역에서 있었는데, 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공중파가 아닌 지역케이블방송이 방영하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시청률은 낮은 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정창화 외 2008).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는 황금시간대에 방영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다. 전체의 약 30%에 해당하는 토론회가 황금시간대에 방영되었다. 그러나 이 때에도 황금시간대는 지역케이블방송이

주로 방영하는 수도권 토론회에 집중되어 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2명 가운데 1명은 지역구 후보자토론을 전혀 시청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방송시간대 뿐 아니라 방송채널 환경에서 오는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서복경 2012). 따라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토론회 방영시간과 방영채널은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2 후보자토론회의 현실적 측면

후보자토론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는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나 흥미를 느끼고 필요성을 느끼는지 등 후보자토론회의 현실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1)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을 조사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와 주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대선, 2017년 대선, 2018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서는 각각 응답자의 92%, 93%, 95%가 후보자토론회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거나 또는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정택 외 2013; 이소영 외 2017; 2018). 2014년 서울시장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도 87%가 관심 있게 토론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송종길 외 2014). 더불어,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투표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유권자의 선거 참여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는 30대에서 가장 높고 20대와 60대 이상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이소영 외 2017; 2018).

한편,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는 대선 또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53%의 시청자가 후보자토론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08, 정창화 외 2008에서 재인용). 2016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조사자들에게 최소 시청시간 기준(15분)을 제시하였음에도 후보자토론회 평균 시청시간은 약 37분 정도였다(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2016). 시청시간은 시청자들의 연령 및 정치적 효능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이렇게 평균 시청시간이 길지 않은 것은 본질적으로는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는 토론회 시청 기회가 한번 밖에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토론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2)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보다 많은 유권자들을 TV 앞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에 대해 유권자들이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대선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해가 갈수록 긍정적으로 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는 응답자의 약 49%가 후보자토론회가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하였고 2012년 제 18대 대선 유권자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78%(한정택 외 2013), 그리고 2017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90%가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유용하다고 평가하였다(이소영 외 2017). 한편 2018년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및 경기도지사선거 유권자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64%가 후보자토론회를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여 대선 후보자토론회에 비해 그 유용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에게 유용성에 대해 직접 질문하여 조사한 결과는 없으나, 2008년 제18대 총선 후보자토론회 시청자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지지후보 결정 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친 정보원으로서 후보자토론회를 TV보도 다음으로 많이 선택하여 그 필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후보자토론회 전후를 비교했을 때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후에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신뢰성, 토론회의 정보제공성, 가치성 등을 더 낮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대선이나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평가에 비해 다소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게 한다(이수범·박정의 2008).

3)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

흥미성은 후보자토론회가 가능한 한 많은 유권자들에게 노출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내용의 질이 좋아도 흥미롭지 못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지 않는다.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자토론회를 지방선거의 광역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토론회보다 약간 더 흥미롭게 진행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후보자토론회가 흥미롭게 진행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대선 때는 약 59%, 2017년 대선 때는 약 75%에 달했으며(한정택 외 2013; 이소영 외 2017), 2014년 서울시장선거에서는 후보자토론회가 흥미로웠다는 응답이 약 50%에 머물렀지만 2018년 서울시장 및 경기도지사선거에서는 응답자의 약 57%가 후보자토론회를 흥미로웠다고 평가하였다(송종길 외 2014; 이소영 외 2018).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와 관련해서는 2008년 총선 유권자 조사 결과에 주목할 만하다. 후보자토론의 문제점에 대한 시청 후 평가에서 응답자 중 약 17%가 '토론회 진행이 지루하고 형식적이었다'고 응답하여 질문과 답변의 비구체성(20.3%), 발언시간의 불충분(18.6%)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적을 받았다. 한편,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지역에 따라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을 다르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수도권 지역의 유권자들이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보다 후보자토론회를 더욱 흥미롭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2016).

4)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

후보자토론회 도입 초기에 공정성은 후보자토론회와 관련한 중요한 쟁점이었지만 최근에는 후보자토론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12년 대선 유권자들 중 69%가 토론회를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 수치는 2017년에는 78%로 높아졌다. 2014년 서울시장선거 유권자들도 조사에 따라 약 72%, 또는 87%까지 공정성을 높이 평가하였고, 2018년 서울시장-경기도지사선거 유권자 조사에서도 약 72%의 응답자가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하였다.

2016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자 조사에서도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형식 공정성과 내용 공정성으로 나누어 진행된 조사에서 시청자들은 후보자토론회가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대체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이 조사에서 형식적인 공정성에 대해서는 선거구별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내용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선거구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 선거구별 토론회의 질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2016).

공정성과 관련한 이슈는 최근에는 후보자토론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지켜졌는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오히려 공정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토론을 너무 규격화하고 형식적

으로 이끌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공정성과 객관성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사회자는 단순진행에 머무는 기계적인 역할밖에 못하고 토론의 역동성을 구현해 내지 못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단국대 산학협력단 2008; 정성호 2010; 최락인 2017).

3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적 측면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는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주된 관심사로서 많은 연구들이 토론회 효과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에게 필요한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정치효능감 및 참여도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선거쟁점에 대한 태도나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은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1) 심리·인지적 효과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자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데 중요하고 효과적인 기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구교태 외 2007; 문성철·양문희 2009; 양승찬 1999; 이재묵 2017; 이준웅 2003; 이소영 외 2017; 2018; 한정택 2014; 한정택 외 2013; Best and Hubbard 1999; Kraus 1988). 2014년 지방선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유권자들 중 약 39%가 후보자토론회나 방송연설, 대담 등을 통해 후보자를 인지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거리유세나 대면접촉으로 후보자를 인지한다는 응답보다 20%p나 높은 수치이다. 2006년 대구시장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은 각 후보의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후보자토론회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20%)보다 29%p나 많았다(구교태 외 2007). 반면, TV 뉴스 이용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정책과 관련한 정치지식을 습득하는 데 유용한 매체이지만 후보자토론회는 정치정보 습득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도 존재한다(양승찬 외 2017).

또한 많은 기존 연구들이 후보자토론회가 시청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권혁남 2011; 김하나·오창우 2016; 문성철·양문희 2009; 송종길 외 2014; 이소영 외 2017; 2018; 한정택 외 2013; 한정택 2014)과 정치적 효능감(권혁남 2011; 김하나·오창우 2016; 문성철·양문희 2009; 양승찬 외 2017)을 상승시킨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들의 정치관여도 및 정치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왔다. 특히 20대 유권자들의 정치적 냉소주의를 완화시키고 정치적 효능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김하나·오창우 2016)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도 및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20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후보자토론회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역시 시청자의 후보자 및 정당 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후보자토론회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인물됨과 이미지 형성 및 정당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같은 연구에서 시청자들은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지지 후보에 대해서는 더욱 긍정적 이미지를, 비호감 후보에 대해서는 더욱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나 강화효과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이 연구에서는 지지 정당에 대한 친근감은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더 높아지지 않았지만 비호감 정당의 경우에는 이미지를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후보자토론회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이수범·박정의 2008).

반면, 2016년 총선 후보자토론회 시청자 대상 연구에 의하면, 토론을 시청한 그룹과 토론을 시청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후보자 자질에 대한 의견이 더 명확해지는 효과는 있지만 후보자에 대한 감정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보다 흥미로운 결과는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은 지지하는 정당 후보에 대해 비시청자와 유사하게 평가하거나 더 나쁘게 평가한 반면 상대정당 후보에 대해서는 시청 후에 더 우호적으로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통해 후보자토론회가 상대정당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장을 제공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2016).

한편, 이 연구는 토론회 시청이 선거에 대한 관심은 약간 증가시키지만 정치적 효능감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후보자토론회가 정치적 효능감을 상승시키는 효과는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련의 연구들과 입장을 같이 한다(송종길 외 2014; 이소영 외 2017; 한정택 외 2013).

2) 참여 효과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들의 선거관여도와 투표 참여에 뚜렷한 효과를 보인다(문성철·양문희 2009; 양승찬 1999; 이재묵 2017; 이소영 외 2017; 2018; Lee and Lee 2017; McKinney and Chattopadhyay, 2007; McKinney and Rill 2009). 후보자토론회를 많이 시청할수록 토론회 이후에 주위 사람들과 정치적 대화를 많이 나누며, 투표참여 의사 또한 커진다는 것이다. 이재묵(2017)의 연구에 의하

면, 대선 후보자토론회를 5~6회 이상 시청한 사람들과 토론회를 한번도 시청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투표참여 의사는 37%p나 차이가 있었다.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도 투표참여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후보자토론회 시청자와 비시청자 간에 투표의향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함으로써 투표참여 의향은 약 23%p나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2016).

3) 유권자의 태도와 투표선택에 미치는 효과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의 태도 및 투표선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기존의 태도와 선택을 변경하게 하는 설득효과와 기존의 태도와 선택을 강화시키는 강화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후보자토론회가 설득효과보다는 강화효과를 더 크게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4년 서울시장선거, 2017년 대선, 2018년 서울시장-경기도지사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을 조사한 결과들은 모두 토론회 시청 후 지지후보가 바뀌었다는 응답 비율보다는 기존 지지후보에게 더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든지 혹은 지지후보가 바뀌지 않았다는 응답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송종길 외 2014; 이소영 외 2017;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의 태도와 투표선택을 변화시키는 효과 또한 간과할 수 없어 보인다. 2012년 제18대 대선 후보자토론회를 분석한 박연진·김관규(2014)의 연구는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기 전에 후보자에 대해 가지는 사전호감도를 통제하였을 때 토론에 대한 평가는 토론회 후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대선의 경우에도 후보자토론회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소영 외 2017). 17대 대선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를 조사한 송종길과 박상호의 연구에서도 후보자토론회 시청으로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후보자토론회가 지지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단 후보자토론회 이후에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를 결정하고 나면 투표 때까지 태도강화와 유지효과가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준다(송종길·박상호 2009).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새누리당 지지자와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확률이 약간 낮아지고 상대 정당에 투표할 확률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후보자토론회의 설득효과가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2016).

III

연구의 내용과 방법

III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내용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전국에서 개최된 253개 초청 후보자토론회 중 12개 토론회를 대상으로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는 대통령선거나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토론회와는 달리 각 선거구마다 다른 후보들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시간에 개최된다. 또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토론회는 시청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토론회 시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응답자들에게 토론회 시간 및 채널에 대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전국 단위에서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비용 및 응답자 관리의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 반면, 대상 선거구 수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선거구당 설문 응답자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응답자들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면서도 충분한 설문 응답자를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 선거구 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12개 선거구를 적정 조사 대상 수로 설정하였다.

먼저, 전국을 수도권, 영남권, 호남·충청권의 3개 권역으로 나눈 후 권역별 광역시에서 주요 선거구를 선별하여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토론회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되는 선거구는 수도권에서 8개 선거구, 영남권에서 2개 선거구, 충청·호남권에서 2개 선거구이다.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영남과 호남에서는 정당별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뚜렷했던 반면에, 수도권 지역에는 경합 선거구가 많아 유권자들의 관심이 더 집중되었기에 이를 반영한다는 의미와 함께 가능한 한 많은 설문조사 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조사 대상 선거구를 선정하였으며, 지역의 전국적 관심도, 토론회 개최 날짜에 따른 조사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12개 선거구는 <표 III-1-1>과 같다.

〈표 III-1-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 선거구

권역	지역	선거구
수도권	서울	종로구, 강남구갑, 동작구을, 동대문구을, 관악구을
	경기	안양 동안구을, 고양시정
	인천	연수구을
영남	부산	북구강서구갑
	대구	수성구갑
호남·충청	대전	중구
	광주	북구갑

12개 선거구를 중심으로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양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먼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각 선거구별 후보자토론회의 현황을 살펴본다. 후보자토론회의 후보자, 사회자, 방송일시 등을 중심으로 전국 선거구의 후보자토론회 현황을 분석한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선거구의 후보자토론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현황에 더하여 진행방식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어서 12개 선거구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제도적 측면, 후보자토론회의 현실적 측면, 그리고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각 영역별 분석의 내용과 범위는 〈표 III-1-2〉와 같다.

〈표 III-1-2〉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의 내용과 범위

설문조사를 이용한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제도적 측면	후보자토론회의 진행시간, 횟수, 진행방식, 방송시간, 사회자 역할, 유권자 참여 방식
현실적 측면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인지도, 관심도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 흥미성, 유용성, 효과성, 공정성
효과적 측면	심리·인지효과: 선거관심, 공약인지도, 정치적 효능감, 정책인지 및 정책정보 습득, 후보자인지 태도효과: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및 비호감도 참여효과: 후보자 및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대화참여, 투표참여 선택효과: 후보자선택
기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와의 비교 제도적 측면, 현실적 측면, 효과적 측면의 특징적 요소에 대한 비교 분석	
전문가 인터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전반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후보자토론회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후보자토론회의 진행시간, 횟수, 진행방식, 방송시간, 사회자의 역할, 유권자의 참여 방식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후보자토론회의 제

도적 측면은 후보자토론회 효과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영역이다. 특히 사회자의 역할이나 토론회 진행방식은 유권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그 유용성과 필요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후보자토론회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보자토론회의 현실적 측면에서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후보자토론회의 현실적 위상에 대해 논의한다.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지도, 관심도, 흥미도 및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현실적 인식은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신뢰도를 좌우하고 그 결과 후보자토론회 효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효과적 측면에서는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의 선거관심도와 공약인지도, 후보자인지도,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정책 정보 습득 정도, 정치적 효능감 등의 심리적·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후보자 및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대화참여와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후보자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측정함으로써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의 인지와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정도를 분석한다.

이렇게 제도, 현실, 효과적 측면에서의 후보자토론회 효과를 측정하여 이를 기존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결과와 비교한다. 세 가지 측면의 여러 요소들 중 특히 분석의 필요성이 명백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제도, 현실, 효과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기존의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기존의 후보자토론회 효과와의 비교를 시도한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유권자들의 인식에 의존하여 분석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분석의 신뢰성과 적실성을 높이기 위해 10인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다. 인터뷰는 정치학 전공자 및 정치커뮤니케이션 전공자들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그 내용은 유권자 대상 설문조사의 범위인 제도, 현실, 효과적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정책적 함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과 문제점의 개선 방안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후보자토론회의 평가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2 조사 방법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선별된 12개 선거구의 만18세 이상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후보자토론회 개최 전(사전)과 개최 후(사후)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패널 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12개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중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 의향자 1,904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중 81.3%인 1,547명이 사후조사에 응답하였다. 사후조사 응답자 중 해당 선거구 후보자토론회 시청자가 1,077명이며 미시청자는 470명이다.

〈표 III-2-1〉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조사 설계(사전)

사전조사			
조사대상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중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토론회 시청 의향자 (엠브레인퍼블릭 인터넷 패널 대상)		
표본수	<table border="1"> <tr> <td>서울 종로구: 132명 서울 강남구갑: 104명 서울 동작구을: 110명 서울동대문구을: 202명 서울 관악구을: 287명 부산 북구강서구갑: 95명 전체: 1,904명</td> <td>대구 수성구갑: 149명 인천 연수구을: 184명 광주 북구갑: 90명 대전 중구: 154명 경기 안양 동안구을: 154명 경기 고양시정: 243명</td> </tr> </table>	서울 종로구: 132명 서울 강남구갑: 104명 서울 동작구을: 110명 서울동대문구을: 202명 서울 관악구을: 287명 부산 북구강서구갑: 95명 전체: 1,904명	대구 수성구갑: 149명 인천 연수구을: 184명 광주 북구갑: 90명 대전 중구: 154명 경기 안양 동안구을: 154명 경기 고양시정: 243명
서울 종로구: 132명 서울 강남구갑: 104명 서울 동작구을: 110명 서울동대문구을: 202명 서울 관악구을: 287명 부산 북구강서구갑: 95명 전체: 1,904명	대구 수성구갑: 149명 인천 연수구을: 184명 광주 북구갑: 90명 대전 중구: 154명 경기 안양 동안구을: 154명 경기 고양시정: 243명		
응답률	서울 종로구 11.3% (메일 발송 수 1,167; 최종 응답 수 132) 서울 강남구갑 4.6% (메일 발송 수 2,245; 최종 응답 수 104) 서울 동작구을 5.4% (메일 발송 수 2,030; 최종 응답 수 110) 서울 동대문구을 7.2% (메일 발송 수 2,800; 최종 응답 수 202) 서울 관악구을 5.8% (메일 발송 수 4,963; 최종 응답 수 287) 부산 북구강서구갑 5.9% (메일 발송 수 1,613; 최종 응답 수 95) 대구 수성구갑 8.6% (메일 발송 수 1,733; 최종 응답 수 149) 인천 연수구을 10.5% (메일 발송 수 1,750; 최종 응답 수 184) 광주 북구갑 4.7% (메일 발송 수 1,906; 최종 응답 수 90) 대전 중구 12.3% (메일 발송 수 1,250; 최종 응답 수 154) 경기 안양 동안구을 6.5% (메일 발송 수 2,375; 최종 응답 수 154) 경기 고양시정 4.6% (메일 발송 수 5,266; 최종 응답 수 243) 전체 6.5% (메일 발송 수 29,098; 최종 응답 수 1,904)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표본추출	해당 선거구 거주 엠브레인퍼블릭 패널에서 무작위 추출		
조사기간	2020년 4월 2~9일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		

〈표 III-2-2〉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조사 설계(사후)

사후조사															
조사대상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로 사전조사에 참여한 1,904명														
표본수	<table border="1"> <tr> <td>서울 종로구: 114명</td> <td>대구 수성구갑: 119명</td> </tr> <tr> <td>서울 강남구갑: 85명</td> <td>인천 연수구을: 141명</td> </tr> <tr> <td>서울 동작구을: 93명</td> <td>광주 북구갑: 64명</td> </tr> <tr> <td>서울 동대문구을: 166명</td> <td>대전 중구: 125명</td> </tr> <tr> <td>서울 관악구을: 242명</td> <td>경기 안양 동안구을: 127명</td> </tr> <tr> <td>부산 북구강서구갑: 79명</td> <td>경기 고양시정: 192명</td> </tr> <tr> <td>전체: 1,547명</td> <td></td> </tr> </table>	서울 종로구: 114명	대구 수성구갑: 119명	서울 강남구갑: 85명	인천 연수구을: 141명	서울 동작구을: 93명	광주 북구갑: 64명	서울 동대문구을: 166명	대전 중구: 125명	서울 관악구을: 242명	경기 안양 동안구을: 127명	부산 북구강서구갑: 79명	경기 고양시정: 192명	전체: 1,547명	
서울 종로구: 114명	대구 수성구갑: 119명														
서울 강남구갑: 85명	인천 연수구을: 141명														
서울 동작구을: 93명	광주 북구갑: 64명														
서울 동대문구을: 166명	대전 중구: 125명														
서울 관악구을: 242명	경기 안양 동안구을: 127명														
부산 북구강서구갑: 79명	경기 고양시정: 192명														
전체: 1,547명															
응답률	서울 종로구 86.4% (메일 발송 수 132; 최종 응답 수 114) 서울 강남구갑 81.7% (메일 발송 수 104; 최종 응답 수 85) 서울 동작구을 84.5% (메일 발송 수 110; 최종 응답 수 93) 서울 동대문구을 82.2% (메일 발송 수 202; 최종 응답 수 166) 서울 관악구을 84.3% (메일 발송 수 287; 최종 응답 수 242) 부산 북구강서구갑 83.2% (메일 발송 수 95; 최종 응답 수 79) 대구 수성구갑 79.9% (메일 발송 수 149; 최종 응답 수 119) 인천 연수구을 76.6% (메일 발송 수 184; 최종 응답 수 141) 광주 북구갑 71.1% (메일 발송 수 90; 최종 응답 수 64) 대전 중구 81.2% (메일 발송 수 154; 최종 응답 수 125) 경기 안양 동안구을 82.5% (메일 발송 수 154; 최종 응답 수 127) 경기 고양시정 79.0% (메일 발송 수 243; 최종 응답 수 192) 전체 81.3% (메일 발송 수 1,904; 최종 응답 수 1,547)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표본추출	사전조사 참여자 전수														
조사기간	2020년 4월 17~29일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														

* 엠브레인퍼블릭의 온라인 패널 약 131만 명 중 약 13%*에 해당하는 약 16만 명 중에서 무작위 추출하였다. 본 온라인 패널은 남성 42.4%, 여성 57.6%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7.1%, 20~29세 34.6%, 30~39세 29.5%, 40~49세 18.5%, 50세 이상 10.4%로 이루어져 있다. 패널은 자발적 참여 및 out-bound 형태로 모집되며, 패널 전원에게 본인확인 및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신뢰성을 확보한 패널로 구성된다.

〈표 III-2-1〉과 〈표 III-2-2〉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사전조사의 표본은 엠브레인퍼블릭 패널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였으며, 사후조사에서는 사전조사에 응답한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정 선거구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할 의향이 있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평균 유권자들에 비해 선거에 대한 관심, 정치효능감, 이슈 및 정책인지도 등이 높고 성별 구성, 교육수준, 가구 월평균 소득 등에서도 다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주요 설문 문항 구성은 <표 Ⅲ-2-3>과 같다. 이 문항들 외에 응답자의 거주지, 고향,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 월평균 소득, 순자산, 고용상태, 직업, 지지 정당, 이념 등을 묻는 문항도 포함되었다.

<표 Ⅲ-2-3> 설문 문항 구성

설문문항	사전	사후
후보자토론회 시청 의향 또는 시청 여부	√	√
후보자토론회 시청 분량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도	√	√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		√
후보자 선택 시 주요 고려 요인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의향 또는 투표 여부	√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지지하는 후보 또는 투표한 후보	√	√
제19대 대선 투표 후보	√	
제7회 동시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투표 후보	√	
과거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 경험 여부	√	
과거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투표참여 의향에 미친 영향	√	
과거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투표결정에 미친 영향	√	
내적 효능감: 누구에게 투표하는가가 중요	√	√
외적 효능감: 누가 권력을 잡느냐가 중요	√	√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필요성	√	
후보자 호감도	√	√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1회 횟수 충분성	√	√
후보자토론회 시간의 적절성		√
후보자토론회 유형 선호		√
후보자토론회 상호토론 방식 선호		√
후보자토론회 상호 간 정책 검증 방식 유용성		√
후보자토론회 주도권토론 방식 평가		
공정하고 흥미로운 토론이 되기 위한 사회자 역할	√	√
사회자 역할에 대한 평가		√
후보자토론회에 유권자 참여 필요성		√
적절한 유권자 참여 방식		√
후보자토론회를 통한 후보자 자질, 정책, 국정수행능력 비교		√
후보자 정책 공약 인지도	√	√

설문문항	사전	사후
후보자토론회에서 나온 후보자 정책 공약에 대한 인지		√
후보자토론회를 통한 새로운 이슈 습득 여부		√
후보자토론회에서 다룬 주제나 정책, 공약 등 자유롭게 기술		√
후보자토론회를 통한 이슈 관심도 제고		√
평소 선거와 정치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대화	√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 대화		√
후보자토론회에서 가장 잘 검증된 영역		√
후보자토론회를 통한 선거 쟁점 관련 정보 획득 효과성		√
후보자토론회를 통한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	√	
후보자토론회 진행의 공정성	√	√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	√	√
다른 매체와 비교하여 후보자토론회의 유익성		√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지지 후보 결정에 미친 영향 정도		√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자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
가장 토론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후보자		√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문제점		√
지지 후보자 선택을 위한 정보 획득 매체		√
공공문제 정보 획득 매체	√	

3 응답자 특성

본 연구의 사전, 사후설문에 모두 응답한 응답자들의 특성은 <표 III-3-1>과 같다. 전체 응답자와 후보자토론회 시청자 및 미시청자를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응답자는 주로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들이거나 적어도 사전조사에서 후보자토론회 시청을 약속한 유권자들이므로 전체 유권자에 비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치참여도 등 정치관여도가 높은 편이다. 이는 본 조사의 응답자들이 교육수준 및 가계소득 등에 있어서도 전체 유권자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온라인으로 진행된 본 조사의 특성상 연령별 비율 또한 전체 유권자의 연령 분포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표 Ⅲ-3-1〉 설문 응답자 특성

		전체 (1,547명)		시청자(1,077명)		미시청자(470명)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성별	남성	699	45.2	521	48.4	178	37.9
	여성	848	54.8	556	51.6	292	62.1
연령별	18-29세	378	24.4	269	25.0	109	23.2
	30대	493	31.9	349	32.4	144	30.6
	40대	381	24.6	254	23.6	127	27.0
	50대	214	13.8	145	13.5	69	14.7
	60대 이상	81	5.2	60	5.6	21	4.5
후보자토론회 시청 분량	전체			245	22.8		
	3분의 2 정도			334	31.0		
	반정도			266	24.7		
	3분의 1 정도			120	11.1		
	잠시			112	10.4		
선거기간 정보 습득 매체	선거홍보물	491	31.7	291	27.0	200	42.6
	종이신문	25	1.6	17	1.6	8	1.7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86	5.6	59	5.5	27	5.4
	인터넷 포털	451	29.2	333	30.9	118	25.1
	지상파 방송	187	12.1	149	13.8	38	8.1
	케이블 및 위성방송	56	3.6	42	3.9	14	3.0
	종합편성채널 (JTBC 제외)	29	1.9	22	2.0	7	1.5
	종합편성채널 (JTBC)	20	1.3	16	1.5	4	0.9
	SNS	86	5.6	58	5.4	28	6.0
	유튜브	80	5.2	64	5.9	16	3.4
	라디오 방송	10	0.7	9	0.8	1	0.2
	기타	25	2.2	16	1.5	8	1.7
이념 성향별	진보(0~4)	608	39.3	417	38.7	191	40.6
	중도(5)	494	31.9	324	30.1	170	36.2
	보수(6~10)	428	27.7	212	19.7	109	23.2
	모름	17	1.1	12	1.1	5	1.1

		전체 (1,547명)		시청자(1,077명)		미시청자(470명)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7	0.5	6	0.6	1	0.2
	고교 재학 중	7	0.5	5	0.5	2	0.4
	고교 졸업	162	10.5	99	9.2	63	13.4
	대학 재학 중	119	7.7	85	7.9	34	7.2
	대학교 졸업	1,086	70.2	764	71.0	322	68.5
	대학원 이상	160	10.3	116	10.8	44	9.4
	기타	6	0.4	2	0.2	4	0.9
직업별	농/임/어업	0	0	0	0	0	0
	자영업	104	6.7	77	7.2	27	5.7
	판매/서비스	80	5.2	60	5.6	20	4.3
	기능/숙련직	19	1.2	14	1.3	5	1.1
	생산/노무직	36	2.3	22	2.0	14	3.0
	사무직	659	42.6	458	42.5	21	42.8
	경영/관리직	77	5.0	62	5.8	15	3.2
	전문/자유직	138	8.9	98	9.1	40	8.5
	가정주부	152	9.8	100	9.3	52	11.1
	학생	137	8.9	98	9.1	39	8.3
	무직	80	5.2	47	4.4	33	7.0
	기타	63	4.1	40	3.7	23	4.9
	모름	2	0.1	1	0.1	1	0.2
고용직 중 현재 고용 상태	정규직	860	85.2	617	86.4	243	82.4
	비정규직	149	14.8	97	13.6	52	17.6
가구 월평균 소득	~150만원	65	4.2	39	3.6	26	5.5
	~350만원	372	24.1	240	22.3	132	28.1
	~550만원	497	32.4	353	32.8	144	30.6
	~800만원	365	23.6	271	25.1	94	20.0
	~1000만원	141	9.1	98	9.1	43	9.2
	1000만원 이상	107	6.9	76	7.1	31	6.6

		전체 (1,547명)		시청자(1,077명)		미시청자(470명)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지지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728	47.1	515	47.8	213	45.3
	미래통합당	225	14.5	153	14.2	72	15.3
	민생당	6	0.4	5	0.5	1	0.2
	미래한국당	14	0.9	11	1.0	3	0.6
	더불어시민당	33	2.1	18	1.7	15	3.2
	정의당	126	8.1	80	7.4	46	9.8
	우리공화당	2	0.1	1	0.1	1	0.2
	국민의당	107	6.9	69	6.4	38	8.1
	민중당	7	0.5	7	0.7	0	0
	열린민주당	19	1.2	11	1.0	8	1.7
	친박신당	0	0	0	0	0	0
	한국경제당	2	0.1	2	0.2	0	0
	기타 정당	26	1.7	20	1.9	6	1.3
	없음	181	11.7	137	12.7	44	9.4
	잘 모름	71	4.6	48	4.5	23	4.9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패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도분석, 교차분석, 상관관계분석, t-test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후보자토론회와 그 효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활용하여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았다. 빈도분석 과정에서 사전조사 응답과 사후조사 응답을 비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후조사 응답자 중에서도 후보자토론회 시청자와 미시청자를 비교하여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두 문항 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 및 교차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더불어, 사후조사 응답자 1,547명 중 1,077의 후보자토론회 시청자와 미시청자 간 차이를 분석하여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들의 공약에 대한 인지, 정치효능감, 정당에 대한 호감도, 투표 참여 등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시청자와 미시청자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토론회가 선거관심도, 후보자 호감도, 선거 참여, 후보자선택, 후보자 토론 평가 등 주요 변인들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구체적인 양적 수치를 통해 측정한다. 종속변수의 선택지가 세 개 이상일 경우에는 다중회귀 분석 방법을, 종속변수의 선택지가 두 개인 경우는 프로빗(probit)분석과 로짓(logit) 분석을 사용하였다. 선택지가 2개인 경우에는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직접 예측하는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프로빗 또는 로짓 분석을 활용한다. 이 분석방법들은 일반적인 회귀분석방법과 달리 종속변수에 대한 직접적인 예측이 아니라 종속변수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또 종속변수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경우 순서형로짓(ordered logit)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후보자토론회의 제도와 효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번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정치과정(선거) 및 정치커뮤니케이션 분야 연구자들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현재 중앙 또는 광역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이거나 과거에 위원을 경험한 연구자들이 다수 포함되었고 후보자토론회 사회를 맡은 경험이 있는 연구자도 포함되었다.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유권자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후보자토론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활용한다.

IV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IV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의 유형은 총 3가지이다. 비례대표 후보자토론회,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그리고 지역구 후보자토론회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 중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 및 정책을 알리기 위해 개최되는 토론회로서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대표자(또는 대표가 지정한 자)만 참가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3①).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도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월 1회 이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공직선거법」 제82조의3)에 따라 세 차례의 공직선거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각 당의 토론 참가자들은 주로 정당의 주요 보직자 및 상임위원회 간사들이었다.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유권자들이 정당 및 후보자 선택에 앞서 정당의 정강·정책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로서 엄밀한 의미로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후보자토론회는 비례대표 후보자토론회와 지역구 후보자토론회가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토론회에는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및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가 초청된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2④).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후보자토론회는 두 차례의 초청 토론회와 한 차례의 초청 외 토론으로 진행되었다.¹⁾ 1, 2차 초청토론회에는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초청되었고, 초청 외 토론회에는 30개 정당의 대표가 초청되어 29개 정당의 후보자가 참석하였다. 초청 토론회는 1, 2차 모두 오전 10시부터 진행되었

1)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따른 토론회,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5항에 따른 토론회

고 초청 외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어 유권자들의 접근성은 낮은 편이었다.

〈표 IV-1-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구분	토론 주제	개최일시	개최장소	중계방송사	후보자	사회자 (현직)
초청 1차	1) 경제위기 극복방안 2) 복지정책	4. 6(월) 10:00 - 12:00	MBC 스튜디오	MBC	정혜선(민생당) 김종석(미래한국당) 정필모(더불어시민당) 김종철(정의당) 주진형(열린민주당)	신동진 (MBC 아나운서)
초청 2차	1)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2) 정치쇄신 방안	4. 9(수) 10:00 - 12:00	KBS 스튜디오	KBS	한지호(민생당) 조태용(미래한국당) 김홍걸(더불어시민당) 강상구(정의당) 최강욱(열린민주당)	정연욱 (KBS 기자)
초청 외	각 당의 대표 공약	4. 7.(화) 14:00 (114분)	MBC 스튜디오	MBC	최혜림(우리공화당) 김영호(민중당) 천은미(한국경제당) 최단비(국민의당) 오경훈(친박신당) 류승구(코리아) 최용상(가자!평화인권당) 김용희(가자환경당) 허경영(국가혁명배당금당) 신재훈(국민새정당) 지영준(기독교자유통일당) 유재호(깨어있는시민연대당) 장김주일(남북통일당) 송미량(노동당) 고은영(녹색당) 이석인(대한당) 김현승(대한민국당) 김소희(미래당) 이두원(미래민주당) 성영애(새누리당) 이지원(여성의당) 김종음(우리당) 손상윤(자유당) 김정민(새벽당) 최원식(자영업당) 박석우(충청미래당) 김태식(통일민주당) 김호일(한국복지당) 이종원(홍익당) ※ 불참: 국민참여신당	이정민 (MBC 아나운서)

출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은 <표 IV-1-1>과 같다.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토론회의 방송시간대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사들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방송을 유권자들의 시청이 용이한 황금시간대를 피해서 편성하고 있다. 방송사의 이와 같은 편성정책은 후보자토론회의 시청을 제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공영방송은 시청률 지상주의를 벗어나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공의 필요 측면에서 후보자토론회 방송을 황금시간대에 편성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는 후보자토론회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이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자가 초청된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2④).

-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나.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다.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 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자토론회 등은 총 461건이 개최되었다. 총 368건의 후보자토론회 등이 개최되었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2016 선거방송토론백서 83, [표 3-19] 참조). 이 중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253개 지역구 중 248개 지역구에서 1회씩 개최되었고 초청 외 후보자연설회가 208건 개최되었다. 5개 지역에서는 초청 후보자와 초청 외 후보자의 합동 토론회로 진행되었고, 초청 외 토론회의 경우에는 토론 대신에 주로 연설로 진행되었다.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에서 개최된 후보자토론회는 모두 지역케이블을 통해 방영되었고, 그 외 지역의 후보자토론회는 지역의 KBS, MBC, 또는 지역 민영방송 등 공중파 방송을 통해 방영되었다. 초청 토론회의 경우 낮 12시 이전에 방영을 시작한 경우가 253회 중 40회, 12시~17시 사이에 시작한 경우가 68회, 그리고 17시~23시 사이에 시작한 경우는 140회였으며, 23시 이후에 방영을 시작한 경우는 5회에 불과하였다. 이는 전체 초청 후보자토론회의 약 55%가 시청자들의 노출도가 가장 높은 시간에 방영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선거구 수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에서는 총 108회 초청토론회 중 104회의 토론회가 17시 이후 23시 전에 방영되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방송법에 따른 주시청 시간대인 평일 19시~23시, 주말 및 공휴일 18시~23시 사이에 방영을 시작한 경우도 90회에 달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시청자들의 접근성과 노출도가 낮은 지역 케이블에서 방영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수도권 외 다른 지역의 경우는 모두 공중파 채널에서 방영하였지만 17시~23시 사이에 방송을 시작한 경우는 총 145회 중 25%인 36회에 불과하였다. 그 중에서 방송법상 주시청 시간대에 방영을 시작한 경우는 5회 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토론회를 케이블TV에서 방송한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시청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주말 황금시간대(18시~23시)에 방영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표 IV-1-2〉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초청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광역시도	초청 토론회 횟수	공중파 방영 횟수	방송 시작 시간			
			08:00 ~12:00 전	12:00 ~17:00 전	17:00 ~23:00 전	23시 이후
서울	49	0	0	2	47	0
부산	18	18	5	10	0	3
대구	12	12	5	5	2	0
인천	13	0	2	4	6	1
광주	8	8	4	4	0	0
대전	7	7	2	0	5	0
울산	6	6	2	3	1	0
세종	2	2	0	0	2	0
경기	59	0	0	2	57	0
강원	8	8	1	7	0	0
충북	8	8	3	5	0	0
충남	11	11	2	5	4	0
전북	10	10	2	3	5	0
전남	10	10	6	4	0	0
경북	13	13	3	7	3	0
경남	16	16	3	6	7	0
제주	3	3	0	1	1	1
계	253	132	40	68	140	5
서울·경기 제외 합계	145	132	40	64	36	5

자료 제공: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한편,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도 여러 가지 토론 방식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다. 253개 후보자토론회 형식과 진행방식은 조금씩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 후보자의 시작발언으로 시작하여 사회자 공통질문/답변(또는 후보자 보충질문/답변), 사회자의 개별질문/답변, 정책검증토론, 주도권토론 또는 자유토론, 그리고 마무리발언으로 끝나는 형식을 따랐다. 다양한 토론진행방식의 혼합은 후보자를 다각도로 검증하고 흥미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짧은 답변 후 다음 형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깊이 있는 토론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는 대통령선거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토론회보다 토론회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형식의 혼합은 시청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각 선거구의 후보자토론회는 사회자의 공통질문과 개별질문이 모두 있을 경우는 정책검증토론과 주도권토론 중 하나만 실시한다든지, 또는 정책검증토론과 주도권토론을 모두 진행할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한 사회자의 개별질문을 생략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시간에 맞추어 형식을 조정하고 있다. 여러 가지 토론 진행 방식 중 주도권토론은 토론회의 역동성과 흥미를 위해, 정책검증토론은 공약의 검증을 위해 많은 선거구에서 활용하였다. 서울의 경우 49개 선거구 중 30개 선거구의 후보자토론회에서 주도권토론 방식을 채택하였고, 33개 선거구에서 정책검증토론(공약발표 후 상호토론)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시간총량제 기반 자유토론은 서울의 경우 3개 선거구에서 사용하였고, 전국적으로도 20개 선거구에서만 채택하였다.

후보자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사회자의 경우, 언론인, 방송인, 교수에 국한되어 기존의 후보자토론회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조사 대상 선거구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되는 12개 선거구의 후보자토론회 현황은 <표 IV-2-1>과 같다. 서울의 경우 5개 선거구 모두 후보자토론회가 황금시간대에 방영되었으나 지역케이블을 통해 방송되었기 때문에 높은 시청률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다른 지역의 7개 후보자토론회는 오전 시간에 방영된 부산 북구강서구갑과 광주 북구갑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TV를 많이 시청하는 시간에 공중파를 통해 방영되었다.

〈표 IV-2-1〉 12개 선거구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지역	선거구명	개최일시	방송일시	개최장소	중계방송사	후보자	사회자 (현직)
서울	종로구	4. 6.(월) 11:00	4. 7.(화) 20:00~21:10 (70분)	티브로드 강서제작센터	티브로드 서울방송, 딜라이브 중앙케이블TV	이낙연(더불어민주당), 황교안(미래통합당)	오미영 (교수)
	강남구 갑	4. 5.(일) 16:00	4. 6.(월) 20:00~21:14 (74분)	아리랑TV 스튜디오	딜라이브 강남케이블TV	김성곤(더불어민주당), 태구민(미래통합당), 정동희(민생당)	이정훈 (방송인)
	동작구 을	4. 8.(수) 14:00	4. 9.(목) 21:00~22:17 (77분)	현대HCN 스튜디오	현대HCN 동작방송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나경원(미래통합당), 이호영(정의당)	김민기 (교수)
	동대문구 을	4. 6.(월) 14:00	4. 9.(목) 20:00~21:10 (70분)	CMB 스튜디오	CMB동대문방송, 티브로드서울방송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이혜훈(미래통합당), 민병두(무소속)	김상운
	관악구 을	4. 7.(화) 14:00	4. 9.(목) 21:00~22:27 (87분)	현대HCN 스튜디오	현대HCN 관악방송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오신환(미래통합당), 한인수(민생당)	김민기 (교수)
부산	북구 강서구 갑	4. 8.(수) 10:00	4. 8.(수) 10:00~10:57 (57분)	KBS부산 TV스튜디오	KBS부산	전재수(더불어민주당), 박민식(미래통합당)	이경찬 (교수)
대구	수성구 갑	4. 6.(월) 17:30	4. 6.(월) 17:30~18:22 (52분)	대구 문화방송	대구MBC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주호영(미래통합당)	조재한 (대구MBC 기자)
대전	중구	4. 7.(화) 14:30	4. 7.(화) 22:05~22:57 (52분)	대전MBC	대전MBC	황운해(더불어민주당), 이은권(미래통합당)	마정미 (교수)
인천	연수구 을	4. 8.(수) 14:00	4. 9.(목) 21:00~22:27 (87분)	남인천방송 스튜디오	남인천방송	정일영(더불어민주당), 민경욱(미래통합당), 이정미(정의당)	장우식 (방송인)
광주	북구갑	4. 7.(화) 10:00	4. 7.(화) 10:00~11:40 (100분)	KBS광주 1층 공개홀	KBS 광주	조오섭(더불어민주당), 범기철(미래통합당), 이승남(정의당), 김경진(무소속)	지창환 (KBS 기자)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4. 8.(수) 14:00	4. 8.(수) 22:00~23:22 (82분)	티브로드 ABC방송 스튜디오	티브로드 ABC방송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심재철(미래통합당), 문태환(민생당), 추혜선(정의당)	정종기
	고양시 정	4. 8.(수) 15:00	4. 9.(목) 22:00~23:14 (74분)	딜라이브 경기케이블 TV스튜디오	딜라이브 경기케이블TV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김현아(미래통합당)	이윤영

토론회 길이는 참여하는 후보자의 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보통 후보자가 2인인 경우에는 약 50~55분, 후보자가 3인인 경우는 70~75분, 후보자가 4인인 경우에는 약 80~85분 진행되었지만, 선거구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경우 2인의 후보자가 70분간 토론하였고, 서울 관악구와 인천 연수구와 인연의 경우는 3인 후보자 토론에 87분이 소요되었다. 안양시 동안구 은은 4인 후보자가 82분간 토론한 반면, 마찬가지로 4인이 토론한 광주 북구갑은 100분간 토론이 진행되었다.

〈표 IV-2-2〉 12개 선거구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지역	선거구명	토론시간	진행방식
서울	종로구	70분	시작발언,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정책검증토론, 주도권토론, 마무리발언
	강남구 갑	74분	시작발언, 사회자 공통질문, 정책검증토론, 후보자 개별질문 후 보충질문, 마무리발언
	동작구 을	77분	시작발언, 사회자 공통질문,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후보자 개별질문 후 보충질문, 마무리발언, 공약발표
	동대문구 을	70분	시작발언, 사회자 공통질문, 정책검증토론, 주도권토론, 마무리발언
	관악구 을	87분	시작발언, 사회자 공통질문, 정책검증토론, 주도권토론, 마무리발언
부산	북구강서구 갑	57분	시작발언, 사회자 공통질문, 주도권토론, 마무리발언
대구	수성구 갑	52분	시작발언, 사회자 공통질문, 정책검증토론, 주도권토론, 마무리발언
대전	중구	52분	시작발언, 사회자 공통질문, 주도권토론, 마무리발언
인천	연수구 을	87분	시작발언, 사회자 공통질문, 사회자 개별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정책검증토론, 마무리발언
광주	북구갑	100분	시작발언,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사회자 개별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마무리발언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82분	시작발언, 사회자 공통질문,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정책검증토론, 마무리발언
	고양시 정	74분	시작발언, 사회자 공통질문, 정책검증토론, 주도권토론, 마무리발언

한편, 〈표 IV-2-2〉에서 알 수 있듯이, 12개 선거구의 후보자토론회는 모두 다양한 진행방식을 활용하여 후보자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사회자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보충질문, 정책검증토론, 주도권토론 등을 통해 단순 질문/단순 답변 형식을 벗어나 토론회의 역동성과 후보 검증 효과를 높이려는 노력이 보인다.

특히 12개 선거구 중 8개 선거구에서 각 후보자가 정책 공약을 발표한 뒤에 상대 후보자들과 상호 검증하는 방식인 정책검증토론을 채택함으로써 토론 의제를 정책에 한정하고 토론의 질을 높이고자 시도하였다. 하지만 7개 선거구에서 활용된 주도권토론은 토론회를 역동적으로 만드는 효과는 있었지만 이번에도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기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모든 선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회자 공통질문과 답변은 1분~1분 30초의 짧은 답변 시간으로 인해 충분하고 깊이 있는 토론 대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나, 사회자의 질문 후 후보자의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 해결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사회자 질문에 대한 답변 후 후보자 보충질문을 채택하고 있는 선거구는 12개 중 절반인 6개 선거구이다.

2020년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

V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V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1 제도적 측면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들에게 선거와 후보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절은 후보자토론회라는 제도가 유권자들에게 선거와 후보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가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절에서는 크게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토론회 횟수, 진행시간, 그리고 토론회 형식 및 토론 진행방식을 중심으로 유권자들의 후보자토론 제도에 대한 평가를 분석한다.

1)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 횟수, 진행시간

공직선거법 제82조의2를 살펴보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의 토론회를 개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 초청토론회 2회, 초청외 비례대표토론회 1회가 진행되었으며,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지역구 후보들을 대상으로 토론회와 연설을 개최하였다.²⁾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선거마다 진행되는 후보자토론회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가? <표 V-1-1>은 국회의원선거 기간 중 실시된 사전설문조사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절대다수인 것을 알 수 있다.

2) 개최정보에 관한 내용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참조(<https://www.debates.go.kr>).

〈표 V-1-1〉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³⁾ (사전조사)

필요성	비율(%)
반드시 필요하다	46.8
어느 정도 필요하다	51.3
별로 필요하지 않다	1.8
전혀 필요하지 않다	0.1

위의 표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선거방송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현제도 하에서의 후보자토론 횟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표 V-1-2〉를 보면, 사전평가에서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7%인 반면, 사후평가에서는 약 59%로 감소하였다. 이는 국회의원선거에서 한 번의 토론회가 정보를 제공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유권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1-2〉 후보자토론회 횟수 선호(%)

토론 횟수	과거평가 (사전조사) ⁴⁾	현재평가 (사후조사) ⁵⁾
충분하다	67.1	59.0
부족하다	32.9	41.1

물론 토론 횟수에 관한 선호는 개인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토론 횟수에 관한 선호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방송토론을 시청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방송토론을 시청하는가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이소영 외 2017). 그렇다면, 이러한 영향력이 이번 선거에서도 관찰되는가? 〈표 V-1-3〉은 토론 횟수에 관한 유권자들의 선호를 종속변수로 한 통계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3) 설문은 기본적으로 후보자토론회가 진행될 필요가 있는가를 묻는다.

4)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생님께서서는 현재 1회로 개최 예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횟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 충분하다, 0 = 부족하다.

5)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생님께서서는 지역구별로 한 차례씩 진행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1 = 충분했다, 0 = 부족했다.

〈표 V-1-3〉 후보자토론회 횡수 선호 분석 (프로빗분석)

변수	모형 1-1	모형 1-2	모형 1-3	모형 1-4	모형 1-5
토론회수 사전선호	1.02** (0.07)	1.02** (0.07)	1.02** (0.07)	0.96** (0.09)	1.01* (0.09)
토론시청유무 ⁶⁾	0.26** (0.08)		0.04 (0.14)		
토론시청 정도 ⁷⁾		0.07* (0.02)	0.06* (0.03)	0.05 (0.04)	0.03 (0.03)
관심시청 ⁸⁾				0.14 (0.10)	0.12 (0.09)
승자지지 ⁹⁾	0.30** (0.07)	0.30** (0.07)	0.30** (0.07)	0.28** (0.08)	0.33** (0.08)
선거관심도 ¹⁰⁾	0.08 (0.06)	0.07 (0.06)	0.07 (0.06)	0.05 (0.09)	0.05 (0.09)
후보정책인지도 ¹¹⁾	0.12 (0.07)	0.09 (0.07)	0.09 (0.07)	0.01 (0.10)	0.01 (0.09)
방송토론영향력평가 ¹²⁾				0.11* (0.06)	0.13* (0.06)
공정성평가 ¹³⁾				0.14 (0.09)	
유용성평가 ¹⁴⁾				0.05 (0.09)	
흥미성평가 ¹⁵⁾				0.31** (0.08)	
자질비교유용성					0.23** (0.09)
정책공약비교유용성					0.05 (0.08)
수행능력비교유용성					0.04 (0.07)

6) 토론 시청 = 1, 시청하지 않음 = 0.

7) 토론 시청과 정도: 5 = 전체 토론회 모두 시청, 4 = 2/3 시청, 3 = 1/2 시청, 2 = 3/1 시청, 1 = 잠시만 시청, 0 = 시청하지 않음.

8) 사후 조사에서 '얼마나 방송토론을 관심 있게 보았는가?'라는 질문으로 측정: 3 =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봄, ..., 0 =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봄.

9) 응답자들이 해당 지역구 승자에게 투표한 경우 = 1, 그렇지 않으면 = 0.

10) 선거에 관심이 매우 많다 = 3, ..., 전혀 없다 = 0.

11)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관한 설문 활용: 3 = 매우 잘 안다, ..., 0 = 전혀 모른다.

12) 후보자토론이 후보선택에 미친 영향력 설문 활용: 3 =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 ..., 0 =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3) 토론회가 매우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 3, ..., 전혀 그렇지 않았다 = 0.

14) 토론회가 정보획득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 3, ..., 전혀 그렇지 않았다 = 0.

15) 토론회가 매우 흥미롭게 진행되었다 = 3, ..., 전혀 그렇지 않았다 = 0.

변수	모형 1-1	모형 1-2	모형 1-3	모형 1-4	모형 1-5
교육수준	-0.08** (0.04)	-0.09** (0.04)	-0.09** (0.04)	-0.10* (0.05)	-0.11** (0.05)
남성	-0.09 (0.07)	-0.11 (0.07)	-0.11 (0.07)	-0.12 (0.08)	-0.10 (0.08)
연령	-0.01** (0.00)	-0.01** (0.00)	-0.01** (0.00)	-0.01** (0.00)	-0.01** (0.00)
상수	-0.62* (0.27)	-0.50* (0.27)	-0.52* (0.28)	-1.32* (0.48)	-1.43* (0.47)
N	1,433	1,433	1,433	971	1,006
AIC	1,706	1,703	1,705	1,162	1,206
Pseudo R ²	0.12	0.13	0.13	0.14	0.14

참조: 종속변수는 토론 횟수에 관한 사후 선호 (충분하다 = 1, 부족하다 = 0). 표 안의 숫자는 회귀계수,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 오차.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모형의 효율성 평가, 낮을수록 높은 모형 효율성 의미.

통계적 유의성 ** $p < 0.05$, * $p < 0.10$.

모형 1-1의 결과에 따르면, 방송토론을 시청한 유권자들일수록 한 번의 방송토론이 충분했다고 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형 1-2와 모형 1-3의 결과는 방송토론을 온전하게 시청하면 할수록 한 번 진행된 이번 방송토론이 충분했다고 답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형 1-4와 모형 1-5의 결과에서는 후보자토론회를 어느 정도 시청했는가에 따라 토론 횟수 선호가 달리 나타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차이는 모형과 대상의 차이에 따라 나타난 것일 수 있다. 모형 1-4와 모형 1-5는 여타 토론 평가를 포함하기 때문에 토론을 시청한 유권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 평가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후보자토론회 시청 변수는 유의미하게 후보자토론회 횟수 선호를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신청했는지도 유의미한 변수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평가는 선거방송 횟수 선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1-4와 모형 1-5의 결과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자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쳤었다고 응답한 유권자들일수록 한 번의 후보자토론이 충분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후보자 선택이 확실해졌다면, 더 이상의 후보자토론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인지 부조화를 피하려면,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선택하고 난 후 자신의 결정을 확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유권자들일수록 한 번의 후보자토론회면 충분하다고 평가하려 할 것이다.

반면, 공정성과 유용성, 그리고 흥미성 평가가 후보자토론회 횟수 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세 가지 평가 기준들 중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변수는 흥미성 평가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토론이 흥미롭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하면 할수록 유권자들은 후보자토론회가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답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는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후보자들의 자질, 정책공약, 정책수행능력을 비교할 때 유용했는가를 물었다. 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후보자들의 자질을 비교하는데 유용했다고 답할수록 시청자들은 후보자토론회가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답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약 비교와 수행능력 비교 평가 변수들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 분석에서 흥미로운 사실들 중 하나는 승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일수록 후보자토론회가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승자 지지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관찰된다. 지난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있었다(이소영 외 2017). 우세한 후보의 경우 더 빈번한 후보자토론회는 득보다 실이 많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표의 결과에 따르면, 지지자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승자를 지지한 유권자들일수록 한 번의 토론회면 충분히 승패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승자 지지에 대한 자기 합리화가 작동했을 수도 있다.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교육수준과 연령이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 이 표의 결과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일수록 후보자토론회가 한 번으로 부족하다는 견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토론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체 응답자 중 약 37%가 한 번의 토론회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더 많은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제시한 적절한 토론 횟수는 무엇인가? <표 V-1-4>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회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사전조사 약 60%, 사후조사 약 5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기록한 범주는 2회로 사전조사 약 29%, 사후조사 25%이다.

〈표 V-1-4〉 적절한 후보자토론회 횟수

과거평가 (사전조사)		현재평가 (사후조사)	
횟수	비율(%)	횟수	비율(%)
2	29.0	2	25.0
3	59.9	3	52.7

과거평가 (사전조사)		현재평가 (사후조사)	
횟수	비율(%)	횟수	비율(%)
4	1.5	4	3.8
5	7.5	5	15.1
6	0.3	6	0.4
7	0.4	7	0.4
10	1.2	8	0.1
20	0.2	10	2.3

후보자토론회 횟수의 경우 약 41% 유권자들이 한 번의 후보자토론회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표 V-1-5>을 보면, 이와 유사하게 약 32.6% 시청자들은 후보자토론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약 5.3%이었으며, 62.2%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어떠한 변수들이 이 변이를 설명하는가?

<표 V-1-5> 후보자토론회 진행시간 선호¹⁶⁾ (사후조사)

시간	비율(%)
줄여야 한다	5.3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62.2
늘려야 한다	32.6

이 보고서는 앞서 후보자토론회 횟수 선호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그 양상은 토론회 진행 시간에 대한 선호분석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는가? <표 V-1-6>은 관련 결과를 보여준다. 이 표의 모형 2-3의 결과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들이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에 비해 토론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토론시청 정도를 제외하고 토론시청 유무를 독립변수로 포함한 모형 2-1의 결과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토론시청 정도 변수를 포함하는 모든 모형에서 토론을 더 온전하게 시청할수록 후보자토론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답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시청 유무를 통해 시간에 대한 선호를 분석하는 것과 정도에 따른 분석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16) 지역구마다 방송토론 시간 차이 존재.

〈표 V-1-6〉 후보자토론회 진행시간 선호 분석

변수	모형 2-1	모형 2-2	모형 2-3	모형 2-4	모형 2-5
토론횟수사전선호 ¹⁷⁾	0.38** (0.06)	0.37** (0.06)	0.38** (0.06)	0.33** (0.08)	0.36** (0.08)
토론시청유무	-0.10 (0.07)		0.37** (0.12)		
토론시청정도		-0.06** (0.01)	-0.14** (0.03)	-0.11** (0.03)	-0.11** (0.03)
관심시청				-0.10 (0.09)	-0.09 (0.08)
승자지지	0.01 (0.06)	0.01 (0.06)	-0.14** (0.03)	-0.01 (0.07)	-0.01 (0.07)
득표율격차 ¹⁸⁾	-0.01** (0.00)	-0.01** (0.00)	-0.01** (0.00)	-0.02** (0.00)	-0.02** (0.00)
선거방송시간 ¹⁹⁾	0.007** (0.002)	0.007** (0.002)	0.007** (0.002)	0.009** (0.003)	0.009** (0.003)
선거관심도	-0.07 (0.05)	-0.05 (0.05)	-0.05 (0.05)	-0.04 (0.08)	-0.04 (0.08)
후보정책인지도	-0.09 (0.06)	-0.05 (0.06)	-0.03 (0.06)	-0.06 (0.09)	-0.06 (0.09)
후보자토론영향력평가				-0.07 (0.06)	-0.07 (0.06)
공정성평가				0.06 (0.08)	
유용성평가				0.17* (0.08)	
흥미성평가				-0.06 (0.07)	
자질비교유용성					0.04 (0.08)
정책공약비교유용성					-0.00 (0.07)
수행능력비교유용성					0.02 (0.06)
교육수준	-0.03 (0.03)	-0.03 (0.03)	-0.03 (0.03)	0.01 (0.04)	0.02 (0.04)

17) 토론시간에 관한 사전 선호 질문이 부재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이 변수를 활용한다. 이 변수를 모형에서 누락해도 주요 결과는 유지된다.

18) 당선자와 차순위자의 득표율 차이.

19) 서울 종로구 69분, 강남갑 74분, 동작을 77분, 동대문을 70분, 관악을 87분, 부산 북강서갑 57분, 대구 수성갑 52분, 광주 북갑 100분, 대전 중구 53분, 인천 연수을 87분, 경기 안양 동안을 82분, 경기 고양정 74분.

변수	모형 2-1	모형 2-2	모형 2-3	모형 2-4	모형 2-5
남성	-0.29** (0.06)	-0.27** (0.06)	-0.26** (0.06)	-0.30** (0.07)	-0.30** (0.07)
연령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1,398	1,398	1,398	963	995
AIC	2,246	2,234	2,228	1,539	1,595
Pseudo R ²	0.03	0.03	0.04	0.04	0.04

참조: 종속변수는 토론 시간에 관한 사후 선호(늘여야한다=0,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1, 줄여야 한다=2). 표안의 숫자는 회귀계수,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 오차.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모형의 효율성 평가, 낮을수록 높은 모형 효율성 의미.

통계적 유의성 ** p< 0.05, * p< 0.10.

토론 횟수에 관한 분석에서는 승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일수록 토론 횟수를 늘이는 것에 부정적인 선호를 표출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이 결과는 토론 시간에서는 일관되게 관찰되지 않는다. 모형 2-3의 결과에 따르면, 승자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경우 토론시간을 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반면, 나머지 모형에서 승자에 대한 지지는 토론 시간에 대한 선호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즉, 모형 2-3에서 관찰된 승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토론시간을 늘여야 한다는 선호를 보인 까닭은 방송토론에 대한 평가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평가는 선거 환경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이한수 2019). 예를 들어, 선거의 경쟁 정도는 후보자토론 시간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 선택을 위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더 긴 후보자토론 시간을 선호할 것이다. 실제로 이 표의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 변수들 중 의미 있는 변수들은 득표율 격차와 선거방송 시간이다.

<표 V-1-6>의 모든 모형에서 당선자와 차순위자의 득표율이 큰 선거구의 유권자들일수록 후보자토론 방송시간을 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이 결과는 경쟁이 치열한 선거구의 유권자들일수록 방송토론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미 언급한 예상과 더불어, 경쟁이 치열할수록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토론회에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긴 토론 시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선거가 치열한 경우 후보자들은 후보자토론회에서 정책대결이 아닌 네거티브 전략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이한수 2019). 만일 후보들이 토론회에서 네거티브 전략으로 공방을 주고받는다면, 시청자들은

토론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토론 시간이 너무 길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토론시간이 길수록 토론시간을 줄이자는 선호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토론회 평가에 관련해서는 정보획득에 대한 평가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다. 이 결과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것이 정보획득에 유용했다고 답할수록 방송 토론 시간을 늘리는 것에 부정적인 선호를 표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토론회 평가 변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평가는 방송 시간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 후보자토론회 형식과 진행방식에 대한 선호

후보자토론회의 제도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후보자토론회 형식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를 살펴본다. 우선 <표 V-1-7>의 결과를 통해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자토론회 유형을 선호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1%의 유권자들이 유권자 질문에 후보자가 답하는 형식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높은 선호(29.5%)는 후보자들 간의 상호 토론 형식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자나 전문가의 질문에 후보자가 답하는 형식은 약 14-1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V-1-7> 선호하는 후보자토론회 유형 (사후조사)

유형	비율(%)
후보자들끼리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	29.5
유권자의 질문에 후보자가 답하는 형식	40.8
사회자의 질문에 후보자가 답하는 형식	14.2
전문가의 질문에 후보자가 답하는 형식	15.5

이 결과를 통해 우리는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유권자 참여에 대한 선호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88.6%가 유권자의 후보자토론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후보자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표 V-1-8>는 이 질문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를 보여준다.

〈표 V-1-8〉 유권자 참여 방식에 대한 선호 (사후조사)

선호	비율(%)
사전에 유권자 질문사항을 조사한 후 후보자에게 질의	35.0
토론회 중간에 즉석 전화 통화	13.3
토론회 방청객이 후보자에게 질문	32.3
SNS를 통한 실시간 참여	18.5
모름	0.8

이 표의 결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이는 유권자 참여 방식은 ‘후보자 토론회 전에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수집한 후 선별하여 이를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방식’(35.0%)과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여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방식’(32.3%)이다. SNS나 전화를 통한 질문에 대한 선호는 각각 18.5%와 13.3%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88%가 넘는 설문참여자들이 유권자들의 선거방송 참여를 원하는 사실을 고려하면, 다음 후보자토론회에는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

후보자토론회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은 선호를 보인 형식은 후보자들 간의 토론이다. 실제로 후보자토론회는 대체로 후보자들 간의 상호토론 방식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후보자 상호토론 방식을 선호하는가? 〈표 V-1-9〉에 따르면, 후보자들이 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후보자들이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44.5%)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선호는 사회자의 질문에 후보자가 답변하고 이후 후보자들 간의 상호 보충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39.0%)이다. 주도권토론 방식(14.2%)에 대한 선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표 V-1-9〉 후보자 상호토론 방식 선호 (사후조사)

방식	비율(%)
후보자들이 정책(공약) 발표 후 후보자 간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	44.5
사회자가 제시하는 질문에 대해 후보자들이 답변하고 상호 보충 질문하는 방식	39.0
후보자가 질문권한 및 답변자를 지정하는 주도권토론 방식	14.2
시청자 또는 유권자의 질문에 후보자들이 답을 하는 방식	0.5
후보자가 각자의 정책 발표 후 사회자 및 전문가가 질문하는 방식	0.1
유권자와 전문가가 제시한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	0.1
모름	1.7

〈표 V-1-9〉의 결과에서 가장 높은 선호를 보인 방식은 후보자들이 공약을 발표한 후 서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상호정책검증토론’ 방식이다. 이 방식이 후보자들 간

의 정책을 비교하고 검증하는데 얼마나 유용한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유용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상호정책검증토론 방식이 유용하다는 평가는 약 87%인 것에 비해 유용하지 않다는 평가는 약 11%에 불과했다.

〈표 V-1-10〉 상호정책검증토론 방식 유용성 평가 (사후조사)

평가	비율(%)
매우 유용하다	15.6
어느 정도 유용하다	71.7
별로 유용하지 않다	10.8
전혀 유용하지 않다	0.3
모름	1.6

〈표 V-1-9〉의 결과는 유권자들이 다른 토론 방식에 비해 주도권토론 방식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주도권토론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표의 결과에 따르면, 주도권토론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약 74%로 부정적인 평가보다 약 50% 정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V-1-11〉 주도권토론 방식 의견 (사후조사)

의견	비율(%)
매우 바람직하다	10.5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	63.7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22.7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1.4
모름	1.8

후보자상호토론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높은 선호를 보인 방식은 사회자가 질문하고 후보자들이 이에 대해 답변한 후 상호간의 토론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서 사회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토론회에서 유권자들은 사회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표 V-1-12〉의 결과에 따르면, 약 77%의 설문 참여자들이 사회자가 토론에 적절하게 개입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이 미숙했거나 지나치게 많이 개입했다는 평가는 약 19% 정도에 불과했다.

〈표 V-1-12〉 사회자 역할 평가 (사후조사)

평가	비율(%)
지나치게 많이 개입했다	4.6
적절하게 개입했다	76.9
진행이 미숙했다	14.9
모름	3.7

6) 소결

본 연구 결과는 대다수 시민들이 후보자토론회가 필요하며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얼마나 빈번하게, 어느 정도의 방송시간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우선 지역구 후보자들 간에 진행된 한 번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후보자토론회 시청 이전에 비해 이후에 충분하다는 의견이 감소한 것도 사실이다. 반면 방송시간의 경우 60% 이상의 시청자들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후보자토론회는 다양한 형식과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유권자들의 후보자토론 유형과 방식에 관한 선호를 검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유권자들이 선거방송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참여방식은 사전에 후보자들에 대한 질문을 취합하여 묻는 방식과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여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었다. 이 결과는 유권자들이 선거 참여와 후보자토론회 참여 의지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선호를 반영하여 향후 후보자토론은 유권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2 현실적 측면

1995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도입된 이후 한국의 선거에서 후보자토론회는 각급 선거에서 활용되면서 공식적인 선거과정의 하나로 자리잡아 왔다.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자질, 국정수행 능력 등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이를 통해 후보들의 능력과 자질을 직접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후보자토론회는 개별적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하던 경쟁하는 후보들이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조건 하에서 유권자들에게 공약이나 정책을 비교, 평가받는 거의 유일한 기회로서 유권자와 후보자 간 소통의 도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재묵 2017; Benoit et al. 2001; Maurer and Reinemann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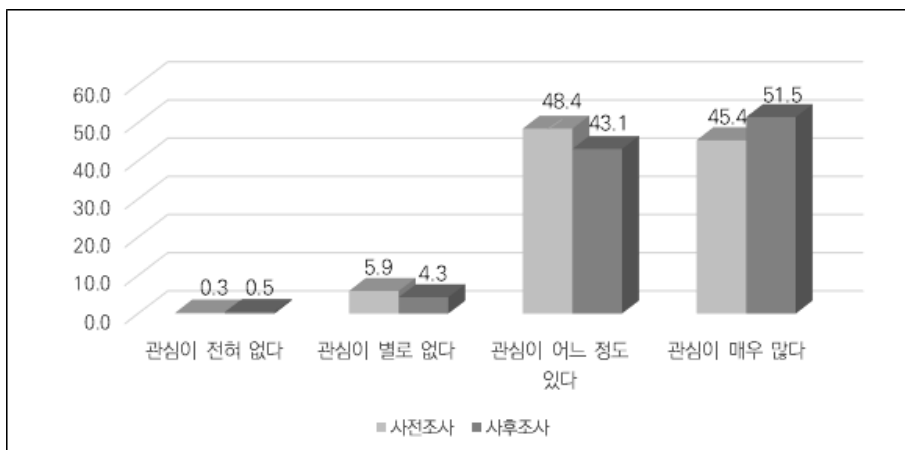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후보자토론회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 그리고 흥미성과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의 인구사회학적, 그리고 정치적 특성에 따른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후보자토론회의 그 본연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적 제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과 투표참여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집약하고, 이에 기초해 정치권력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유권자의 선거참여는 대의 민주주의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의 선거관심도를 제고하고 선거 정보습득을 용이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투표참여율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한정택·이재묵·조진만 2013). 이러한 점에서 우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보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조사의 경우, “선생님께서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93.8%의 응답자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6.2%에 불과했다. 사후조사에서도 동일한 질문에 대해 94.6%가 ‘선거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해 사전조사보다 조금 증가했으며,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4.7%로 사전조사보다 조금 낮아졌다.

〈그림 V-2-1〉 제21회 국회의원선거 관심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비교



다음으로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의 투표의향과 투표참여여부를 분석해보면 사전조사에서 “선생님께서서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생각이십니까?”라는 질문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83.1%)와 ‘가급적 투표할 것이다’(15.3%)라고 응답하여 98.4%의 응답자가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투표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사후조사에서도 “선생님께서서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투표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8%이었던데 반해, ‘투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에 그쳤다.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서 공히 실제 투표율(66.2%)에 비교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조사의 표본인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이 상대적으로 정치적 관심이 높은 유권자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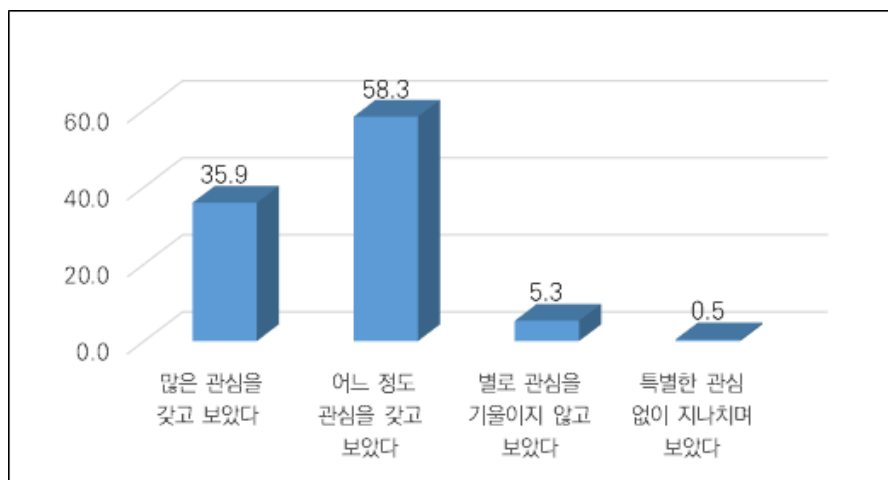
〈표 V-2-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의 투표의향(사전조사)과 투표여부(사후조사)

(단위: 명(%))

사전조사 (투표의향)		사후조사 (투표여부)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895(83.1)	투표했다	1,055(98.0)
가급적 투표할 것이다	165(15.3)	투표하지 않았다	22(2.0)
별로 투표하고 싶지 않다	14(1.3)		
투표할 의사가 전혀 없다	3(0.3)		
합계	1,077(100.0)	합계	1,077(100.0)

다음으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이다. 본 연구는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을 “선생님께서서는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얼마나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했다.

〈그림 V-2-2〉 후보자토론회 관심도(%): 사후조사



분석 결과,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 가운데 ‘많은 관심을 갖고 보았다’(35.9%)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보았다’(58.3%)를 포함하여 94.2%가 관심을 가지고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심이 없었다는 응답은 5.8%에 불과했다(약간 무관심 5.3%, 매우 무관심 5.8%).

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심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에서 보이듯이, 선거관심도와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 사이에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 선거에 대한 관심과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 (사후조사)

(단위: 명(%))

		선거관심도				합계
		매우 높음	약간 높음	약간 낮음	매우 낮음	
후보자 토론회 관심도	매우 높음	354 (91.5)	32 (8.3)	0 (0.0)	0 (0.0)	387 (35.9)
	약간 높음	254 (40.4)	360 (57.3)	12 (1.9)	1 (0.2)	628 (58.3)
	약간 낮음	11 (19.3)	31 (54.4)	13 (22.8)	2 (3.5)	57 (5.3)
	매우 낮음	4 (80.0)	1 (20.0)	0 (0.0)	0 (0.0)	5 (0.5)
합계		623 (57.8)	424 (39.4)	25 (2.3)	3 (0.3)	1,077 (100.0)

또한,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와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3>에서는 후보자토론회를 관심 있게 시청한 1,105명 가운데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응답자는 1,000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과 투표여부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즉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투표 참여율은 높은 것이 나타났다.

〈표 V-2-3〉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과 투표여부 (사후조사)

(단위: 명(%))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합계
많은 관심을 갖고 보았다	384(36.4)	3(0.8)	387(35.9)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보았다	616(58.4)	12(1.9)	628(58.3)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보았다	50(0.5)	7(12.3)	57(5.3)
특별한 관심 없이 지나치며 보았다	5(0.5)	-	5(0.5)
합계	1,055(98.0)	22(2.0)	1,077(100.0)

$\chi^2 = 33.124$, $df = 3$, $p = 0.000$

마지막으로, 어떤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에 관심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정치적 특징과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 사이에 교차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유의수준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후보자토론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4〉 사회·인구학적/정치적 특성과 후보자토론회 관심 정도 (사후조사)

(단위: 명(%))

		많은 관심	어느 정도 관심	별로 관심 없다	지나치며 보았다	검정값
성별	남자	220(42.2)	272(52.2)	27(5.2)	2(0.4)	17.733*** df=3
	여자	167(30.0)	365(64.0)	30(5.4)	3(0.5)	
연령	18~29세	69(25.7)	178(66.2)	21(7.8)	1(0.4)	25.874*** df=12
	30대	140(40.1)	192(55.0)	16(4.6)	1(0.3)	
	40대	95(37.4)	147(57.9)	11(4.3)	1(0.4)	
	50대	63(42.8)	77(53.1)	4(2.8)	2(1.4)	
	60대 이상	21(35.0)	34(56.7)	5(8.3)	0(0.0)	
학력	초등 졸업	1(50.0)	0(0.0)	1(50.0)	0(0.0)	30.162* df=21
	중등 졸업	0(0.0)	4(100.0)	0(0.0)	0(0.0)	
	고등 재학	3(60.0)	2(40.0)	0(0.0)	0(0.0)	
	고등 졸업	40(40.4)	52(52.5)	7(7.1)	0(0.0)	
	대학 재학	24(28.2)	58(68.2)	3(3.5)	0(0.0)	
	대 졸	269(34.9)	451(59.0)	43(5.6)	3(0.4)	
	대학원 이상	52(44.8)	59(50.9)	3(2.6)	2(1.7)	
기타	0(0.0)	2(100.0)	0(0.0)	0(0.0)		

※ 사회·인구학적 변인에는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자산을 포함했으며, 정치적 특성에는 지지정당이 포함되었음. 그러나 성별, 연령, 학력 변수만이 후보자토론회 관심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표에서는 이 변수들만을 표기함.

연령에 있어서는 50대가 후보자토론회에 가장 많은 관심을 나타냈으며(‘많은 관심’과 ‘어느 정도 관심’ 합 95.9%), 30대(95.1%)와 40대(95.3%) 또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18~29세(91.9%)과 60대(91.7%)는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학력과 관련해서는 응답자가 매우 적은 범주를 제외하면 대학생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에 어느 정도라도 관심을 가지는 비율(96.4%)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많은 관심’을 가지는 비율은 대학원 재학 이상이나 대졸 또는 고졸 유권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과 관련해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후보자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비율이 약 12%p 정도 높았다.

한편,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응답자들은 선거기간 동안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을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30.9%).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만 하더라도 토론회를 관심 있게 시청한 응답자들 가운데 TV를 통해 선거정보를 습득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었던 것(이소영 외 2018)과 비교해 볼 때, 이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선거정보 유통이 전통적인 매체보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후보자토론회도 인터넷을 활용하여 유권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표 V-2-5〉 선거기간 정보습득 매체 (사후조사)

선거기간 정보습득 매체	빈도(명)	비율(%)
선거홍보물	291	27.0
종이 신문 (오프라인에서 종이신문 이용)	17	1.6
인터넷 신문 (개별 언론사 홈페이지 직접 접속)	59	5.5
인터넷 포털 (네이버, 다음 등)	333	30.9
지상파 방송 (KBS, MBC, SBS)	149	13.8
케이블 및 위성 방송 (YTN, 연합뉴스TV 뉴스채널 등)	42	3.9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채널A, MBN)	22	2.0
종합편성채널 (JTBC)	16	1.5
SNS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 밴드 등)	58	5.4
유튜브	64	5.9
라디오 방송	9	0.8
모름/기타	17	1.6
전체	1,077	100.0

이러한 경향성을 반영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유권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토론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예컨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홈페이지, 유튜브 및 네이버를 통해 TV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URL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유권자가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 TV후보자 토론회를 다시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유튜브 및 다양한 인터넷 포털을 통한 TV 후보자토론회 방송 중계나 유권자의 토론회 참여 등 보다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V-2-6〉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 조회수

연번	선거구	유튜브	네이버
1	서울특별시 종로구	173,177	6,727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을	2,445	53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을	20,564	1,603
4	서울특별시 관악구을	1,218	60
5	서울특별시 강남구갑	27,171	1,114
6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갑	2,459	246
7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400	538
8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1,598	74
9	광주광역시 북구갑	206	71
10	대전광역시 중구	120	11
1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을	16,238	298
12	경기도 고양시정	361	392

자료 제공: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통적인 미디어인 TV(지상파, 케이블, 위성, 종합편성채널 모두 포함), 신문, 라디오 등을 통한 선거정보 습득비율은 약 24%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가장 전통적인 선거정보 습득 매체인 ‘선거홍보물’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도 27%에 이르러 인터넷과 SNS의 시대에도 선거홍보물의 중요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후보자토론회 미시청자들의 경우, 선거홍보물을 통해 선거정보를 습득한다는 응답 비율은 약 43%에 이르고 있어 흥미롭다.

2)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

공정성과 유용성, 그리고 흥미성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시하는 후보자토론의 3대 요소이며,²⁰⁾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선거와 후보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제들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은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성과 유용성, 그리고 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기존 연구들에서 후보자토론회에서의 공정성은 동등한 조건에서 동등한 기회로서 후보자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에게 동등한 조건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이재묵 2017; 한정택·이재묵·조진만 2013). 외 2013). 이를 위해 후보자들에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동등한 토론의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예컨대, 공직선거

20)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참조(<https://www.debates.go.kr>).

법에 따른 토론회 초청 자격 조건(제82조의2 제④항)과 토론회 참석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 토론회에서의 발언시간과 순서, 좌석배치, 사회자선정, 질문내용 등 제도적인 차원과 함께 줌인, 줌아웃, 클로즈업 등 카메라 워킹과 화면 크기 등도 공정성 요소와 관련된다(김경호 2014).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었는지 유권자들의 인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표 V-2-7>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사전설문조사에서 “지금까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2.2%가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어왔다고 평가했던 반면 후보자토론회가 지금까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응답도 32.5%였다.

그러나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후조사의 결과는 공정성과 관련하여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사후조사에서는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응답자들 가운데 81.4%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전조사에 비해 공정성에 대한 긍정 평가가 19.2%p나 증가했다. 반면 이번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15.0%로 사전조사와 비교해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 평가는 17.5%p나 감소했다. 특히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비교를 통해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후보자토론회 시청 이후 현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면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표 V-2-7>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 평가 (사전-사후조사 비교)

(단위: 명(%))

공정성	과거평가 (사전조사)	현재평가 (사후조사)
매우 그렇다	74 (6.9%)	81 (7.5%)
어느 정도 그렇다	595 (55.3)	796 (73.9)
별로 그렇지 않다	318 (29.5)	146 (13.6)
전혀 그렇지 않다	32 (3.0)	15 (1.4)
본 적 없음	22 (2.0)	
모름	36 (3.3)	39 (3.6)
전체	1,077 (100%)	1,077 (100%)

그러면 어떠한 사회·인구학적, 정치적 특성을 가진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인식했을까? 유의수준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직업, 학력, 소득, 지지정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

다.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응답은 직업적으로는 경영/관리직, 학력에서는 대학졸업자, 소득에서는 450~550만원 그룹, 지지정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직업적으로 생산/노무, 학력은 대학재학(초등졸업과 중등졸업은 사례수가 너무 적어서 제외함), 소득은 350~450만원 그룹, 지지정당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지지자에서 이번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후보자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차 가지지 못했던 국민의당과 소수정당으로서 후보자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정의당의 지지자들은 오히려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다고 평가했던 것과 대조적이라고 하겠다.

〈표 V-2-8〉 사회·인구학적/정치적 특성과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 평가

(단위: 명(%))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	검정값
직업	자영업	10(13.0)	52(67.5)	14(18.2)	1(1.3)	0(0.0)	68.528*** df 44
	판매/영업	6(10.0)	39(65.0)	11(18.3)	0(0.0)	4(6.7)	
	기능/숙련	3(21.4)	8(57.1)	2(14.3)	0(0.0)	1(7.1)	
	생산/노무	1(4.5)	16(72.7)	5(22.7)	0(0.0)	0(0.0)	
	사무직	29(6.3)	357(77.9)	52(11.4)	7(1.5)	13(2.8)	
	경영/관리	5(8.1)	49(79.0)	5(8.1)	2(3.2)	1(1.6)	
	전문/자유	4(4.1)	70(71.4)	18(18.4)	2(2.0)	4(4.1)	
	가정주부	7(7.0)	73(73.0)	14(14.0)	0(0.0)	6(6.0)	
	학생	11(11.2)	66(67.3)	15(15.3)	2(2.0)	4(4.1)	
	무직	4(8.5)	36(76.6)	4(8.5)	0(0.0)	3(6.4)	
	기타	1(2.5)	30(75.0)	6(15.0)	1(2.5)	2(5.0)	
	잘 모름	0(0.0)	0(0.0)	0(0.0)	0(0.0)	1(100.0)	
학력	초등 졸업	1(50.0)	0(0.0)	1(50.0)	0(0.0)	0(0.0)	41.419** df 28
	중등 졸업	0(0.0)	4(100.0)	0(0.0)	0(0.0)	0(0.0)	
	고등 재학	3(60.0)	1(20.0)	1(20.0)	0(0.0)	0(0.0)	
	고등 졸업	6(6.1)	72(72.7)	13(13.1)	2(2.0)	6(6.1)	
	대학 재학	8(9.4)	59(69.4)	15(17.6)	1(1.2)	2(2.4)	
	대학 졸업	57(7.5)	576(75.4)	95(12.4)	11(1.4)	25(3.3)	
	대학원 이상	6(5.2)	83(71.6)	20(17.2)	1(0.9)	6(5.2)	
	기타	0(0.0)	1(50.0)	1(50.0)	0(0.0)	0(0.0)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	검정값
소득	150만원 미만	3(7.7)	22(56.4)	7(17.9)	2(5.1)	5(12.8)	50.737** df 32
	150~250 미만	9(8.7)	71(68.3)	18(17.3)	1(1.0)	5(4.8)	
	250~350 미만	7(5.1)	98(72.1)	22(16.2)	1(0.7)	8(5.9)	
	350~450 미만	18(9.9)	124(68.1)	36(19.8)	1(0.5)	3(1.6)	
	450~550 미만	14(8.2)	134(78.4)	19(11.1)	0(0.0)	4(2.3)	
	550~650 미만	9(7.0)	100(78.1)	12(9.4)	2(1.6)	5(3.9)	
	650~800 미만	8(5.6)	115(80.4)	11(7.7)	3(2.1)	6(4.2)	
	800~1000 미만	7(7.1)	77(78.6)	9(9.2)	3(3.1)	2(2.0)	
	1000만원 이상	6(7.9)	55(72.4)	12(15.8)	2(2.6)	1(1.3)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54(10.5)	403(78.3)	44(8.5)	1(0.2)	13(2.5)	124.800*** df 52
	미래통합당	9(5.9)	106(69.3)	27(17.6)	7(4.6)	4(2.6)	
	민생당	0(0.0)	2(40.0)	3(60.0)	0(0.0)	0(0.0)	
	미래한국당	0(0.0)	7(63.6)	3(27.3)	1(9.1)	0(0.0)	
	더불어시민당	1(5.6)	13(72.2)	3(16.7)	1(5.6)	0(0.0)	
	정의당	7(8.8)	58(72.5)	12(15.0)	1(1.3)	2(2.5)	
	우리공화당	0(0.0)	1(100.0)	0(0.0)	0(0.0)	0(0.0)	
	국민의당	4(5.8)	47(68.1)	15(21.7)	1(1.4)	2(2.9)	
	민중당	0(0.0)	7(100.0)	0(0.0)	0(0.0)	0(0.0)	
	열린민주당	0(0.0)	10(90.9)	1(9.1)	0(0.0)	0(0.0)	
	한국경제당	1(50.0)	0(0.0)	1(50.0)	0(0.0)	0(0.0)	
	기타	0(0.0)	12(60.0)	3(15.0)	0(0.0)	5(25.0)	
	없음	4(2.9)	99(72.3)	25(18.2)	2(1.5)	7(5.1)	
	잘 모름	1(2.1)	31(64.6)	9(18.8)	1(2.1)	6(12.5)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지지자들이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린 것은 유권자들의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지지정당이나 지지후보, 그리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유권자들은 지지정당의 승리 여부에 따라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았다.

〈표 V-2-9〉 후보자토론회 공정성 평가 분석

변수	모형 1-1	모형 1-2
공정성평가(사전)		0.54** (0.06)
토론시청정도	0.04 (0.03)	0.03 (0.03)
관심시청	-0.14 (0.08)	-0.13 (0.09)
승자지지	0.09 (0.09)	0.15 (0.09)
선거관심도	0.23** (0.08)	0.28** (0.08)
민주당지지	0.30** (0.09)	0.32** (0.10)
미통당지지	-0.06 (0.12)	-0.02 (0.12)
문재인선택	0.32** (0.09)	0.23** (0.09)
이념 ²¹⁾	-0.00 (0.00)	0.00 (0.00)
득표율격차	-0.00 (0.00)	-0.00 (0.00)
재산수준 ²²⁾	0.01 (0.01)	-0.00 (0.01)
교육수준	-0.07 (0.04)	-0.02 (0.05)
남성	0.10 (0.08)	0.01 (0.08)
연령	-0.00 (0.00)	-0.00 (0.00)
N	1,034	987
AIC	1,460	1,333
Pseudo R ²	0.06	0.11

참조: 종속변수는 토론 공정성에 대한 사후 선호(전혀 공정하지 않음=0, 별로 공정하지 않음=1, 대체로 공정한 편임=2, 매우 공정함=3). 표 안의 숫자는 회귀계수,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 오차.

통계적 유의성 ** p < 0.05, * p < 0.10.

21) 이념 설문은 다음과 같다: “정치에서 사람들은 보통 진보와 보수를 구분합니다. 숫자 0부터 10까지 중 선생님의 정치적 이념 성향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0에 가까울수록 진보적, 5는 중도적, 10에 가까울수록 보수적입니다.”

22) 재산 선택항은 “1 = 1억원 미만, ..., 10 = 30억 이상”이다.

〈표 V-2-9〉는 해당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모형 1-1은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사전 평가를 포함하지 않는 반면, 모형 1-2는 사전평가를 독립변수로 포함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후보자토론회 공정성 평가가 토론회 시청에 따라 달리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모형에서 토론시청 정도나 관심 시청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V-2-9〉의 결과는 공정성 평가가 기존 성향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민주당 지지자들일수록 후보자토론 진행의 공정성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다고 답한 사람들일수록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여러 곳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대통령 지지자들이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했을 수 있다. 하지만 〈표 V-2-9〉에서 승자 지지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는다. 즉, 유권자들이 승자를 지지했기 때문에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마도 이 결과는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가 독립적 헌법기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에 의해 관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이한수 2018)에서도 관찰된다. 이한수(2018, 19)는 지난 대통령 후보자토론회를 분석한 연구에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를 행정부의 업무, 더 넓게는 국가의 업무, 그리고 대통령을 행정부의 수장 혹은 국가의 지도자로 인식하는 유권자들이 대통령 지지와 선거관리 평가를 연계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유추한다.

개인 수준의 변인들이 보이는 통계적 유의성과 달리 선거환경 변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선거 경쟁이 더 치열한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를 더 혹은 덜 공정하다고 평가하지도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도 기존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이한수 2018). 이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선거에 대해 관심이 높은 시청자들일수록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3) 후보자토론회의 후보자 검증과 선거정보의 유용성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선택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을 묻는 사전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약 47%가 정책 및 공약을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소속정당,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등의 순서로 선택하였다.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만 보자면 응답자

1,077명 가운데 507명(47.1%)이 '정책 및 공약'을 선택했고, 다음으로 '소속정당'(235명, 21.8%)을 주요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후보자의 능력' 12.0%, '도덕성' 9.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주변의 평가'는 3명만이 응답하였다. 이처럼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를 선택할 때 '정책 및 공약,'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에서 후보자토론회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된다. 후보자토론회는 경쟁하는 후보자들이 같은 자리에서 직접 유권자들에게 공약이나 정책, 능력 및 자질을 비교,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표 V-2-10〉 후보자 선택 시 최우선 고려사항 (사전조사)

(단위: 명(%))

	사전조사 응답자 전체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만
정책 및 공약	888(46.6)	507(47.1)
소속 정당	432(22.7)	235(21.8)
이념	99(5.2)	50(4.6)
도덕성	173(9.1)	104(9.7)
납세/병역/전과	59(3.1)	33(3.1)
후보의 능력	214(11.2)	129(12.0)
후보의 경력	23(1.2)	13(1.2)
주변의 평가	5(0.3)	3(0.3)
모름	11(0.6)	3(0.3)
전체	1,904(100.0)	1,077(100.0)

그러면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들은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가장 잘 검증된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를 위해 사후설문에서 “선생님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다음 중 어느 영역이 가장 잘 검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의 응답을 분석했다. 〈표 V-2-11〉에서 나타나듯이, 응답자들은 후보자토론회에서 ‘후보자의 자질’이 가장 잘 검증되었으며(50.0%), 그 다음으로 ‘후보자의 정책’(27.1%), ‘후보자의 능력’(13.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검증된 영역이 없다’는 응답도 7.1%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들이 후보자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 후보자의 능력, 그리고 도덕성 등을 평가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전히 유권자들이 유권자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및 공약’에 대한 효과적인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표 V-2-11〉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가장 잘 검증된 영역 (사후조사)

	빈도(명)	비율(%)
후보자의 정책	292	27.1
후보자의 자질	539	50.0
후보자의 능력	148	13.7
검증된 영역이 없다	77	7.1
후보자의 인성	3	0.3
모름	18	1.7
전체	1,077	100.0

후보자토론회는 선거나 후보자들에 대해 평소 많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일반 유권자들이 선거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이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선거 경쟁 초반 후보자토론회를 통한 정보 습득은 보다 효과적이다(이재목 2017; Holbrook et al. 2002; Holbrook 1999,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전설문을 통해 유권자들은 후보자토론회가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일 것으로 기대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했다.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응답자들은 사전설문에서는 약 96.6%가 후보자토론회가 선거정보를 얻는 데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즉, 유권자들은 후보자토론회를 선거관련 정보의 획득 경로로서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는 실제로 충족되었을까? 〈표 V-2-12〉는 지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과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에 대해 유권자들이 정보획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평가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표 V-2-12〉 후보자토론회의 선거정보 획득에 대한 유용성 평가 (사전-사후)

(단위: 명(%))

유용성	과거평가 (사전조사)	현재평가 (사후조사)
매우 효과적이다	343 (31.9)	73 (6.8)
어느 정도 효과적이다	697 (64.7)	729 (67.7)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34 (3.2)	247 (22.9)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1 (0.1)	19 (1.8)
모름	2 (0.2)	9 (0.8)
전체 응답자 수	1,077 (100.0)	1,077 (100.0)

이번 선거에서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후보자토론회가 대체로 정보획득에 유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조사의 지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용성 평가에서 약 97%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이번 후보자토론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유용성에 대한 평가가 크게 낮아졌다. 응답자 가운데 약 75%(802명)가 후보자토론회가 선거 쟁점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효과적이라고 응답했지만,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응답도 약 25%(226명)로 나타나 사전조사에 비해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전조사와 비교해 후보자토론회가 선거정보 획득에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응답이 매우 급격하게 감소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 선택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항(정책 및 공약)과 후보자토론회에서 검증된 영역(후보자의 자질) 간 불일치로 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정보를 후보자토론회가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지 못했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권자들이 TV(지상파, 케이블 및 위성방송, 종합편성채널 등 포함)가 아닌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 SNS, 유튜브, 선거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원하는 선거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 V-2-13〉 타정보매체와 비교한 후보자토론회의 상대적 유용성 (사후조사)

	빈도(명)	비율(%)
매우 유익했다	99	9.2
다소 유익했다	697	64.7
별로 유익하지 않았다	244	22.7
전혀 유익하지 않았다	20	1.9
모름	17	1.6
전체	1,077	100.0

다음으로, 후보자토론회가 다른 정보매체들이 제공하는 정보나 기사보다 유익했다고 인식하는지 분석함으로써 후보자토론회의 상대적 유용성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표 V-2-13〉에서는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1,077명 가운데 유익했다는 응답이 796명(73.9%)이었으며 유익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64명(24.5%)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은 정보의 전달자로서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타정보 매체와 비교할 때 후보자토론회가 제공하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후보자토론회는 수요자인 유권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및 공약’과 ‘후보자의 능력’ 등에 부합하는 선거정보를 잘 전달함으로써 후보자를 검증하는 본연의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어떠한 변수들이 유권자들의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용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가? <표 V-2-14>는 앞선 분석 모형에 따라 유용성 평가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를 담고 있다. 모형 2-1과 모형 2-2의 결과에 따르면, 앞선 결과와 달리 후보자토론회 시청과 관심 시청이 유용성 평가 변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토론을 더 많이 시청할수록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정보획득에 유용했다고 답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관심을 가지고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들일수록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선거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모형 4-2의 결과는 사전 평가를 독립변수로 포함한다. 즉,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를 온전하게 시청하면 할수록 유용성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공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보습득 평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정성 평가는 후보자토론회를 더 많이 혹은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지 않더라도 평가할 수 있는 요소일 수 있다. 반면, 후보자토론회를 얼마나 시청하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는가는 정보습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선거에 비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횟수가 적은 것이나,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 차이가 두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용성 평가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선 공정성 평가 분석에서 일관되고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변수는 유권자들의 당파성과 이전 대통령선거에서의 후보자 선택이었다. 이 변수들은 유용성 평가에서도 일관되고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다. <표 V-2-14>의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들일수록, 지난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일수록 이번 후보자토론회가 정보습득에 유용했다고 답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영향력 역시 승자에 대한 지지를 통제된 상태에서 관찰되었다. 즉,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편향된 결과가 나온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결과는 오히려 집권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중립기관이지만)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 것일 수 있다.

〈표 V-2-14〉 후보자토론회 유용성 평가 분석

변수	모형 2-1	모형 2-2
유용성평가(사전)		0.25** (0.07)
토론시청 분량	0.14** (0.03)	0.14** (0.03)
관심시청	0.50** (0.08)	0.53** (0.08)
승자지지	0.04 (0.08)	0.05 (0.08)
선거관심도	-0.00 (0.07)	-0.04 (0.07)
민주당지지	0.30** (0.09)	0.30** (0.09)
미통당지지	0.13 (0.11)	0.14 (0.11)
문재인선택	0.17** (0.08)	0.20** (0.08)
이념	-0.00 (0.00)	-0.00 (0.00)
득표율격차	-0.00 (0.00)	-0.00 (0.00)
재산수준	0.04** (0.01)	0.04** (0.01)
교육수준	-0.09* (0.04)	-0.08* (0.04)
남성	-0.07 (0.07)	-0.10 (0.07)
연령	-0.00 (0.00)	-0.006** (0.003)
N	1,064	1,063
AIC	1,689	1,663
Pseudo R ²	0.08	0.10

참조: 종속변수는 토론 유용성에 대한 사후 선호(전혀 유용하지 않음=0, 별로 유용하지 않음=1, 대체로 유용한 편임=2, 매우 유용함=3). 표 안의 숫자는 회귀계수,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 오차.

통계적 유의성 ** p< 0.05, * p< 0.10.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정치적 특성과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별, 직업, 자산, 지지정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른 매체에 비해 후보자토론회가 제공하는 정보가

유익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직업적으로는 경영/관리직이 토론회가 유용하다고 응답한 반면, 기능/숙련직이 가장 적었다. 7억~10억의 자산 소유층이 후보자토론회를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1억미만 자산소유층에서 긍정적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V-2-15〉 사회·인구학적 정치적 특성과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 평가

(단위: 명(%))

		매우 유익	다소 유익	별로 무익	전혀 무익	모름	검정값
성별	남자	62(11.9)	327(62.8)	120(23.0)	8(1.5)	4(0.8)	13.473*** df=
	여자	37(6.7)	370(66.5)	124(22.3)	12(2.2)	13(2.3)	
직업	자영업	11(14.3)	41(53.2)	23(29.9)	2(2.6)	0(0.0)	113.508*** df=4
	판매/영업	6(10.0)	38(63.3)	15(25.0)	0(0.0)	1(1.7)	
	기능/숙련	1(7.1)	8(57.1)	4(28.6)	1(7.1)	0(0.0)	
	생산/노무	4(18.2)	11(50.0)	7(31.8)	0(0.0)	0(0.0)	
	사무직	38(8.3)	314(68.6)	97(21.2)	6(1.3)	3(0.7)	
	경영/관리	8(12.9)	41(66.1)	9(14.5)	4(6.5)	0(0.0)	
	전문/자유	9(9.2)	57(58.2)	27(27.6)	4(4.1)	1(1.0)	
	가정주부	8(8.0)	65(65.0)	23(23.0)	0(0.0)	4(4.0)	
	학생	9(9.2)	62(63.3)	21(21.4)	2(2.0)	4(4.1)	
	무직	4(8.5)	32(68.1)	9(19.1)	0(0.0)	2(4.3)	
	기타	1(2.5)	28(70.0)	9(22.5)	1(2.5)	1(2.5)	
	잘 모름	0(0.0)	0(0.0)	0(0.0)	0(0.0)	1(100.0)	
	자산	1억 미만	18(6.8)	161(60.8)	72(27.2)	6(2.3)	
1억~2억 미만		16(9.0)	107(60.5)	49(27.7)	3(1.7)	2(1.1)	
2억~3억 미만		11(8.2)	88(65.7)	31(23.1)	1(0.7)	3(2.2)	
3억~5억 미만		14(8.4)	116(69.5)	33(19.8)	3(1.8)	1(0.6)	
5억~7억 미만		17(13.8)	80(65.0)	26(21.1)	0(0.0)	0(0.0)	
7억~10억 미만		11(11.2)	70(71.4)	14(14.3)	2(2.0)	1(1.0)	
10억~15억 미만		4(6.7)	42(70.0)	12(20.0)	2(3.3)	0(0.0)	
15억~20억 미만		3(11.5)	14(53.8)	7(26.9)	0(0.0)	2(7.7)	
20억~30억 미만		2(18.2)	9(81.8)	0(0.0)	0(0.0)	0(0.0)	
30억 이상		3(18.8)	10(62.5)	0(0.0)	3(18.8)	0(0.0)	

		매우 유익	다소 유익	별로 무익	전혀 무익	모름	검정값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54(10.5)	350(68.0)	101(19.6)	4(0.8)	6(1.2)	113.239*** df=2
	미래통합당	18(11.8)	90(58.8)	39(25.5)	5(3.3)	1(0.7)	
	민생당	0(0.0)	3(60.0)	2(40.0)	0(0.0)	0(0.0)	
	미래한국당	2(18.2)	5(45.5)	3(27.3)	1(9.1)	0(0.0)	
	더불어시민당	1(5.6)	11(61.1)	5(27.8)	1(5.6)	0(0.0)	
	정의당	8(10.0)	49(61.3)	19(23.8)	3(3.8)	1(1.3)	
	우리공화당	0(0.0)	1(100.0)	0(0.0)	0(0.0)	0(0.0)	
	국민의당	3(4.3)	47(68.1)	18(26.1)	0(0.0)	1(1.4)	
	민중당	1(14.3)	5(71.4)	1(14.3)	0(0.0)	0(0.0)	
	열린민주당	4(36.4)	5(45.5)	2(18.2)	0(0.0)	0(0.0)	
	한국경제당	2(100.0)	0(0.0)	0(0.0)	0(0.0)	0(0.0)	
	기타	1(5.0)	11(55.0)	5(25.0)	3(15.0)	0(0.0)	
	없음	5(3.6)	87(63.5)	40(29.2)	2(1.5)	3(2.2)	
	잘 모름	0(0.0)	33(68.8)	9(18.8)	1(2.1)	5(10.4)	

4)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

TV를 통해 방송되는 후보자토론회에서 흥미성은 중요하다. 후보자토론회가 흥미롭지 않다면 유권자들은 토론회를 시청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토론회 개최의 이유 자체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즉 흥미성이 담보된 후보자토론회만이 유권자들의 시청을 유인하여 투표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모두에서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에 대해 평가해보고자 한다. 우선 사전 설문조사에서 과거의 국회의원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흥미롭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물었다.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에게 대한 사전설문 조사결과 1,077명의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약간 넘는 585명(54.3%)은 과거 후보자토론회가 흥미롭게 진행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460명(42.7%)은 과거의 후보자토론회가 그다지 흥미롭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사후설문에서는 “선생님께서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흥미롭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보았다. 사후설문에서는 1,077명의 응답자 가운데 655명(60.8%)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406명(37.7%)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토론회가 흥미롭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주지할 점은 <표 V-2-16>에서 알 수 있듯이,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응답자들에서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다소 많아졌고(사전조사 대비 6.8%p 증가), 부정적인 평가는 감소했다는 점이다. 다만 토론회 시청 이후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사전조사 대비 5.0% 감소) 여전히 후보자토론회를 흥미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다(37.7%)는 점을 고려하여, 후보자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에서 흥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진행방식과 형식 등 다양한 제도 변화가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 V-2-16〉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 평가 (사전-사후조사 비교)

(단위: 명(%))

흥미성	과거평가 (사전조사)	현재평가 (사후조사)
매우 흥미롭게 진행되었다	79 (7.3)	57 (5.3)
어느 정도 흥미롭게 진행되었다	506 (47.0)	598 (55.5)
별로 흥미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420 (39.0)	366 (34.0)
전혀 흥미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40 (3.7)	40 (3.7)
토론회를 본 적 없음	22 (2.0)	
모름	10 (0.9)	16 (1.5)
합계	1,077 (100)	1,077 (100)

다음으로 유권자의 사회·인구학적 정치적 특성과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에 대한 인식 간 관계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수행했다. 통계분석결과 유의수준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 직업, 지지정당이라는 세 가지 변수만이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여성보다는 남성이 후보자토론회가 더 흥미롭게 진행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직업적으로는 판매/영업직이 후보자토론회가 흥미롭게 진행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전문/자유직이 후보자토론회가 흥미롭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지지정당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후보자토론회가 흥미롭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후보자토론회가 흥미롭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민의당 지지자의 경우 지역구 의원을 출마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토론회 초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후보자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흥미롭지 않게 생각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V-2-17〉 사회·인구학적/정치적 특성과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 평가

(단위: 명(%))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	검정값
성별	남자	33(6.3)	292(56.0)	170(32.6)	23(4.4)	3(0.6)	9.619** df 4
	여자	24(4.3)	306(55.0)	196(35.3)	17(3.1)	13(2.3)	
직업	자영업	6(7.8)	39(50.6)	28(36.4)	4(5.2)	0(0.0)	98.784*** df 44
	판매/영업	6(10.0)	33(55.0)	17(28.3)	4(6.7)	0(0.0)	
	기능/숙련	1(7.1)	7(50.0)	5(35.7)	0(0.0)	1(7.1)	
	생산/노무	1(4.5)	11(50.0)	10(45.5)	0(0.0)	0(0.0)	
	사무직	17(3.7)	264(57.6)	157(34.3)	16(3.5)	4(0.9)	
	경영/관리	3(4.8)	37(59.7)	19(30.6)	3(4.8)	0(0.0)	
	전문/자유	3(3.1)	53(54.1)	36(36.7)	5(5.1)	1(1.0)	
	가정주부	6(6.0)	52(52.0)	37(37.0)	2(2.0)	3(3.0)	
	학생	8(8.2)	53(54.1)	31(31.6)	3(3.1)	3(3.1)	
	무직	4(8.5)	27(57.4)	13(27.7)	1(2.1)	2(4.3)	
	기타	2(5.0)	22(55.0)	13(32.5)	2(5.0)	1(2.5)	
	잘 모름	0(0.0)	0(0.0)	0(0.0)	0(0.0)	1(100.0)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35(6.8)	306(59.4)	160(31.1)	8(1.6)	6(1.2)	86.119*** df 52
	미래통합당	12(7.8)	84(54.9)	51(33.3)	5(3.3)	1(0.7)	
	민생당	0(0.0)	4(80.0)	1(20.0)	0(0.0)	0(0.0)	
	미래한국당	0(0.0)	3(27.3)	7(63.6)	1(9.1)	0(0.0)	
	더불어시민당	2(11.1)	11(61.1)	4(22.2)	1(5.6)	0(0.0)	
	정의당	4(5.0)	39(48.8)	30(37.5)	7(8.8)	0(0.0)	
	우리공화당	0(0.0)	1(100.0)	0(0.0)	0(0.0)	0(0.0)	
	국민의당	2(2.9)	34(49.3)	29(42.0)	3(4.3)	1(1.4)	
	민중당	0(0.0)	5(71.4)	2(28.6)	0(0.0)	0(0.0)	
	열린민주당	1(9.1)	7(63.6)	3(27.3)	0(0.0)	0(0.0)	
	한국경제당	0(0.0)	2(100.0)	0(0.0)	0(0.0)	0(0.0)	
	기타	0(0.0)	6(30.0)	12(60.0)	1(5.0)	1(5.0)	
	없음	1(0.7)	68(49.6)	52(38.0)	13(9.5)	3(2.2)	
	잘 모름	0(0.0)	28(58.3)	15(31.3)	1(2.1)	4(8.3)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후보자토론회를 흥미롭다고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V-2-18〉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를 더 온전하게 시청한 유권자들일수록 토론회가 흥미 있었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후보자토론회를 관심 있게 시청했다고 답한 유권자들

일수록 토론회가 흥미롭게 진행되었다고 답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은 앞선 유용성 평가와 유사하다.

〈표 V-2-18〉 후보자토론회 흥미성 평가 분석

변수	모형 3-1	모형 3-2
흥미성평가(사전)		0.59** (0.05)
토론시청	0.05* (0.03)	0.05* (0.03)
관심시청	0.38** (0.07)	0.34** (0.08)
승자지지	0.13* (0.08)	0.17** (0.08)
선거관심도	0.08 (0.07)	0.06 (0.07)
민주당지지	0.30** (0.08)	0.25** (0.09)
미통당지지	0.28** (0.11)	0.30** (0.11)
문재인선택	0.10 (0.08)	0.09 (0.08)
이념	0.00 (0.00)	0.00 (0.00)
득표율격차	-0.01** (0.00)	-0.01** (0.00)
재산수준	0.02 (0.01)	0.00 (0.01)
교육수준	-0.09** (0.04)	-0.06 (0.04)
남성	-0.00 (0.07)	-0.07 (0.07)
연령	-0.00 (0.00)	-0.00 (0.00)
N	1,057	1,026
AIC	1,965	1,802
Pseudo R ²	0.05	0.11

참조: 종속변수는 토론 흥미성에 대한 사후 선호(전혀 흥미롭지 않음=0, 별로 흥미롭지 않음=1, 대체로 흥미로운 편임=2, 매우 흥미로움=3). 표 안의 숫자는 회귀계수,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 오차.
통계적 유의성 ** p< 0.05, * p< 0.10.

후보자토론이 일종의 경쟁이라면, 선거 경쟁이 치열한 선거구 유권자들일수록 토론이 흥미롭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 표의 결과에 따르면, 승자와 차순위자의 득표율 격차가 크면 클수록 유권자들은 후보자토론이 흥미롭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후보자토론회 시간에 대한 선호 분석 결과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선 결과에서 경쟁이 치열할수록 유권자들은 후보자토론회 시간이 길다고 답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이전 결과에서 흥미성에 대한 평가는 후보자토론회 시간 선호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와 유사하게 승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후보자토론회가 흥미롭게 진행되었다고 답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표 V-2-17>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유추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 당선자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일수록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관찰된다. 이 표의 결과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는 사실은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를 일종의 게임 혹은 경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가 게임이라면, 시청자들은 경쟁이 치열할수록, 승자를 지지할수록 토론회가 흥미롭게 느껴질 것이다.

개인 요인과 관련하여 눈길을 끄는 변수는 정당 지지이다. 위의 교차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앞의 공정성과 유용성 평가에서와는 달리 민주당 지지자들과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모두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에 대해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후보자토론회가 두 주요 정당 후보들 간의 경쟁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 역시 앞서 언급하였듯이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는 유권자들이 토론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4) 소결

본 장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와 함께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 흥미성, 그리고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이 보고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 공정성, 유용성, 그리고 흥미성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은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 모두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유권자들은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높

을수록 투표 참여율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욱이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에 긍정평가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이번 후보자토론회가 상당히 공정하게 진행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5%의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유권자들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 선택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정책 및 공약'이었던 데 반해 실제로 후보자토론회에서는 자질은 잘 검증되었지만 정책은 잘 검증되었다고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들이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후보자의 자질(특히 도덕성)에 대한 검증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로 인해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상당수 유권자들은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이후 오히려 후보자토론회가 선거쟁점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부정 평가로 상당 부분 선회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다른 정보매체와 비교해 후보자토론회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유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토론회의 상대적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의 개인 신상 및 자질 도덕성과 같은 논의 보다는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검증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넷째,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토론회 시청 후에 다소 상승했다. 후보자토론회가 흥미롭게 진행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흥미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흥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 가지 고무적인 현상은 후보자토론회를 좀 더 온전하게 시청한 유권자들과 관심을 가지고 시청한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과 흥미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즉,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후보자토론의 유용성과 흥미성 평가에 유의미하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후보자토론회가 선거과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는 낮은 시청률을 보이며 많은 유권자들에게 노출되지 못하고 있다. 후보자토론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고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얻는 정보를 신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 유용성, 흥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13일간 공식적인 국회의원선거운동이 펼쳐진다. 이 기간 동안 유권자들의 시선과 관심은 후보자들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쏠리게 된다. 그 중에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개최되어 유권자에게 선거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선거운동 매체라 할 수 있다. 후보자토론회에서 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은 한 자리에 모여 각각의 정책공약과 이슈입장, 그리고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 각종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다. 선거기간 동안 다양하고 복잡한, 때로는 산만한 정보들이 쏟아지는 환경 속에서,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견, 정책, 자질을 한자리에서 비교, 평가하여 후보자 선택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후보자토론회는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을 주는 유용한 정보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디어의 선거에 미치는 효과는 설득과 강화로 대별될 수 있다(Ansolabehere, Behr, and Iyengar 1991). 유권자들이 미디어를 통해 선거정보에 노출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방식은 지지 후보를 변경하는 것(설득효과)과 오히려 지지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것(강화효과)이다. 한국 선거에서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도 설득효과와 강화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부분 강화효과가 지배적이라는데 결론이 일치한다(나은영 2002, 양승찬 1999, 이준웅 1999, 정성호 2006).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단순히 설득효과와 강화효과의 차원을 넘어서 후보자토론회가 다른 정보매체와 비교하여 선거정보 전달의 영향력이 더 우월하고, 후보자의 자질, 공약, 국정수행 능력을 비교하는데 아주 유용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한정택 외 2013).

이 절에서는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선거구 중 12개 선거구에서 개최된 후보자토론회를 대상으로 후보자토론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후보자토론회의 다양한 정치적 효과를 다루기 위해서 이 연구는 크게 4가지 측면에 주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심리·인지적 효과에서는 후보자토론과 선거관심, 유권자의 공약인지도, 정책인지 및 정책정보 습득, 후보자의 자질 인지, 정치적 효능감에 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태도 효과의 분석에서는 후보자토론이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참여 효과에서는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유권자의 투표참여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빈도의 양상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선택 효과의 분석에서는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유권자의 후보지지, 후보선택의 영향력, 후보의 지지 정도를 살펴본다.

1) 심리·인지적 효과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어떠했는지 살펴보자. <표 V-3-1>은 후보자토론회 시청자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선거관심에 관한 빈도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V-3-1>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 (사전-사후조사 비교)

(단위: 명 (%))

	사전조사	사후조사
매우 많다	343(31.9)	623(57.9)
어느 정도 있다	697(64.7)	424(39.4)
별로 없다	34(3.2)	25(2.3)
전혀 없다	1(0.1)	3(0.3)
모름	2(0.2)	2(0.2)
합계	1,077(100)	1,077(100)

사전조사, 사후조사 모두 응답자들의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매우 많다”와 “어느 정도 있다”를 합쳐서 각각 96.6%, 97.2%). 그러나 “매우 많다”라는 응답만 따로 떼어 놓고 본다면,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사후조사에서 비율이 사전조사보다 거의 26%p가 높은 57.9%이다. 이런 점에서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유권자들의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아졌을까? <표 V-3-2>는 이런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준다. 빈도분석 결과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응답자들 중 선거관심도가 긍정적으로 높아졌다는 비율이 거의 70%에 이르렀다(67.9%). 긍정적 응답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매우 높아졌다”비율이 13.5%, “조금 높아졌다”는 비율이 54.4%이다. 반면 부정적 응답, 즉 “조금 낮아졌다,” “매우 낮아졌다”의 합계는 1%밖에 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우리는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들에게 전반적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을 더욱 제고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긍정적인 선거관심도의 변화를 지난 2017년 대선, 2018년 지선(서울시장선거, 경기도지사선거)과 비교해보면,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17년 대선(약 75%)때보다는 7%p 정도 낮았지만 2018년 지선에서 서울시장선거(약 65%)보다는 3%p, 경기도지사선거(약 63%)보다는 5%p 높은 수치이다.²³⁾

〈표 V-3-2〉 후보자토론회 시청을 통한 선거관심도 제고 (사후조사)

(단위: 명 (%))

선거관심도 제고	
매우 높아졌다	145(13.5)
조금 높아졌다	586(54.4)
변화가 없다	335(31.1)
조금 낮아졌다	9(0.8)
매우 낮아졌다	2(0.2)
합계	1,077(100)

※ 문항: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을 통해 선생님이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정책공약 인지와 관련하여 후보자토론회 시청자 집단과 미시청자 집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표 V-3-3〉은 후보자토론회 시청자와 미시청자 간 후보들의 정책공약의 인지여부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교차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청자 집단이 미시청자 집단보다 후보의 정책공약을 더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집단의 긍정적 응답(“잘 알고 있다” + “조금 알고 있다”)의 비율의 차는 약 13%가 낮으며 시청자 집단에서 긍정적 대담이 94.6%에 달한다. 특히 공약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에서 시청자 집단은 미시청자 집단을 압도하는데 그 차는 약 12%이다(19.7% - 8.1%). 반대로 모르는 응답(“잘 모른다” + “전혀 모른다”)은 미시청자 집단이 18%, 시청자 집단이 5.5%로 미시청자 집단이 12.5%가 높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이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다.

상대적으로 공약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정치관여도가 높은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를 더 많이 시청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표 V-3-3〉의 공약인지에 대한 토론회 시청자와 미시청자 간 상당한 차이는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유권자의 공약인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긍정적 공약인지와 관련하여 지난 선거와 비교해보면 2018년 지선 때 서울시장선거 90%, 경기도지사선거 91%보다 각각 5%p, 4%p 더 높은 수치이며, 2017년 대선(89%)과 비교해서는 6%p 더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유권자들은 지난 선거 때보다 공약을 더 잘 인지하고 있다고 평가내릴 수 있다.

23)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여론조사 결과를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경기도) 후보자토론회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사용한 2017년 대선, 2018년 지선(서울시, 경기도)의 자료는 2017년 이소영 외(한국정치학회), 2018년 이소영 외(한국정치학회) 자료임을 밝힌다.

〈표 V-3-3〉 후보자토론회 시청과 공약인지의 관계 (사후조사)

(단위: 명 (%))

	잘 안다	조금 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합계
시청자	212(19.7)	806(74.9)	54(5)	5(0.5)	1,077(100)
미시청자	38(8.1)	346(73.6)	76(16)	10(2)	470(100)
합계	250(16.2)	1,152(74.5)	130(8.4)	15(1)	1,547(100)
카이제곱 검정	$\chi^2 = 85.1070, p = 0.000$				

※ 문항: “선생님께서 이번 국회의원선거 주요 후보들의 정책공약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다음으로 후보자토론회와 정책인지 및 정책정보 습득의 관계를 살펴본다. 먼저 정책 인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유권자들이 새로운 이슈를 알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표 V-3-4〉 후보자토론회를 통한 새로운 이슈 인지여부 (사후조사)

(단위: 명 (%))

새로운 이슈 인지여부	
매우 많았다	96(8.9)
조금 있었다	674(62.6)
별로 없었다	297(27.6)
전혀 없었다	10(0.9)
합계	1,077(100)

※ 문항: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정책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이슈가 있었습니까?”

〈표 V-3-4〉는 후보자토론회를 통한 새로운 이슈 인지여부를 보여주는 빈도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후보자토론 시청자의 약 72%는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이슈가 있었다고 대답했고, 그 중 약 9%는 “매우 많았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전혀 없었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불과 1%에 지나지 않았다(0.9%). 이상의 결과를 통해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가 새로운 이슈를 인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2017년 대선과 비교해 보면 약 3%p 차이로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낮다. 아무래도 대선의 경우 국가적으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선거이므로 토론회에서 드러난 대선 후보들의 새로운 이슈들을 유권자들은 더 잘 인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선거정보 습득과 관련하여 이번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들이 선거의 쟁점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었을까? 〈표 V-3-5〉는 이런 물음에 대답을 제공해준다.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응답자들 중 대략 75%는 선거쟁점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후보자토론이 효과적이었다고 대답하였다. “매우 효과적이었다”라고 대답한 비율도 거의

7%에 달하였다. 선거정보를 습득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다”와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다”를 합쳐 24.7%에 불과하였고, 그 중 후자의 대답은 1.8%였다. 이는 83%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2017년 대선의 후보자토론회 효과(이소영 외 2017)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2018년 3차례 진행된 서울시장선거 후보자토론회와 경기도지사 후보자토론회의 선거정보 습득 효과에 대해 평가한 수준보다는 각각 4%p, 18%p 높은 수준으로서(이소영 외 2018),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선거의 쟁점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후보자토론회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3-5〉 후보자토론회의 선거정보 습득에 대한 효과 (사후조사)

(단위: 명 (%))

선거쟁점 정보 습득	
매우 효과적임	73(6.8)
어느 정도 효과적임	729(67.7)
별로 효과적이지 않음	247(22.9)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19(1.8)
모름	9(0.8)
합계	1,077(100)

※ 문항: “선생님께서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이번 선거의 쟁점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의 자질을 인지하는데 후보자토론회는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 구체적으로 후보자의 자질, 정책공약, 정책수행 능력을 비교하는데 후보자토론회가 얼마나 유용한지 살펴보자. 〈표 V-3-6〉은 후보자의 자질적 특성들을 비교하는데 후보자토론회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보고하고 있다.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후보 간 자질, 정책공약, 정책수행 능력을 비교하는데 후보자토론회가 대체로 유용하다(“매우 도움이 되었다”+“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유용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자질 83.1%, 정책공약 82.9%, 정책수행 능력 77.5%로, 후보 간 자질 비교에 유용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유용하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별로 도움되지 않았다”)은 모두 낮았으며, 자질 비교가 1.9%로 가장 낮았고, 정책수행 능력 비교가 4.2%로 가장 높았다.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에게 후보의 전반적인 자질의 특성들을 비교하는데 유용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를 지난 2018년 지방선거, 2017년 대통령선거와 비교해보면, 후보자의 자질 비교는 서울시장선거 후보자토론회 74%, 경기도지사선거 후보자토론회 69%,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80%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 정책공약 비교에서는 서울시장선거의 경우 71%, 경기도지사선거의 경우 59%, 대통령선거의 경우 68%로 역시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효과가 더 크다. 마지막으로 정책수행능력 비교에도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효과가 다른 선거 때보다 더 컸다(서울시장선거 67%, 경기도지사선거 57%, 대통령선거 65%). 요컨대,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의 자질을 인식하는데 있어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는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보다 더 효과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3-6〉 후보자토론회와 후보의 전반적 자질 특성의 관계 (사후조사)

(단위: 명 (%))

	자질	정책공약	정책수행 능력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0.1)	5(0.5)	4(0.4)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	19(1.8)	31(2.9)	41(3.8)
그저 그렇다	160(14.9)	148(13.7)	196(18.2)
약간 도움이 되었다	642(59.6)	655(60.9)	597(55.4)
매우 도움이 되었다	253(23.5)	237(22)	238(22.1)
모름/무응답	2(0.2)	1(0.1)	1(0.1)
합계	1,077(100)	1,077(100)	1,077(100)

※ 문항: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선생님께서 후보자의 자질(정책공약, 정책수행 능력)을 비교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다음으로, 후보자토론회 시청 유무가 유권자의 정치효능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차례이다. 〈표 V-3-7〉은 후보자토론회 시청자와 미시청자의 정치효능감에 대한 t검정 결과이다. t검정 결과에 따르면 시청자 집단과 미시청자 집단의 정치효능감에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결과는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였다고 하여 정치효능감이 자동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며, 정치효능감은 다른 개인적, 정치적 수준의 변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정치효능감에 대한 조사 결과(평균 4.73)를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와 비교하면 대선의 경우 평균 4.69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토론회와 국회의원선거 토론회 모두 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에게 정치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3-7〉 후보자토론회 시청 유무와 정치효능감의 관계 (t검정)

	N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시청자	1,075	4.73	0.64	1.3596	0.1742
미시청자	468	4.69	0.67		

※ 정치효능감(5점 척도): 1=“어떤 후보에게 투표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
5=“어떤 후보에 투표하는가는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후보자토론회의 심리·인지적 효과에서 대표적으로 후보자토론회 시청을 통한 선거관심도 증가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표 V-3-8〉 후보자토론회 시청자의 선거관심도 제고 요인 (순서로짓회귀분석)

	회귀계수	표준오차
선거관심	0.40**	0.14
토론회 관심	0.46**	0.15
후보 자질 비교	0.38**	0.15
후보 정책공약 비교	0.04	0.14
후보 정책수행 능력 비교	0.31**	0.12
공약 인지	0.41**	0.15
새로운 이슈 인지	1.03***	0.13
선거쟁점 정보 습득 효과성	1.27***	0.15
정치효능감	-0.05	0.13
누가 권력을 잡는가	-0.04	0.11
민주당지지	-0.21	0.15
통합당지지	-0.19	0.23
여자	0.20	0.14
연령	0.17*	0.06
학력	-0.17*	0.09
소득	-0.05	0.03
이념	-0.02	0.04
cut-point 1	3.56	1.37
cut-point 2	5.92	1.01
cut-point 3	11.12	1.01
cut-point 4	14.81	1.06
N		1051
Pseudo R ²		0.2439
Log likelihood		-803.25603

***p<0.001, **p<0.01, *p<0.05

우리의 관심은 후보자토론회 관련 변수들이 유권자의 선거관심도 제고에 작용을 하는지의 여부이다. 이를 위해 5점 서열척도로 측정된 선거관심도 증가를 종속변수²⁴⁾로 하고 후보자토론회 관련 변수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변수들을 포함시킨 순서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V-3-8>은 순서로짓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는 일군의 후보자토론회 관련 요인들과 유권자의 선거관심도 간에 양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후보자토론회와 관련이 있는 변수들의 선거관심도 제고에 대한 영향력은 기대하는 방향대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후보자토론회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토론회가 후보자 자질, 정책수행 능력 비교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수록 선거관심도는 높아졌다.

또 토론회를 통해 공약을 인지하고 새로운 이슈를 인지하고 선거정보를 습득할수록 역시 선거관심도는 높아지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자체에 대한 관심과 후보자토론회 시청을 통한 선거관심도 제고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한편 통제변수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후보자토론회 시청을 통한 선거관심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 회귀분석 결과는 선거관심도 제고에 있어 후보자토론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변수코딩

- 선거관심(4점척도): 1=관심이 전혀 없었다 ~ 4=관심이 매우 많았다
- 토론회 관심(4점척도): 1=특별한 관심이 없이 지나치며 보았다 ~ 4=많은 관심을 갖고 보았다
- 후보 자질, 정책공약, 정책수행 능력 비교(5점척도): 1=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5=매우 도움이 되었다
- 공약 인지(4점척도): 1=전혀 모른다 ~ 4=잘 알고 있다
- 새로운 이슈 인지(4점척도): 1=전혀 없었다 ~ 4=매우 많았다
- 선거쟁점 정보 습득 효과성(4점척도): 1=전혀 효과적이지 않았다 ~ 4=매우 효과적이었다
- 정치효능감(5점척도): 1=어떤 후보에게 투표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 5=어떤 후보에 투표하는가는 중요하다
- 누가 권력을 잡는가(5점척도): 1=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차이가 없다 ~ 5=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 민주당지지: 1=민주당지지, 0=그 외 정당지지
- 통합당지지: 1=통합당지지, 0=그 외 정당지지
- 여자: 1=여자, 0=남자
- 연령: 1=만 18-29세, 2=30대, 3=40대, 4=50대, 5=60대 이상
- 학력: 1=초등학교 졸업 ~ 7=대학원 이상
- 소득: 1=150만원 이하 ~ 9=1,000만원 이상
- 이념: 0=진보 ~ 10=보수

24) 후보자토론회 시청을 통한 선거관심도는 다음과 같이 코딩되었다: 1=매우 낮아졌다, 2=조금 낮아졌다, 3=변화가 없었다, 4=조금 높아졌다, 5=매우 높아졌다

2) 태도 효과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의 이미지 형성에 도움을 준다. 후보자의 외모, 말투, 몸짓, 인격 등이 TV를 통해 여과 없이 제공되면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각인시킨다. 방송매체를 통한 선거정보의 획득은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태도형성을 용이하게 작용한다. 후보자토론회의 태도 효과 분석은 민주당, 통합당 후보자들의 호감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후보자토론회 시청자 집단과 미시청자 집단 사이에 주요 정당 후보자들에 대한 호감도의 형성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주요 정당 후보자들의 호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토론회의 요인들은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한다.

먼저, t검정을 통해 후보자토론회 시청자 집단과 미시청자 집단간 주요 정당 후보들의 호감도 차이를 조사해보자. <표 V-3-9>는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들에 대한 시청자 집단과 미시청자 집단의 호감도 차이를 나타내는 t검정 결과이다. 분석결과,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집단과 시청하지 않은 집단 사이에 민주당, 통합당 후보들의 호감도 점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V-3-9> 후보자토론회 시청과 주요 정당 호감도 형성 관계 (t검정)

		N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민주당	시청자	1,062	6.25	2.51	0.6090	0.5426
	미시청자	451	6.16	2.31		
통합당	시청자	1,060	4.10	2.89	0.3453	0.7299
	미시청자	457	4.05	2.64		

※ 주요 정당 후보 호감도(11점 척도): 0="매우 싫어한다" ~ 10="매우 좋아한다"

이제 후보자토론회와 관련된 변수들이 정당 후보자의 호감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자. 앞의 심리·인지적 효과 분석에서는 후보자토론회의 변수들이 유권자의 선거관심도에 정의 방향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태도 효과 분석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표 V-3-10>은 민주당, 통합당 후보들의 호감도 형성에 후보자토론회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가 연속형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OLS회귀분석이 시행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후보자토론회 변수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민주당 후보 호감도에서는 토론회 관심 변수, 토론회 시청을 통한 선거관심도 변수, 새로운 이슈 인지 변수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적을수록, 토론회 시청을 통한 선거관심도가 높을수록,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에 새로운 이슈가 인지될수록 민주당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통합당 후보 호감도에서는 토론회에서 얻은 선거쟁점에 관한 정보가

효과적일수록 통합당 후보에 대한 호감도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표 V-3-10〉 후보자토론회의 변수가 주요 정당 후보의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력 (OLS회귀분석)

	민주당 후보		통합당 후보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사전) 민주당 후보 호감도	0.62***	0.03	-0.09**	0.03
(사전) 통합당 후보 호감도	-0.07**	0.02	0.64***	0.02
선거관심	0.03	0.12	-0.27*	0.13
토론회 관심	-0.23*	0.11	-0.10	0.12
공약 인지	-0.03	0.13	0.05	0.13
새로운 이슈 인지	0.23*	0.11	0.17	0.11
선거쟁점 정보 습득 효과성	-0.05	0.11	0.27*	0.12
토론회 시청을 통한 선거관심도	0.28**	0.10	0.07	0.11
정치효능감	0.05	0.10	0.12	0.10
누가 권력을 잡는가	0.11	0.09	-0.03	0.09
민주당지지	0.55***	0.13	-0.51**	0.14
통합당지지	-0.19	0.20	0.87**	0.21
문재인 투표	0.34**	0.13	0.13	0.14
홍준표 투표	-0.27	0.25	0.07	0.27
여자	-0.11	0.11	0.004	0.12
연령	0.03	0.05	0.03	0.05
학력	-0.04	0.07	-0.07	0.07
소득	-0.03	0.03	-0.01	0.03
이념	-0.02	0.03	0.11***	0.03
상수	1.29	0.75	0.95	0.80
N	957		954	
Adjusted R ²	0.5828		0.6462	

***p<0.001, **p<0.01, *p<0.05

※ 문재인 투표: 1=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후보에 투표, 0=그 외 후보에 투표

홍준표 투표: 1=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때 홍준표 후보에 투표, 0=그 외 후보에 투표

각 정당 후보들에 대한 호감도에 일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사전조사의 주요 정당 후보들에 대한 호감도였다. 사전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높을수록 토론회 시청 후에도 유권자의 민주당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상승하였고, 통합당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하락하였다. 반면 사전조사에서 통합당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높을수록 토론회 시청 후에도 응답자의 통합당 후보에 대한 호감도도 증가하였고, 민주당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감소하였다.

기타 정치 및 선거관련 변수로 민주당 지지자일수록 민주당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상승한 반면 통합당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하락하였다. 한편 통합당 지지자들은 통합당 후보의 호감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였지만 민주당 후보의 호감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투표자일수록 민주당 후보에 대한 호감도도 증가하였다. 선거관심 변수는 통합당 후보의 호감도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의 영향을 미쳤다. 통제변수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결과는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유권자일수록 통합당 후보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3) 참여 효과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 간 주요 쟁점을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비판적 인식을 자극한다. 또한 TV라는 영상매체를 통해 중계되는 토론회에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어 정치적 정보 수용과 학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방송매체를 통한 후보자토론회에 노출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면 정치적 대상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형성하고 정치적 동기부여가 이루어진 유권자들에 의해 정치적 대화와 투표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경험적 연구에서도 이런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문성철·양문희 2009; 양승찬 1999; 이재묵 2017; 한국정치학회 2017, 2018; Lee and Lee 2017; McKinney and Chattopadhyay, 2007; McKinney and Rill 2009). 그렇다면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이를 위해 우리는 후보자토론회 시청후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여부 및 투표참여의 빈도분석, 그리고 후보자토론회 관련 요인과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빈도의 관계 및 후보자토론회 관련 요인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의 관계 분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표 V-3-11〉은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유권자와 주변 사람들과의 선거관련 대화의 빈도를 보고하고 있다. 빈도분석 결과는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토론회 시청자의 약 64%는 어떤 형태로든 주변 사람들과 정치적 대화를 나누었다고 대답하였다. 특히 “매우 많이 했다”는 응답은 12% 가까이 된다. 반면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8%에 불과하였다. 이 결과를 지난 선거와 비교해보면, 2017년 대통령선거의 경우 주변 사람들과 정치적 대화빈도의 긍정적 비율이 무려 86%에 이르며, 2018년 서울시장선거에서는 75%, 경기도지사선거에서는 77%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지난 선거와 비교했을 때,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의 정치적 대화빈도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겠다.

〈표 V-3-11〉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 정치적 대화빈도 (사후조사)

(단위: 명 (%))

주변 사람들과 정치적 대화빈도	
매우 많이 했다	126(11.7)
조금 했다	568(52.7)
별로 하지 않았다	295(27.4)
전혀 하지 않았다	88(8.2)
합계	1,077(100)

※ 문항: “선생님께서서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 이번 선거와 후보자토론에 대한 대화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편 과거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투표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보여주는 빈도분석이 〈표 V-3-12〉에 보고되고 있다. 긍정적인 영향의 빈도(“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가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다. 이 중 투표의사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비율은 12%에 이르고 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비율은 1%대에 남아 있다.

〈표 V-3-12〉 과거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투표참여 의사에 미친 영향 (사전조사)

(단위: 명 (%))

투표참여 의사에 영향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	218(12.1)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1,211(67)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20(17.7)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2(1.2)
당시에는 투표권이 없었기에 영향을 미쳤는지 말할 수 없다	26(1.4)
모름	11(0.6)
합계	1,808(100)

※ 문항: “선생님께서서는 지금까지(또는 과거에)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선생님의 투표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후보자토론회 시청자 집단과 미시청자 집단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실제 투표참여의 관계를 분석해 보자. 〈표 V-3-13〉은 카이제곱 검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V-3-13〉 후보자토론회 시청과 실제 투표참여의 관계 (사후조사)

(단위: 명 (%))

	투표	기권	합계
시청자	1,055(98)	22(2)	1,077(100)
미시청자	439(93.4)	31(6.6)	470(100)
합계	1,494(96.6)	53(3.4)	
카이제곱 검정	$\chi^2 = 20.5012, p = 0.000$		

※ 문항: “선생님께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하셨습니다니까?”

이 결과에 따르면 시청자 집단에서 투표를 한 비율은 98%이고, 기권을 한 비율은 2%에 불과하였다. 사실상 시청자 집단은 거의 대부분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투표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시청자 집단에서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한 비율은 93.4%, 그리고 기권을 한 비율은 6.6%로 나타났다. 두 집단 사이에 투표참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후보자토론회를 볼수록 투표참여를 더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미시청자들에 비해 정치관여도가 높은 유권자들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정치적 대화빈도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에 대한 후보자토론회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을 조사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종속변수로 활용되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빈도는 4점 서열척도²⁵⁾로 측정되어져 있어 순서로짓회귀분석이 시행되었다. 〈표 V-3-14〉는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빈도의 순서로짓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대한 바대로 후보자토론회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이 도드라졌다. 토론회의 관심, 공약인지, 새로운 이슈의 인지, 토론회의 선거쟁점 정보 습득의 효과성, 토론회 시청을 통한 선거관심도는 토론회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 대화빈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관계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토론회를 관심 있게 지켜볼수록, 토론회 시청 후 후보자의 공약을 인지할수록, 토론회에서 새롭게 드러난 이슈를 인지할수록, 토론회에서 선거관련 정보획득이 효과적일수록, 토론회 시청을 통한 선거관심도가 높을수록 유권자는 주위 사람들과 자주 정치적 대화를 갖는 경향이 있다.

정치관련 변수의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민주당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클수록 오히려 주위 사람들과 대화는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한편 통제변수의 영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자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보수적인 후보자토론회 시청자일수록 주위 사람들과 대화의 빈도가 높았다.

25)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의 정치적 대화빈도는 다음과 같이 코딩되었다: 1=전혀 하지 않았다 ~ 4=매우 많이 했다

〈표 V-3-14〉 후보자토론회의 변수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빈도에 미치는 영향력 (순서로짓회귀분석)

	회귀계수	표준오차
선거관심	0.14	0.13
토론회 관심	0.54***	0.14
후보 자질 비교	0.22	0.13
후보 정책공약 비교	-0.17	0.13
후보 정책수행 능력 비교	-0.01	0.11
공약 인지	0.24†	0.14
새로운 이슈 인지	0.29**	0.12
선거쟁점 정보 습득 효과성	0.60***	0.14
토론회 시청을 통한 선거관심도 증가	0.52***	0.12
정치효능감	-0.02	0.11
누가 권력을 잡는가	-0.07	0.10
민주당 호감도	0.04	0.03
통합당 호감도	0.02	0.03
민주당 후보 호감도	-0.07*	0.04
통합당 후보 호감도	0.01	0.03
여자	0.28*	0.13
연령	-0.05	0.05
학력	-0.15†	0.08
소득	0.07*	0.03
이념	0.07*	0.04
cut-point 1	4.17	0.87
cut-point 2	6.37	0.88
cut-point 3	9.47	0.91
N	1,025	
Pseudo R ²	0.1051	
Log likelihood	-1045.7842	

***p<0.001, **p<0.01, *p<0.05, †p<0.10

〈표 V-3-15〉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친 후보자토론회 변수들, 정치변수들 및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을 조사한 로짓회귀분석 결과이다. 종속변수가 투표여부의 가변수(1=투표참여, 2=투표불참)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로짓회귀분석이 시행되었다. 로짓회귀분석 결과 후보자토론회 관련 변수들의 제한적 영향력이 발견되었다. 후보자토론회에서 후보간 자질을 비교하는데 도움을 받은 유권자일수록, 그리고 토론회 시청 후 후보들의 공약을 잘 인지한 유권자일수록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적 변수들의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투표참여 모델에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한 변수는 투표의향이였다.²⁶⁾ 사전조사에서 투표를 할 것이라고 응답한 유권자일수록 실제로 투표를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통제변수와 관련해서는 남자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투표를 실제로 하는 경향이 많았다.

〈표 V-3-15〉 후보자토론회 변수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력 (로지회귀분석)

	회귀계수	표준오차
투표의향	2.24**	0.53
과거 토론회 시청의 투표참여 의사 영향	0.19	0.51
선거관심	-0.17	0.62
토론회 관심	0.40	0.64
후보 자질 비교	1.23†	0.67
후보 정책공약 비교	-0.02	0.64
후보 정책수행 능력 비교	-0.42	0.58
공약 인지	1.64*	0.74
새로운 이슈 인지	1.01	0.72
선거쟁점 정보 습득 효과성	-0.28	0.64
토론회 시청을 통한 선거관심도 증가	0.13	0.60
정치효능감	-0.32	0.51
누가 권력을 잡는가	0.56	0.48
민주당 호감도	-0.16	0.14
통합당 호감도	-0.07	0.18
민주당 후보 호감도	0.23	0.17
통합당 후보 호감도	0.29	0.19
여자	-1.55*	0.73
연령	-0.37	0.28
학력	0.74*	0.33
소득	0.09	0.16
이념	-0.26	0.23
상수	-18.49***	4.74
N	978	
Pseudo R ²	0.3781	
Log likelihood	-48.223789	

***p<0.001, **p<0.01, *p<0.05, †p<0.10

26) 사전조사에서 투표의향 변수는 다음과 같이 코딩되었다: 1=투표할 의사가 전혀 없다 ~ 4=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서 정리하면 후보자토론회는 선거에서 각종 쟁점을 한자리에서 부각시켜 유권자의 비판적 인식을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미지 정치가 활성화되면서 정치적 학습과 정치적 정보의 수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그 결과 후보자토론 시청자의 정치적 참여의 욕구는 활성화되어 빈번한 정치적 대화의 기회와 (제한적이긴 하지만) 투표참여의 강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4) 선택 효과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얻는 후보자들의 정보는 산만하고, 복잡하고, 단선적인 경우가 많다. 이런 선거 환경 하에서 유권자에게 특정 시점에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원이 바로 후보자토론회라 할 수 있다. 후보자토론회에서 한자리에 모인 후보자들은 자신들의 정견, 정책과 능력, 자질, 도덕성을 제공하면서 유권자들에 의한 소중한 선택의 시간을 기다린다. 토론회 시청 후 유권자는 후보자들의 정책, 자질, 도덕성을 비교 평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결정한다. 이처럼 후보자토론의 후보 선택에 대한 영향력을 충분히 예상할 만하다. 경험적 분석의 결과는 이런 추론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예비적 성격의 분석으로 과거 토론회 시청이 투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또 이번 토론회가 후보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고, 지지후보에 대해 지지정도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먼저 살펴본다.

〈표 V-3-16〉 과거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투표결정에 미친 영향 (사전조사)

(단위: 명 (%))

투표결정에 미친 영향	응답자 전체	이번 토론회 시청자만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6(10.8)	141(13.5)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1,227(67.9)	712(68.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03(16.8)	157(15.1)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2(1.2)	14(1.3)
당시에는 투표권이 없었기에 영향을 미쳤는지 말할 수 없다	42(2.3)	13(1.3)
모름	18(1)	6(0.6)
합계	1,808(100.0)	1,077(100.0)

※ 문항: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신 적이 있다면) 당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선생님의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V-3-16〉은 과거 토론회 시청이 투표결정에 미친 영향을 보고하는 빈도분석 결과이다. 과거 토론회 시청이 투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 비율이 약 80%에 달한다.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의 비율도 11%나 차지하고 있다. 이 비율은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만 조사했을 때도 비슷하게 나타나며,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비율은 약 2.7%p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과거 토론회 시청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의 비율은 모두 1% 대에 머물고 있다. 이런 빈도분석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토론회가 후보를 선택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V-3-17〉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많은 유권자들은 토론회가 후보를 선택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영향을 미친 편이다”=64.2%). 반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의 비율은 4.4%에 불과하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과거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비해 이번 후보자토론회가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력을 약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17.6%p 낮아졌다고, 별로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도 19.5%p나 높아졌다는 점은 주목할 요소이다. 이러한 결과는 후보자토론회 자체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으나 후보자토론회가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강한 후보자선택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뒤의 〈표 V-3-19〉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다.

〈표 V-3-17〉 이번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후보선택에 미친 영향 (사후조사)

(단위: 명 (%))

후보선택에 미친 영향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	146(13.8)
영향을 미친 편이다	531(50.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32(31.5)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6(4.4)
합계 (투표자)	1,055(100)

※ 문항: “이번 후보자토론회가 선생님께서 후보를 선택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선택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서울시장선거, 경기도지사선거)와 비교해보자.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후보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

다고 보고한 비율은 68%이다. 한편 2018년 서울시장선거와 경기도지사선거의 후보자 토론회의 경우 각각 62%, 61%로 나타났다. 이런 수치를 기반으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후보선택 효과는 대통령선거보다는 약하지만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보다는 후보선택의 효과가 강하다고 평가내릴 수 있겠다.

후보자토론회가 지지후보의 지지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를 위해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들 대상으로 지지후보에 대한 지지 정도의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가 <표 V-3-18>에 나타나 있다. 분석결과는 선거에서 미디어 효과의 주류적 시각에 해당하는 강화효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정보는 지지후보를 변경하기 보다는 지지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를 강화하는데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번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들에서 약 40%는 지지하던 후보에 더욱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 토론회 시청 후에도 후보 지지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비율도 38%이 이르렀다. 한편 지지후보가 바뀌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3%이고, 지지하던 후보가 없었는데 새로 지지하는 후보가 생겼다고 응답한 비율은 10.8%를 차지하였다.²⁷⁾

<표 V-3-18>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지지후보의 지지 정도에 미친 영향 (사후조사)

(단위: 명 (%))

지지후보의 지지 정도에 미친 영향	
지지하던 후보에 더욱 호감을 갖게 되었다	421(39.9)
지지하던 후보를 변경하였다	119(11.3)
지지하던 후보가 새로 생겼다	114(10.8)
후보 지지에 별로 영향을 안 받았다	401(38)
합계	1,055(100)

※ 문항: “이번 후보자토론회가 선생님께서 지지하신 후보에 대한 지지 정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 결과를 지난 선거와 비교해보자. 먼저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경우 지지후보의 호감도 증가는 38%, 지지후보의 변경은 20%, 새로운 지지후보 발견은 9%, 영향력이 없음은 32%로 나타났다. 2018년 서울시장선거의 경우 각각 33%, 11%, 10%, 45%이고, 경기도지사선거의 경우 각각 24%, 17%, 9%, 51%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후보자토론회에서 지지후보자의 호감도를 증가시킨 선거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였으며, 지지후보의 변경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두드러졌다. 한편 후보

27) 12개 선거구의 개별 조사 결과도 전체 결과의 일반적 패턴을 벗어나지 않았다.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후 기존에 지지하던 후보자를 바꾸게 되는 설득효과와 관련하여, 서울 강남구갑 선거구에서 지지후보 변경 비율이 23%로 가장 높았다. 지지후보 변경 비율의 전체 평균(11%)보다 높은 지역은 광주 북구갑(18%), 대전 중구(15%), 부산 북구강서구갑(14%), 서울 동작구을(14%), 서울 관악구을(12%)이다.

자토론회가 후보지지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못한 선거는 서울시장선거와 경기도지사선거로 대표되는 지방선거였다. 전반적으로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각급 선거의 후보자토론회의 후보지지 변화 여부에 관한 효과는 강화효과가 주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표 V-3-19〉 후보자토론회 변수가 후보지지에 미치는 영향력 (로짓회귀분석)

	회귀계수	표준오차
선거관심	0.69	0.44
토론회 관심	-0.42	0.43
후보 자질 비교	-1.01**	0.41
후보 정책공약 비교	0.13	0.38
후보 정책수행 능력 비교	0.14	0.37
공약 인지	-0.09	0.46
새로운 이슈 인지	0.26	0.39
선거쟁점 정보 습득 효과성	0.51	0.45
토론회 시청을 통한 선거관심도 증가	0.18	0.39
정치효능감	0.04	0.33
누가 권력을 잡는가	-0.42	0.31
민주당 호감도	0.47***	0.10
통합당 호감도	-0.37***	0.09
민주당 후보 호감도	1.33***	0.19
통합당 후보 호감도	-1.11***	0.17
여자	0.09	0.38
연령	-0.41**	0.17
학력	-0.15	0.24
소득	-0.16†	0.09
이념	-0.38**	0.12
상수	3.70	2.29
N	791	
Psuedo R ²	0.7763	
Log likelihood	-105.86227	

***p<0.001, **p<0.01, *p<0.05, †p<0.10

마지막으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가 후보지지의 가변수(1=민주당 후보지지, 0=통합당 후보지지)로 이루어져 있어 로짓회귀분석이 시행되었다. 〈표 V-3-19〉의

로짓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토론회가 후보자의 자질을 비교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인식한 유권자일수록 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 외 후보자토론회 변수들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후보지지 모델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들은 정치관련 변수들이다. 주요 정당의 호감도, 주요 정당 후보의 호감도와 후보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성립하고 있다.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와 민주당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높을수록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고 반대로 통합당에 대한 호감도와 통합당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높을수록 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후보지지는 정치적 선택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잘 설명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표 V-3-17>에서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자선택에 직접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낮은 평가가 나오는 한 원인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후보지지와 관련하여 다수의 통제변수들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발견되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5) 소결

이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적 측면을 4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심리·인지적 효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후보자토론회 시청을 통해 유권자의 선거관심도도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둘째, 후보자토론 시청자 집단과 미시청자 집단의 비교에서 카이제곱 검정 결과, 시청자 집단에서 공약을 더 잘 인지하였다. 셋째, 토론회는 유권자에게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를 잘 인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넷째, 토론회는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선거쟁점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효과적이었다. 다섯째, 토론회는 유권자에게 후보 간 자질, 정책공약, 정책수행 능력을 비교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여섯째, 정치효능감은 후보자토론회 시청자와 미시청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일곱째, 선거관심도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후보자토론회 관련 변수들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다수 발견하였다.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 토론회에서 후보간 자질 및 정책수행 능력 비교의 유용성, 공약 인지, 새로운 이슈 인지, 토론회에서 선거쟁점 정보 습득의 효과성과 선거관심도는 양의 관계를 보였다.

태도 효과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후보자토론회 시청자 집단과 미시청자 집단 사이에 주요 정당 후보자들의 호감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주요 정당 후보들에 대한 호감도 형성에 미치는 요인들과 관련하여

여 토론회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이 대거 확인되었다. 토론회에 대한 관심, 토론회 시청을 통한 선거관심도 증가, 새로운 이슈 인지, 선거쟁점 정보 습득의 효과성은 주요 정당 후보들에 대한 호감도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참여 효과와 관련해서는 다섯 가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후보자토론회 시청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주변의 사람들과 정치적 대화를 촉진시켰다. 둘째, 토론회 시청 후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의사는 강화되었다. 셋째,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투표참여의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넷째, 후보자토론회 시청은 주변 사람들과의 정치적 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 관심, 토론회에서 공약 인지, 토론회에서 새로운 이슈 인지, 토론회의 선거쟁점 정보 습득의 효과성, 토론회 시청을 통한 선거관심도의 증가는 주위 사람들과의 정치적 대화를 촉진시켰다. 다섯째, 투표참여와 관련한 회귀분석 결과는 토론회 관련 변수의 제한적 영향력을 확인시켜 준다. 토론회에서 후보 간 자질 비교의 유용성 변수와 토론회에서 공약 인지 변수는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참여와 양의 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선택 효과에서 세 가지 사항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토론회 시청은 후보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과거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비해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토론회의 영향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토론회 시청은 지지후보를 변경하기보다는 지지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화, 유지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후보지지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토론회 관련 변수는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토론회의 후보 간 자질 비교의 유용성 변수만 후보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한편 지난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심리·인지적 효과의 측면에서 후보자토론회의 선거관심도의 효과를 살펴보면 2017년 대선 때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마지막으로 2018년 지방선거(서울시장선거, 경기도지사선거) 순이었다. 공약인지의 효과를 살펴보면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효과가 지난 대선이나 지선의 토론회보다 크게 나타났다. 후보자토론회를 통한 새로운 이슈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선거보다 대통령선거 토론회에서 그 효과가 더 크게 두드러졌다. 선거쟁점 정보습득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순으로 그 효과가 두드러졌다.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후보자의 전반적 자질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 역시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효과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국회의원선거,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였다. 정치효능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효과가 대동소이하게 나타났다.

참여효과와 관련하여 지난 선거와 비교하면, 정치적 대화빈도의 효과에 있어 국회의

원 후보자토론회의 효과가 가장 낮았다. 정치적 대화빈도의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 토론회는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였다.

그리고 선택효과에 대해 지난 선거와 비교했을 때, 토론회가 후보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선거는 대통령선거였고, 국회의원선거는 두 번째 였다. 후보지지 의 강화, 변경과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원래 지지후보에 대한 호감도를 더욱 증가시켰으며, 지지후보의 변경효과는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각종 차원의 선거에서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요컨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효과 또한 상당한 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유권자들이 선거쟁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후보자들의 자질과 공약 및 능력을 비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또한 후보자토론회는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도 중요한 변인이 되었다.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예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후보자 선택과 관련해서는 그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심리·인지적, 태도, 참여, 선택의 효과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선거정보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VI

기존의 국회의원 후보자토론회 효과와의 비교

VI

기존의 국회의원 후보자토론회 효과와의 비교

이 장은 기존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와 이번 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가를 제도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 그리고 효과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하지만 기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와 관련한 유사한 설문조사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에는 제한이 따른다.

1 제도적 측면

V장에서 이 보고서는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유권자들의 대다수는 후보자토론회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국회의원선거 이후 발간된 2016년 선거방송토론백서를 살펴보면, 당시 후보자토론회 국민모니터링에 참여한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선거방송토론의 필요성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16). 또한 후보자토론회에서 선정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대체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1)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횟수 및 시간

방송 횟수와 시간에 관해 살펴보면,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토론회의 횟수를 늘여야 한다는 의견은 과반을 넘지 않았다. 반면 시간에 관해서는 현재 토론회가 진행되는 시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늘려야 한다는 의견(약 33%)이 줄여야 한다는 의견(약 5%)보다는 더 많았다. 지난 국회의원선거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방송시간(100분)이 너무 길어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존재했었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16). <표 VI-1-1>에 따르면, 이번 후보자토론회 진행시간은 지역구별로 상이했다. 조사 대상 지역구들 중 가장 오랜 시간 토론회를 진행한 곳은 토론 참여자가 4인인 광주 북구갑으로 100분이었다.

지난 선거에서 토론회가 100분 정도 지속된 것에 비하면,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토론회 진행시간은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방송시간을 늘여야 한다는 의견이 줄여야 한다는 의견보다 더 많았을 수 있다. 물론 절대 다수가 이번 후보자토론회 진행시간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앞선 장에서의 분석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 진행시간이 길수록 토론회 방송시간이 줄어야 한다는 선호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1-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시간

서울 종로구	강남구갑	동작구을	동대문구을	관악구을	부산 북구강서구갑
1시간 10분	1시간 14분	1시간 17분	1시간 10분	1시간 27분	57분
대구 수성구갑	광주 북구갑	대전 중구	인천 연수구을	경기안양시 동안구을	경기 고양시정
52분	1시간 40분	52분	1시간 27분	1시간 22분	1시간 14분

지난 ‘2016년 선거방송토론백서’를 살펴보면, 토론 횟수에 관한 의견은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16). 토론회를 진행했던 송종길 교수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토론회를 늘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민모니터링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후보자토론회 이후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약 41%가 토론회 횟수가 부족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 토론 진행방식 평가

후보자토론회의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이번 선거에서 다수의 시청자들은 직접 참여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방송토론회 백서 중 외부제언에서도 관찰되었다. 김찬태 당시 KBS 선거방송전문 PD는 유권자들이 토론회의 주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후보자들에게 질문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16).

당시 국민모니터링에 참여했던 유권자들도 유사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당시 30대의 한 유권자(송슬기)는 “사전에 SNS를 통하여 토론 주제와 관련된 관심 질문 등을 공모 받아서 선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의 진행과정은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유권자가 반응을 올리고 토론자가 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론 방식을 유도한다면 훨씬 더 토론회의 취지에 맞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16, 143).

이번 후보자토론회 시청자 조사에서 유권자들이 두 번째로 선호하는 토론 방식은 후

보들끼리 질문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후보자 상호토론 방식 중에서도 후보자들이 정책(공약)을 발표한 후 후보자들이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상호정책검증 토론 방식의 선호가 가장 높았다(44.54%). 두 번째로 높은 선호를 보인 방식은 사회자가 제시하는 질문에 대해 후보자들이 답변하고 상호 보충 질문을 하는 방식이었다(38.98%). 후보자가 질문권한을 갖고 답변자를 지정하는 주도권토론 방식은 약 14.16%가 선호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선호는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당시 백서에 따르면, “토론자 상호토론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주도권토론에 역동성을 불어 넣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16, 146). 실제로 국민모니터링에 참여하였던 50대 정은경 유권자는 “주도권토론은 각 당의 정책을 비교하고 후보자 자질을 검증할 수 있었으며, 선관위 주관 토론회의 딱딱함 등이 해소되었고, 생동감 넘치는 토론회가 되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16, 144).

토론의 진행을 맡은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평가도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모두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이번 선거에서 적절하게 토론에 개입했다고 평한 유권자가 약 77%로 절대 다수를 이루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국민모니터링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적극적인 중재자로서 사회자의 역할이 미흡했던 점, 공정성을 증시한 나머지 사회자의 역할이 소극적이었으며, 그 결과 토론의 역동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16, 146).

3) 소결

제도적 측면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자료의 부재로 인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의 설문조사 자료와 지난 선거기간 중 이루어진 국민모니터링 자료와 전문가 인터뷰를 비교하면, 기본적으로 두 토론회 사이의 큰 평가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시간은 선거구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획일적인 비교는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번 선거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토론회 진행시간이 증가할수록 토론회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토론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필요할 듯하다. 하지만, 지난 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약 100분정도 지속된 것에 비해 이번 설문조사에 해당하는 지역구 평균 토론 시간은 대략 74분 정도였다. 또한 방송 시간을 줄이자고 응답한 유권자들은 약 5%에 불과했다. 반면, 토론회 횟수를 늘이자고

응답한 유권자들은 약 41%로 높은 편이다. 지난 선거에서 횡수에 대한 의견은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진행방식에 대한 평가에서는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도 시청자들은 더 많은 유권자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후보자들 간의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한 선호와 사회자 역할은 지난 선거와 이번 선거에서 모두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2 현실적 측면

역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평가에서 현실적 측면을 질문하여 조사한 연속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와의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활용가능한 데이터를 통해 역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와 관심도, 유용성과 효과성, 흥미성과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 인식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기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분석 데이터의 부족으로 각 항목별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제18대,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자료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 측면의 결과들을 통해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와의 비교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1)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절반이 겨우 넘는 52.8%만이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08, 정창화 외 2008 재인용).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은 대통령선거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질문은 없었으나 유권자들은 선거와 관련한 정치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 후보자토론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분석에서 유권자들은 지지후보를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미친 매체 및 정보원으로 TV보도 다음으로 후보자토론회로 응답했으며,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이후 지지후보를 결정하는데 미치는 후보자토론회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이후 오히려 토론회의 신뢰성, 정보제공, 가치 등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것으로 변화했다(이수

범·박정의 2008).

뿐만 아니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에 대한 평가는 합동 토론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항목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후보자토론회의 문제점으로 “지루하고 형식적인 토론회 진행(17.1%)”이라는 응답이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과 답변(20.3%),” “충분하지 않은 발언시간(18.6%)”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적을 받았다.

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패널조사가 아닌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평가는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조사에서 당시 유권자의 45.1%만이 후보자토론회 TV방송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결정을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정보를 획득한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 “정당이나 후보자 정견방송”을 통해 정보를 획득한다는 응답은 9.8%에 불과했다. 이 경우 방송토론, 방송연설회나 방송광고를 모두 지칭할 수 있지만 설문에서 “TV 뉴스 및 정치토론프로그램”(42.6%)과 “신문이나 TV 정당광고”(21.9%)를 별도로 명시하였으므로, 이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합동연설회의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다(서복경 2012).

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평가는 후보자토론회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공정하고 흥미롭다는 등 긍정적으로 변화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에서 다소 다르게 평가되고 있으나 1점 만점의 흥미성 지수는 평균 약 0.65이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유권자들이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보다 후보자토론회를 더욱 흥미롭게 평가했다.

사실 유권자들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후보자토론회가 좀 더 흥미롭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세미 당시 MBC 100분토론 PD는 좀 더 역동성 있고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형식의 후보자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 역시 1점 만점에 평균 0.75점으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공정성(0.63)의 경우 지역간 다소 차

이가 나타났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형식공정성(0.88)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즉 유권자들은 전반적으로 후보자토론 진행이 공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를 살펴보면, 공정성에 관한 전문가들의 평가 역시 대동소이하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16). 당시 진행을 맡았던 송종길 교수는 질문 선정이 전문가와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그러한 점에서 토론회는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국민모니터링에 참여하였던 일반 유권자들도 토론에 사용되었던 질문이 공정했다고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정치, 사회, 경제 문제에 질문이 편중되는 측면을 지적한 언급이 있었다.

4) 소결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대한 관심도와 공정성, 유용성, 흥미성 등이 이전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긴 했으나 94.2%가 관심을 가지고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의 차원에서도 81.4%는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했으며,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이후 공정성에 대한 긍정평가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후보자토론회가 선거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 대체로 유용하다고 평가했으나(74.5%),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이후 유용성에 대한 긍정평가가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점은 주지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정보매체와 비교한 후보자토론회의 상대적 유용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73.9%). 마찬가지로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60.8%), 이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평가와 비교해볼 때 상당히 개선된 것이라고 하겠다.

전반적으로 최근 네 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일반 유권자들의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와 유용성, 공정성, 흥미성 인식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유권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 심리·인지적 효과

후보자토론회는 선거운동 기간에 경쟁 후보들의 집약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쟁점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선거운동의 수단으로써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영상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후보자의 설득력 있는 주장과 개인적 자질이 유권자에게 호소력을 가지게 되면 선거에 대한 관심, 정책에 대한 인지, 정치효능감, 투표의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후보자토론회의 심리·인지적 효과를 선거관심, 공약 인지, 정보습득의 중요성, 후보의 자질적 특성, 정치효능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도 비슷한 연구대상을 활용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8년 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후보자토론 시청자 집단은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더 잘 인지하였는데, 특히 미시청 집단보다 후보나 정당의 정책 및 공약을 평균 0.33개 더 인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수범·박정의 2008).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V장에서 밝혔듯이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더 잘 인지하였고,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이슈를 잘 인지하였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분석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후보자토론회 시청자 집단이 미시청 집단보다 미세하긴 하지만 선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으며, 후보자에 대한 자질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2016). 본 연구에서도 사후조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 후보자토론회가 후보간 자질적 특성을 비교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사후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한편 정치효능감에 대한 조사에서 2016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 정치효능감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2016). 이 연구 결과도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토론회 시청자 집단과 미시청 집단을 대상으로 t검정을 조사한 결과 두 집단 사이에서 정치효능감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종합하면 후보자 TV토론회의 심리·인지적 효과는 시간이 경과하여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견고한 효과라 할 수 있다. 후보자토론회가 갖는 고유한 속성을 고려할 때 선거정보의 중요성, 쟁점사항의 부각, 후보 이미지의 형성 등은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인지, 공약 및 정책에 대한 인지를 형성하는데 지속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2) 태도 효과

후보자토론회에서 영상매체를 통해 노출되는 후보자의 능력, 개인적 자질, 주장은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토론회의 태도 효과를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형성에 후보자토론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 2008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후보자 TV 토론은 후보의 이미지 형성과 인물됨, 정당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범·박정의 2008). 반면 2016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연구에서는 토론회 시청자 집단과 미시청자 집단 사이에 후보에 대한 호감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런 상반되는 연구결과에 대해 본 연구의 결과는 후자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자 집단과 미시청자 집단을 대상으로 후보자 호감도를 조사한 t검정 결과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토론회에 대한 관심, 토론회 시청을 통한 선거관심도 증가, 토론회에서 이슈 인지와 선거쟁점 정보 습득 등과 같은 토론회 관련 변수들은 유권자의 후보에 대한 호감도 형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와 같이 토론회 시청에 있어 특정의 조건들이 활성화된다면 유권자의 후보 호감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와 높은 투표참여를 불러올 것이다.

3) 참여 효과

후보자토론회 개최의 실질적 이유 중의 하나는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후보 평가와 선택에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정치참여를 촉진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후보자토론회의 정치적 효과의 연구 중 참여 효과 부분은 핵심적인 연구대상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TV토론회는 유권자들의 투표의사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수범·박정의 2008). 반면 2016년 연구에서는 후보자토론회 시청자 집단과 미시청자 집단 사이에 투표의향에서 가장 뚜렷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는 투표참여 의향이 거의 23% 상승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2016). 투표참여와 관련한 상반되는 선행연구에 대해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후자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의사는 강화되었다. 또한 투표참여의 차이가 TV토론 시청자 집단과 미시청 집단 사이에서 발견되었는데,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투표참여의 경향을 보였다.

한편 정치적 대화의 빈도 역시 후보자토론회의 참여 효과의 분석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아직 이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후보자토론회 시청은 주변 사람들과의 정치적 대화의 빈도를 촉진시켰고, 토론회 관련 변수들(토론회 관심, 토론회에서 공약 인지 및 새로운 이슈 인지, 선거쟁점 정보 습득, 토론회 시청을 통한 선거관심도)은 정치적 대화와 양의 관계를 성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선택 효과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에게 선거 관련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고, 후보자의 정견, 정책, 자질을 그대로 노출시킴으로써 유권자의 후보선택과 지지 선택에 많은 도움을 준다. 토론회의 선택 효과는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유권자의 후보지지, 후보선택의 영향력, 후보의 지지 정도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2008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연구에서 토론회 시청 후 지지후보 변경, 지지후보 호감도 증가, 지지후보 새로 생김을 분석한 결과 지지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가 강화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이수범·박정의 2008). 반면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토론회를 시청한 새누리당 지지자와 국민의당 지지자는 지지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상대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2016). 이는 후보자토론회의 설득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강화효과와 설득효과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빈도분석 결과는 강화효과를 지지한다. 후보자토론회 시청은 지지후보를 변경하기보다는 지지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화, 유지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또 다른 빈도분석 결과에서 토론회 시청은 유권자의 투표결정과 후보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 소결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정치적 효과를 비교해 본 결과 심리·인지적 효과에서는 연구들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나 태도 효

과, 참여 효과, 선택 효과에서는 분석의 결과가 서로 상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후보자토론회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연구 결과의 일반화 도출을 위해 태도 효과, 참여 효과, 선택 효과에 연구를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다 나은 연구를 위해서는 설문조사 대상자의 대표성 확보, 연구의 지속성을 통한 연속적 자료 확보, 정교한 연구설계 및 문항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VII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 분석

VII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 분석

1 인터뷰 대상과 질문 내용

본 연구는 유권자 조사의 단점을 보완하여 분석의 신뢰성과 적실성을 높이고 보다 심도 있는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10인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정치학 전공자와 정치커뮤니케이션 전공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모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1회 이상 시청한 후 인터뷰에 참여하였으며, 원하는 경우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 지역의 후보자토론회 영상을 제공받아 시청하였다. 인터뷰는 본 연구진이 이메일을 통하여 질문을 보내고 그에 대한 응답을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대상이 되는 전문가들은 중앙 및 광역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경험, 후보자토론회 사회자 경험, 그리고 전공 영역 및 다수의 후보자토론회 연구 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표 VII-1-1>과 같다.

<표 VII-1-1> 전문가 인터뷰 참가자

번호	이름	소속 및 직위
1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	심훈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
3	엄기홍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4	유성진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 학부 교수
5	이강형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6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7	장우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8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9	채영길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10	한정택	부경대학교 연구원

인터뷰 내용은 유권자 대상 설문조사의 범위인 제도, 현실, 효과적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정책적 함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과 문제점의 개선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전문가 인터뷰 질문 문항은 <표 VII-1-2>와 같이 구성되었다.

<표 VII-1-2> 전문가 인터뷰 질문 내용

번호	질문 내용
1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과 유용성
2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만족도 / 만족 또는 불만족 이유
3	선거 쟁점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있어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성
4	후보자토론회에서 잘 검증된 영역
5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적절한 횟수
6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적절한 시간(길이)
7	토론 진행방식에 대한 평가
8	주도권토론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9	현장감과 흥미를 유발하면서 후보자들 간 우위를 가릴 수 있는 토론회 진행방식
10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회자 역할과 토론 개입정도에 대한 평가
11	후보자토론회에 유권자 참여에 대한 의견과 참여방식
12	후보자토론회가 가장 핵심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

2 인터뷰 결과 분석²⁸⁾

1)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과 유용성

질문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SNS 등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매체와 방법이 다양화되면서 TV 토론회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평소 선생님께서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TV 토론회)가 얼마나 필요하며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문가 인터뷰 응답자들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과 유용성이 여전히 크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응답자들은 특히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표 VII-2-1>과 같이 다양한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다.

28)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지역구 후보자토론회 또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이 되는 지역구의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후 인터뷰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모든 지역구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을 밝힌다.

〈표 Ⅶ-2-1〉 전문가 인터뷰 결과: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 및 유용성

필요성 및 유용성	인터뷰 내용
미디어정치의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정치는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통제 하에 균형 있는 운용이 가능한 TV를 통한 후보자토론회는 필요성과 유용성이 높음.
매체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는 가장 평등하게 접근 가능한 매체임. • 뉴미디어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 및 노년층 유권자들 및 디지털 기기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유용한 정보원. • 유권자의 알권리 확보란 측면에서 TV 토론회는 가장 폭넓은 유권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임.
객관성·공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성과 사실성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매체의 정보에 비해 후보자토론회는 객관적인 정보를 공정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 • 후보자토론회의 가장 큰 장점은 공신력과 공정성에 있으므로 다른 매체의 정보와는 차별적임. 뉴미디어는 TV의 후보자토론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 완전히 대체하기는 힘들. • 다른 매체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주요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균형 있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후보자토론회가 적절함. 그러나 개선이 필요함. • SNS를 비롯한 다양한 선거운동 방식이 존재하지만, 공적 기관이 주최하는 공정한 형태의 후보자 토론회는 부족한 현실임. 이에 TV토론회는 여전히 그 필요성과 유용성이 인정됨.
토론을 통한 정책검증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토론회는 경쟁하는 후보들이 모여 정책에 관한 상호토론을 하는 유일한 장이기 때문에 매우 필요하며 중요 • 규제적 선거법으로 인하여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자 간 자질과 능력을 한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데 TV토론회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유일한 선거운동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음.
후보자들의 훈련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으로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경쟁자와 토론함으로써 후보자들의 훈련의 장이 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유력 신뢰 매체로서의 TV가 가지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TV토론회가 가지는 의미도 여전히 큼. • 후보자들이 후보자토론회 영상 등을 다양한 차원에서 홍보하고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과거보다 최근에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음.
유용성 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선호에 따른 후보자 평가로 토론회의 정책 홍보 효과 낮음. • 경직된 토론회 조직과 운용 • 경직된 토론회 방식, 낮은 집중도, 낮은 시청률 • 지상파 방송을 통한 제작과 편성이 제한적임.

다른 한편에서 인터뷰 응답자들은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토론회에 대한 낮은 집중도와 시청률 하락, 정당선호에 따른 후보자 평가 등으로 후보자토론회가 정책홍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특히 현재와 같이 경직된 토론회 조직과 운용, 그리고 지상파방송의 제작 및 편성 회피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만족도

질문	선생님께서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다? 불만족스러웠다면 어떤 점에서 특히 만족스럽지 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혹은 만족스러우셨다면 어떤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일부 인터뷰 응답자들은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과거의 후보자토론회에 비해 여러모로 개선되었고, 토론의 내용 또한 후보자에 대해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하였다. 이들은 특히 대결적인 선거 분위기에서 후보자토론회가 자칫 감정싸움, 비방 등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후보자들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표 VII-2-2〉 전문가 인터뷰 결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만족도

만족스러운 점	인터뷰 내용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됨. • 깔끔하고 차분한 진행 • 효율적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엿보임.
토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및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맞게 토론의 내용이 이루어졌음. • 선거의 분위기 상 자칫 감정싸움과 비방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우려와 달리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주요 지역현안이나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에 대한 이행 의지, 전문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해 볼 수 있었음.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방식이나 형식이 유권자의 흥미를 유도하지 못하고, 후보자 간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비교 검증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함. • 토론회 진행방식이 유권자의 정책 요구에 맞추어져 있지 않고 후보자 중심으로 진행됨. • 자유롭고 친취적인 방식의 후보자토론회가 되지 못함. • 토론회가 다양한 형식을 취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정형화되어 있어 후보평가를 위한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움. • 제한된 시간에 기계적 중립을 위한 구성과 진행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어 논쟁적 이슈, 논쟁을 통한 후보자 자질 검증, 심도 있는 토론 등이 가능하지 못하고 시청효능감이 억제됨. • 후보자토론회에 유권자들의 참여가 전혀 없음.
방송 시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권자들이 시청하기 어려운 시간에 편성되어 시청 빈도 낮음 (대다수 응답자들이 지적함).
홍보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들이 언제 어디서 토론회를 하는지에 대한 정보 및 홍보가 크게 부족.
횟수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토론회의 횟수가 부족함.
방송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적인 공중파 방송이 아닌 지역 케이블TV에서 방송

만족스러운 점	인터뷰 내용
유권자(지역주민)의 소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성 없는 소수의 지역주민만이 후보자토론회 기획과 준비에 참여 • 후보자토론회에 지역주민이 관객으로도 참여 불가 • 매체 및 편성 전략 부족: 지역케이블TV를 통한 송출, 방송시간대 • 적극적 홍보의 부족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정당 및 후보자의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과 후보자들이 후보자토론회에 대해 선거운동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유권자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토론회에 소극적이거나 때로는 회피하려는 태도를 가짐.

그러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몇 가지 점에서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였던 점을 지적하였다. <표 VII-2-2>에 나타나고 있듯이, 특히 진행방식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지적하는 점이 후보자토론회가 시청자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시청자들이 끝까지 시청하기가 매우 힘들고 그 결과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이었다. 한 응답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후보자토론회 방송 중간에 흥미를 끌만한 정보와 그래픽 등으로 화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후보자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큐알코드를 제시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후보자토론회가 공정성과 중립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구성과 진행이 흥미를 끌지 못할 뿐 아니라 논쟁적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기가 힘들다는 한계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후보자토론회의 효능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후보자토론회의 지나친 정형화 문제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점으로 토론회의 방송시간대와 송출 방송사, 토론회 횟수 및 홍보 부족 문제, 그리고 후보자토론회 기획에서부터 토론회까지 유권자의 참여가 부족한 현황 등을 지적하고 있다.

3) 선거 쟁점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있어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성

질문	선생님께서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유권자들이 선거의 쟁점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	---------------------------------------------------------------------------------------------

선거쟁점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후보자토론회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인터뷰 응답자들 다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대답을 하고 있다. 후보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후보자들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후보자들의 현안에 대한 이해도 및 공약의 실현가능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

았다. 특히 전문가들은 후보자토론회가 홍보가 부족한 지역의 정치신인들에게 효과적인 홍보 매체로서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으며, 후보자토론회의 주 시청층이라고 볼 수 있는 적극적 정치 관여자들에게 효과적인 선거정보 매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반면, 후보자토론회가 기대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다수 있었다. 후보자토론회 시청자 수도 적고 토론회 횟수도 적은 상황에서 후보자토론회가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응답부터 제한된 시간의 형식적 토론회를 통해 폭넓고 심층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의견, 그리고 유권자 참여 없이 일방적 정보 전달을 통해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가 힘들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더불어, 적극적 정치 관여층이 주로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이기 때문에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 변경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여럿 있었다.

〈표 VII-2-3〉 전문가 인터뷰 결과: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성

효과성 평가	인터뷰 내용
어느 정도 효과적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후보들 간 차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음. • 선거쟁점에 관한 후보자 입장을 확인할 수 있어 효과 있음. • 언론 보도보다 신선하고 새로운 쟁점에 관한 정보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후보자의 입을 통해 직접 관련 공약사항 및 쟁점에 관한 이야기를 청취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음. • 후보자들의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 정도나 후보자들 공약의 실현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 • 지역에서 정치 신인들에게 후보자토론회는 중요한 모멘텀 역할을 함. 특정 정당 지배적인 지역을 제외하고는 후보자토론회에서 얼마나 잘 했는지가 특히 정치신인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됨. • 후보자토론회의 주 시청층인 적극적 정치 관여층이 선거쟁점에 관한 후보자 입장 정보를 획득하는 데 효과적임. • 방송을 통한 시청보다는 유튜브에 해당 지역이나 관심 정책별로 후보자토론회의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이를 통해 맞춤형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됨.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는 유권자들이 많지 않고 토론회의 횟수도 적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기가 어려움. • 후보자토론회가 정보 취득의 기제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함. 오히려 지역 언론에서 얻는 정보가 더 많을 것임. •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자 결정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 변경에는 효과가 약함. 기존 투표 선택을 지속·강화시킴. • 후보자토론회의 경직성과 형식화 때문에 유권자들이 선거의 쟁점과 후보자들의 대안 및 대처 능력을 발견하기 어려움. • 제한된 시간에 복수의 후보자들의 짧은 질문과 응답을 통해 폭넓고 심층적인 정보를 획득하기는 어려움. • 유권자들의 참여 수단이 전혀 없고 일방적인 정보전달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자질을 명확히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4) 후보자토론회에서 잘 검증된 영역

질문	선생님께서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후보자의 정책, 개인적 자질, 국회의원으로서의 능력 등 어떤 부분이 가장 잘 검증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	---------------------------------------------------------------------------------------------------------------

후보자토론회에서 잘 검증된 영역에 대해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후보자의 정책이나 능력보다는 후보자의 자질이라고 응답하였다. 인터뷰 응답자들은 짧은 시간 동안 재원에 대한 자세한 계획과 실현가능성을 기반으로 평가해야 하는 정책이나 의원으로서의 능력 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반면, 토론 태도,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언변, 화술, 토론 주도력, 전략, 논제 및 쟁점 파악 능력, 통찰력, 후보자의 철학 등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후보자토론회가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 검증보다는 특정 쟁점 위주로 진행되면서 후보자의 이미지나 자질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 응답자는 이러한 후보자의 이미지나 자질은 언론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는데 후보자토론회에서 검증할 수 있는 영역도 또 후보자의 자질이라면 후보자토론회가 과연 효용성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반면, 몇몇 전문가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발표와 상호토론 속에서 후보자 정책과 후보자 간 정책적 차별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시청자가 이미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경우, 후보자토론회에서는 각 후보자들이 그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토론회의 효용성을 찾는다.

한편, 후보자토론회가 가지는 형식적, 참여적 한계로 인해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 검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후보자들의 토론 태도 및 상대방에 대한 태도나 돌발상황에서의 대응 등을 통해 후보자들의 자질을 때로는 알 수 있지만 이는 모든 후보자토론회가 그러한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토론회 과정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후보자토론회의 역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 유권자들 스스로도 후보자를 개인 정치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정당을 대표하는 정당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개인의 정책, 능력 및 자질을 평가해 보고자 하는 목적이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응답자도 있었다.

〈표 Ⅶ-2-4〉 전문가 인터뷰 결과: 후보자토론회에서 잘 검증된 영역

평가	인터뷰 내용
자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과 관련하여 자원 및 실현가능성 등을 유권자들이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정치적 경쟁자를 다루는 방식을 통해 향후 정치적 행보와 태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음. • 선거쟁점 및 선거의제를 풀어내고 상대방 후보의 공격을 막아내는 동시에 방어를 공격으로 되돌려주는 언변과 화술, 논리력과 토론주도력, 전략의 유무 및 세련됨, 후보자들의 순발력과 직관, 통찰력 등의 비교가 가능하였음. • 정책과 관련해서는 예상 질문이 존재하고 토론방식도 정책토론을 극대화시키기 어려운 방식이며, 후보자의 능력 또한 짧은 시간 내에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토론 자세, 상대방에 대한 태도, 질문/응답에 담긴 철학 등을 통해 자질 판단에 용이하였음. • 지역구 현안에 대한 정책 검증이 주가 되지 않고 코로나19 대책 등 전국적 이슈가 주요 이슈였기 때문에 쟁점의 범위가 축소되어 있어 정책 검증보다는 후보자의 이미지와 개인적 자질이 부각되는 자리였음. • 후보자의 정책과 정책적·정치적 능력보다는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나 특정 쟁점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음. • 후보자 자질은 언론에서 이미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보자 자질 검증이 주를 이루는 후보자토론회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발표와 상호토론 속에서 후보자 간 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책 검증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임. • 사전에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이 그 정책을 얼마나 깊게 고민하였는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관찰 가능함.
실질적인 검증 효과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토론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후보자의 정책, 자질,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어려움. • 특히 후보자들 간 경쟁이 치열하지 않거나 특정 후보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는 선거구에서 검증 효과는 더 낮음. • 후보자들의 상대방에 대한 태도나 돌발상황에서의 대응 등을 통해 개인의 자질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는 후보자토론회의 일차적 목적과 기능은 아님. • 유권자도 후보자를 선거구를 대표하는 개인 정치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정당을 대표하는 인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개별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이 낮고 토론회를 통해 개인의 정책이나 능력 및 자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약함.

5)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적절한 횟수

질문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는 각 지역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여 지역구별로 한 차례씩 진행됩니다. 선생님께서는 한 차례 정도의 토론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유와 함께 몇 회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	------------------------------------------------------------------------------------------------------------------------------------------------

〈표 Ⅶ-2-5〉 전문가 인터뷰 결과: 후보자토론회의 적절한 횟수

토론회 횟수	인터뷰 내용
한 차례가 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회를 자주 하게 되면 시청률도 더 떨어질 것임. • 반복 진행될 경우, 첫 토론회에서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냈다고 인지하는 후보자는 다음 토론회에서 더 공격적, 선정적 전략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아 토론회의 질이 낮아질 것임. • 법정 토론회는 1회씩이지만 민간방송이나 지역 케이블 방송, 지역 단체 등에 의한 토론회가 진행되므로 법정 토론회는 1회로 유지해도 무방함. • 토론회는 많을수록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함. 짧은 공식선거 기간과 지역 선관위 인력 및 방송국 협조 등을 고려하면 1회 이상 불가능함. 특히 토론회 진행 예산지원과 관련한 방송국의 불만족을 고려할 때 방송국은 한 차례 외에는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임. 후보자 또한 부담스러운 토론회를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임.
한 차례로는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차례 토론회는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후보 간 차이를 구별해 내는 데 부족함. 한번으로 끝난다면 유리한 위치에 있는 후보는 어떻게든 그 토론회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할 것임. 3 차례 정도가 적당함. • 유권자들이 후보의 정책과 입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정책분야별로 세분화하여 2~3차례로 확대할 필요 있음. • 오정보의 보완과 후보자 검증을 위해 횟수 증가는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횟수만 늘리는 것은 무의미함. 토론회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후보자토론회는 온라인 공간의 콘텐츠를 생산해 내기 때문에 그 횟수를 늘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모색해야 함. • 양적 증가를 통해 다양한 개선 시도를 해 봄으로써 질적 향상이 견인될 수 있음.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적절한 횟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 차례가 적절하다는 의견과 한 차례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한 차례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반복적 토론회가 가지고 올 부작용을 지적하거나 민간 차원에서의 토론회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정 토론회는 한 차례가 충분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선거기간, 지역 선관위 인력, 방송사 협조, 후보자 참여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여러 차례 후보자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현실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반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한 차례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은 대부분 한 차례 토론회로는 후보자에 대해 충분히 알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다만,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횟수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고 횟수의 증가와 함께 토론회 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럿 있었다. 또 횟수를 늘리면서 정책분야별, 쟁점별로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특히, 후보자토론회가 온라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만큼 후보자토론회의 횟수를 늘리고 다양한 방식의 진행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주목할 만하다. 이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적절한 횟수는 2~3회이다.

6)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적절한 시간(길이)

질문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가 2인일 경우 약 50분간 진행되었고, 후보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약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곳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시간 10분~15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길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길이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진행 시간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토론 시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유권자들의 정치와 선거 및 토론회에 대한 관심 수준을 고려하여 토론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토론회가 너무 길게 진행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었다. 일부는 후보자토론회는 다소 짧게 구성하는 반면 공청회 등을 통한 후보자-유권자 만남의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토론회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토론을 위해 토론회 시간을 늘리되, 시청자들이 지루해 하지 않도록 토론회가 시청자 참여를 비롯한 역동적 포맷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표 Ⅶ-2-6〉 전문가 인터뷰 결과: 후보자토론회의 적절한 시간(길이)

토론회 시간 적절성	인터뷰 내용
시간이 적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1시간 10~15분 정도면 충분함. 후보들 간 진지하고 심층적인 정책 준비 실력과 토론을 보기 위해서는 이 정도 시간 필요 • 후보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미디어 채널이 많아지는 가운데 현재 정도의 시간이 충분함. 핵심 의제 위주로 토론회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필요 있음. • 유권자의 관심 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 시간 이상으로 진행하면 토론회 효과가 저하될 것임. • 후보자토론회가 아니라도 공식적으로 지역 유권자들과 만나 공청회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방송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함. • 후보자토론회 길이는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수에 따라 선관위가 적정 시간을 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나 기계적인 시간 적용보다는 탄력적인 운영이 요구됨.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분정도가 적당함. 다만, 이 경우 유권자들이 지루해하지 않을 역동적인 포맷을 전제로 해야 함. • 후보자 2인 기준 최소 1시간은 주어져야 하고, 후보자 수에 따라 늘어날 필요 있음. 토론회가 길어지면 지루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가 개입하거나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후보자토론회로 개편이 필요함. • 짧은 길이의 토론회는 후보자토론회 자체가 형식적인 정치 이벤트라는 것을 의미함. • 후보자토론회를 후보자의 자기 학습, 정책 및 비전 점검의 기회로 활용하고 유권자들의 시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시간(140~150분)이 주어져야 함.

7) 토론 진행방식에 대한 평가

질문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지역별로 약간씩 다른 진행방식을 활용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조연설(시작발언) - 사회자 공통질문/답변 - 후보자 간 보충질문/답변 - 후보자 공약발표 후 개별 질문/답변 - 후보자 주도권토론 - 마무리 발언
	이와 같은 토론 진행방식에 만족하십니까?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 가장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인터뷰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현재의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재의 방식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들도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다른 대안을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 방식을 지속하자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있어서는 응답자마다 생각이 달랐다. 특히 주도권토론회와 관련하여 한 쪽에서는 주도권토론이 후보자토론회의 질과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보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유권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적절한 방식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주도권토론에 관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기술함).

전문가들이 현재의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유권자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점,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가 어려운 정태적인 형식이라는 점,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부족한 형식이라는 점, 질문의 도출과정에서부터 질문이 역동적이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지역의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 인터뷰 응답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권자 참여와 시민의제 수용, 자유토론의 확대, 질문의 역동성 제고, 지역별 자율성에 기반한 지역별 진행방식 채택 등을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발언기회와 시간의 절대적 동일 분배라는 기계적 공정성 개념보다는 공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잘 정립하여 보다 치열한 토론이 가능한 경합적 토론회를 만들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화면의 자막을 이용하여 시청자들에게 보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표 Ⅶ-2-7〉 전문가 인터뷰 결과: 후보자토론회의 진행방식에 대한 평가

평가	인터뷰 내용
현재의 방식이 적당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간 자유토론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제한된 시간과 안정된 진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방식이 적당함. • 현실적으로 현재의 방식 외에 답을 찾기 힘들.
개선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도권토론 축소) 사회자 공통질문/답변 시간이 더 늘어나고 주도권토론의 분량을 줄일 필요 있음. 사회자가 질문 및 토론운영을 주도하는 것이 후보자들이 안정적으로 각자의 답변을 피력하는 데 집중하도록 만들. 주도권토론은 상대방의 약점을 캐내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서 후보들 모두 신뢰성을 잃게 함. • (주도권토론 확대) 주도권토론을 통해 각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고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도권토론을 확대할 필요 있음. • (유권자 참여) 전체적으로 무난한 형식이지만 유권자 참여가 봉쇄되어 있음. 타 운할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 (시민의제 수용) 토론회의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너무 정태적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가 어려움. 과거 미국 대선 유튜브 프라이머리와 같이 시민의제를 토론의 장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 (자유토론 확대) 후보자토론회 횟수를 늘리면서 현재 방식의 토론회를 1회 정도 하고 나머지 토론회에서는 자유토론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일률적인 방식 외에 좀 더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어야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 (질문의 역동성 제고) 공통질문 도출과정에서 민감한 질문은 제외되는 경향이 있어 늘 예상가능하고 준비된 답변으로 진행됨. 후보자들의 의견이 배제되는 질문은 공정할 수는 있으나 탈정치화된 질문이며 후보자들의 정치성 발현을 억제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판단을 제한함. 참여 후보자들이 원하는 질문이나 소수정당의 문제의식도 함께 포함시켜 경합적이며 민감한 문제들이 토론회에서 제기될 수 있어야 함. • (지역별 자율성 보장) 공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전제로 하여, 토론 질문, 응답 방식, 시간배정 등에 있어 지역 선관위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음. • (지역별로 흥미로운 토론 방식 채택) 특정 포맷으로 고정시키지 말고 참여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흥미롭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지역구에서 구성하는 것이 좋겠음. • (공정성 개념 재고와 경합적 토론회) 기계적 공정성 개념에 기반한 토론회 방식은 격렬한 토론과 경합을 제한하여 기존 유력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 공정성 개념을 재고하고 공정성을 최대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잘 만들어 치열한 토론과 경합이 가능한 토론회를 만들 필요 있음. • (화면 자막 활성화) 각 형식별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고 자막이 원활하지 않음. 각 토론 단계별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화면에 제공하여 토론회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제고할 필요 있음. 또한 시청자들이 처음부터 토론회에 주목하여 끝까지 보는 것이 아니므로 후보자가 발언을 할 때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화면에 제공할 필요 있음.

8) 주도권토론에 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질문	후보자토론회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주도권토론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도권토론은 토론회의 역동성을 향상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후보자의 홍보, 일방적 주장,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공격의 시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됩니다. 선생님께서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주도권토론 방식이 필요하며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도권토론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	-------------------------------------------------------------------------------------------------------------------------------------------------------------------------------------------------------------------------------------------------

〈표 VII-2-8〉 전문가 인터뷰 결과: 주도권토론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평가	인터뷰 내용
주도권토론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개선하여 지속하는 것이 좋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도권토론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지할 필요 있음. 문제점 극복을 위해 사회자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 유권자들과의 문자소통, 사전 유권자 의견조사 등을 통해 사회자가 즉흥적인 방식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도권 토론은 필요함. 단, 사회자의 제지 및 경고 권한을 보장하여 공약 중심으로 토론이 전개되도록 적극 개입할 필요 있음. • 주도권토론이 어느 정도 필요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자나 패널이 후보자에게 질문을 유도하고 후보들이 원고 없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함. • 주도권토론을 통해 돌발적인 상황에서 후보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 감정적 대치 상황에서 후보자가 합의와 대안을 마련하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감정을 이성으로 전화시키는 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음. 주도권토론의 문제점은 사회자의 권한과 각 선거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결정 권한을 통해 통제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사회자 선택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함. • 주도권토론은 필요하지만 잘못 운영되면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의 주장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답변할 후보자에게 적당한 시간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하는 기술적인 차원의 방안 모색 필요함. • 주도권토론은 토론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필요함. 주도권토론 내에서도 참여자 수에 따라 다양한 포맷을 사용할 수 있음. 후보자가 2인일 경우는 개별심층 지정질문 포맷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 후보자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주도권토론의 장점이 부각되기도 하고 단점이 부각되기도 함. 주도권토론에서 이전에 발생한 대표적 예들(후보자의 홍보, 일방적 주장, 비방과 공격)의 사례집을 만들어 토론 참여 후보자들에게 사전 배포하여 관련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공지할 필요 있음. • 주도권토론 방식의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유권자의 알 권리나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함. 상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등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를 시청자들이 공유하도록 할 필요 있음.
주도권토론은 단점이 크므로 축소하고 다른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도권토론에서는 시간 제약 혹은 전략적 고려로 인해 질문을 받은 후보가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흑색선전을 공식적으로 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굳이 주도권 토론이라는 섹션을 따로 만들 것이 아니라 사회자가 개입할 여지를 남겨 둔 채 후보들 간 서로 토론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더 유용해 보임. 시간 배분을 적절하게 하는 선에서 후보들 간 재량적 토론 기회(공격 및 방어)를 최대한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봄. • 주도권토론은 유권자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단점도 명백하므로 대안으로서 후보자 간 자유토론의 확대를 제안함.

인터뷰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주도권토론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주도권토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응답자는 주도권토론의 단점이 크고 명백하기 때문에 주도권토론 방식보다는 시간 배분을 적절하게 하면서 후보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유토론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주도권토론 방식을 유지하되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개선 방안은 '사회자의 역할 강화'이다. 주도권토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사회자가 권한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자의 역량이 더 뛰어날 필요가 있어 사회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 사회자나 패널이 후보자에게 질문을 유도하고 후보자들은 원고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한편에서는 주도권을 쥐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써버리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주도권을 쥐 후보자가 답변할 후보자에게 적절한 답변시간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사회자의 역할 외에도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 등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으며 유권자들에게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주도권토론 시청 시에 유권자들이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주도권토론이 잘 못 활용된 경우들의 사례집을 만들어 사전에 후보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후보자를 교육하고 주도권토론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9) 현장감과 흥미가 있고 후보자 간 비교 용이한 토론회 진행방식

질문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현장감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면서 후보자들 사이의 우열을 가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토론회가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

현장감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후보자 간 우열을 가릴 수 있는 토론회 진행방식에 대해 전문가들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특히 다수의 전문가들이 유권자의 참여가 없는 현재 방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유권자 참여를 통해 현장감과 흥미를 유발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더 용이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유권자참여 방식으로는 타운홀미팅 방식, 시민과 전문가 패널 참여 방식, 현장에서 참여하여 질문하는 방식, SNS를 통해 질문하는 방식, 유권자들이 실시간으로 또는 토론 방청 후 후보자를 평가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제안되었다.

〈표 Ⅶ-2-9〉 전문가 인터뷰 결과: 현장감, 흥미유발, 후보자비교 용이한 토론회 진행방식

진행방식 제안	인터뷰 내용
자유토론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의 적극 역할을 전제로 특정 주제에 대한 자유토론은 주도권토론처럼 유권자의 관심을 제공하고 후보자별 입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주도권토론의 부정적 측면을 감소시킬 수 있음.
유권자참여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참여형 토론방식이 필요함. • 유권자 참여 방식의 하나로서 타운홀미팅 방식 고려 필요 • 시민·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후보자토론회에 참가시키는 방식. 언론기사 빅데이터 등을 제공하면서 패널이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이 가능함. • 현장 질문, SNS 질문, 후보자 평가 등에 유권자들이 참여하여 토론의 역동성을 제고함.
주도권토론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도권토론 방식이 현장감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데 유용함. 주도권토론 방식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스탠딩토론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감을 위해 스탠딩 토론회 방식을 고려할 만함. 다만 흥미를 추구하다 보면 내실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함. • 스탠딩 토론이나 후보자들이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패널들과 대화할 수 있는 형태 등은 보다 다이나믹하고 흥미를 유도할 수 있음.
이념적 시각이 다른 사회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차례의 후보자토론회를 전제로 한 번은 보수적 시각의 사회자, 다른 한 번은 진보적 시각의 사회자 선정하는 방식. 주관 방송사의 특성이 고려되는 미국의 대선 토론회 등에서 보이는 방식임.
화면의 시각화/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로만 진행되는 토론회는 흥미 유발이 어려움. 지역구 지도를 보면서 지역 공약과 관련된 정책 이야기를 하는 방법, 다양한 표와 그래프를 동원해 정책을 시각적으로 알리는 방법 활용. • 시청자들이 후보자와 공약, 토론 내용에 대해 인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자막을 통해 후보자의 이름과 정당, 현재 토론하고 있는 내용의 요약 등을 보여줄 필요 있음.
토론 장소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국 스튜디오 외에 대학이나 지역구 문화 공간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다양한 플랫폼 활용을 위한 제작과 편성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매체 환경에서 플랫폼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과 노출 가능 • 선관위에서 매체 전문가와 매체 편성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후보자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기획/편성/제작을 다양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선방위원회는 기존 토론 방식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역할 이상 하지 못함. 오늘날 매체 환경을 고려하고 이용자의 적극적 참여를 감안한 위원 구성과 매체 전문가들의 참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 있음.
다른 선거구와 비교 분석을 통한 관심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선거구 간 토론회 비교 분석 프로그램 제작 • 선거구 별 토론회 경쟁 콘텐츠 마련 • 지역선거구 토론회를 전체 광역 차원에서 방송

또한, 자유토론 방식의 활용, 주도권토론 방식의 개선, 토론회를 복수로 개최하고 이념적 시각이 다른 사회자가 번갈아 진행하는 방안, 그리고 후보자들이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패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스탠딩토론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이 현장감을 살리고 흥미

를 유발하며 후보자 간 비교가 용이한 토론회 형식으로 언급되었다. 더불어, 방송국 스튜디오에 국한된 토론회 장소의 다양화와 화면을 시각적으로 구성하는 방식 또한 중요한 지점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현재와 같은 다매체 환경에서 기존의 토론회 운영 방식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토론회 형식과 내용 및 편성을 보다 다양화하기 위해 매체 전문가와 편성 전문가가 지역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었으며, 선거구별 토론회 경쟁 콘텐츠를 마련하거나 선거구 간 토론회를 비교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식 등으로 관심을 유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1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사회자 역할 평가

질문	선생님께서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사회자 역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회자의 토론 개입 정도에 대해서도 함께 평가해 주세요.
----	--------------------------------------------------------------------------------

〈표 VII-2-10〉 전문가 인터뷰 결과: 사회자 역할 평가

사회자 역할	인터뷰 내용
최소한의 개입이 적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역할이 미미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선과 달리 국선에서는 전국 253개 선거구에서 형평성을 맞추고 비슷한 수준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기 위해 현재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함. •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후보자토론회에서는 사회자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함. 개입의 여지를 열어놓게 되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음.
사회자의 역할이 부족하며,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와 같이 진행과 시간 관리 정도의 사회자 역할은 객관성과 공정성은 담보할 수 있겠으나 지나치게 경직된 토론회로 만들고 심도 있는 토론을 어렵게 함. • 기계적인 중립을 넘어서 사회자가 적극 개입하여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특히 쟁점에 대해서는 사회자의 적극적인 개입 권한을 확대할 필요 있음. • 사회자에게 자율성을 주어 특정 주제나 이슈에 대해 질문하고 후보들을 자극하고 경합할 수 있게 만들 역할을 부여해야 함. 사회자의 책임성은 토론위원회의 사회자 선발과 역할 부여 과정에서 조율할 수 있음. 사회자의 역할과 선출방식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회자를 방송인이나 교수로 국한하지 않고 풀을 확대하거나 전문적인 사회자 풀을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있음. • 사회자가 지역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지역구별 사회자의 역량과 진행능력이 일관되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사회자 역할에 대해 인터뷰 응답자들은 대체로 그 역할이 미미했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일부 전문가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는

이렇게 최소화된 후보자의 역할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보인 사회자의 역할이 부족했으며 더 많은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사회자가 토론회 개입을 최소화하는 현재와 같은 형태는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토론의 역동성과 질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인터뷰 응답자들은 토론회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사회자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회자가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사회자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이 주어져서 더욱 적극적으로 토론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회자의 능력과 자질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사회자 풀을 구성하거나 사회자 선출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11) 후보자토론회에 유권자 참여에 대한 의견과 참여방식

질문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사회자와 후보자만으로 진행된 토론회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유권자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권자가 토론에 참여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

인터뷰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유권자 참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응답들이 대부분이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유권자들이 스스로 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후보자들에게 질의하는 방식을 선호하였지만, 동시에 어떤 유권자들이 질문을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패널 선정 방식이 매우 고도화될 필요가 있고 토론의제설정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SNS나 SNS 영상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토론회 중에 후보자와 유권자 간 또 유권자와 유권자 간 활발한 상호작용이 함께 이루어지는 방식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더불어 유권자와 후보자의 입장을 바꾸는 방식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자는 제안도 있었다.

〈표 Ⅶ-2-11〉 전문가 인터뷰 결과: 유권자 참여에 대한 의견

유권자 참여	인터뷰 내용
유권자 참여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직 후보자토론회가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만큼 현행 제도의 안착에 더 힘을 쏟는 것이 필요함. 유권자 참여는 약간 시기상조임. • 유권자가 참여한다고 하여도 현행 방식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유권자의 질문도 준비된 질문일 것이므로 이는 사회자에 의한 질문과 큰 차이가 없을 것임. 단, 토론방식의 다양성 측면에서 유권자 참여를 시도해볼 만함.
유권자의 간접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방송토론위에서 시민의제를 사전 공모하는 방식 • UCC 등을 활용한 무작위 시민의제 토론
유권자의 직접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권자들이 시민의제를 선정하여 이를 직접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방식. 선거 주체인 유권자의 의제설정권을 회복하는 민주적 포맷. • 질문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참여 동기를 자극하는 것이 필요함. • 유권자에게 단순한 방청객 역할만이 아니라 직접 질문할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이 경우 질 높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할 필요 있음. • 사전에 질문내용을 받는 방식과 현장에서 즉석으로 질문할 수 있는 타운홀미팅 방식의 혼용이 가능함. 이 경우 사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SNS나 SNS 영상을 통한 실시간 질문을 활용하는 방식. • 현재의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간 상호 노출과 소통 기회가 없음. 실시간 후보자토론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유권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며 참여하는 과정이 필요함. • 유권자 참여가 필요하지만 어떤 유권자를 섭외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함. (예) 참여를 원하는 유권자들에게 지역구 현안 및 후보들에 대한 간단한 평가 리포트를 받아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선발하는 방식 • 토론 참여 패널을 사전에 공모하여 심사 후 선정하는 방식 또는 해당 지역구 정당 추천, 시민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패널을 구성하는 방식 등도 고려할 만함. • 유권자와 후보자의 입장을 바꾸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 함. 특정 쟁점에 대해 후보자가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유권자에게 질문을 하면 유권자가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후보자의 입장을 지지/반박/보완할 수 있는 방식. 이를 통해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 능력 및 비전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음.

12) 후보자토론회가 핵심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

질문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보다 큰 효과를 얻기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	---------------------------------------------------------------------

마지막으로, 인터뷰 응답자들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보다 큰 효과를 얻기 위해 핵심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해 다양한 차원의 응답을 제시하였다. 인터뷰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후보자토론회를 개선하기 위해 변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하는 운영 개선과 제도적 보완을 제안하는 목소리부터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새로운 후보자토론회

형식의 개발, 사회자의 역량 강화, 홍보 강화, 쟁점 이슈에 대한 자유토론 방식의 채택, 유권자의 참여 확대, 시민의제와 논쟁적 의제 선정, 후보자토론회 방송의 황금시간대 편성과 공중파를 통한 방송, 토론회 횟수의 증대 등을 핵심적인 개선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표 Ⅶ-2-12〉 전문가 인터뷰 결과: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핵심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

유권자 참여	인터뷰 내용
사회적 변화에 따른 개혁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 진행, 편성과 유통 전반에 걸친 개혁이 논의될 필요 있음. • 변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후보자토론회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토론회 운영을 위한 고민이 필요함.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새로운 토론회 형식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상호간 탄력 있고 긴장감 있는 대결을 느낄 수 있는 형식을 개발하여 흥미로움과 역동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함. 토론회 형식은 선거 수준, 토론 참여 후보자 숫자, 토론의 주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함.
사회자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들 간 정책 입장 차이가 잘 들어날 수 있는 토론이 되기 위해 사회자의 역량이 가장 중요함. 사회자 풀을 만들어 사회자를 양성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전문 사회자를 따로 양성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 언론인 중에서 좋은 사회자 가능성이 보이는 인사들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부여하여 전문 사회자로 만드는 방식 선택할 수 있음.
시청률 제고를 위한 홍보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러 미디어 채널을 통해 다각적으로 보도되는 것이 중요함. 지역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보도해야 함. 관련 보도 자료를 미리 제작하고 토론회 이후에도 토론 결과에 대한 자세한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며 적극적인 언론 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함. 다양한 매체를 홍보에 활용할 필요 있음.
쟁점 이슈에 대한 자유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권자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쟁점 이슈에 대한 자유토론으로 후보자토론회의 역동성을 제고할 필요 있음.
유권자의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회 형식 개선을 통해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직접적인 접촉면을 넓힐 필요가 있음. 토론회 과정에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 있음. • 토론회에 유권자가 참여하고 토론회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있음.
시민의제 및 논쟁적 의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제를 수용한 후보자토론회가 되어야 함. •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토론주제를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후보자 간 정책 차이를 뚜렷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논쟁적인 의제를 선정해야 함. 이를 위해 시민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의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토론회 편성 시간과 방송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금시간대에 편성해야 함. • 다수 유권자들이 시청가능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방송해야 함.
토론회 횟수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토론회 횟수를 늘려야 함.

VIII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VIII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효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과거의 국회의원선거와 다른 환경에서 실시되었다. 정당의 창당과 합당 및 위성정당의 창당 등으로 선거정보 획득의 필요성은 더 높아졌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대면 선거운동의 제한으로 유권자들이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정보를 얻을 기회는 오히려 축소되었다. 이 때문에 후보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후보자토론회의 역할이 기대되는 선거였다. 특히 선거 마지막까지 경합지역이 많은 가운데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유권자들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큰 관심을 표명한 만큼 이러한 유권자의 관심이 선거 캠페인 막판에 실시된 후보자토론회로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유권자들은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은 다시 선거에 대한 대화와 투표참여의 확대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관심과 효과를 반영하듯 후보자토론회 개최 전에 실시된 조사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들은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 유용성, 흥미성 등을 이전의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공정성에 있어서는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에 긍정평가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후보자토론회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도 증가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토론회의 선거쟁점에 대한 정보 획득과 관련한 유용성에 대해 시청 후(사후조사)에 시청 전(사전조사)보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전조사에 대한 평가는 지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이지만 사실상 유권자들의 토론회 유용성에 대한 기대감을 의미한다고 할 때,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그 기대에 못 미쳤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유권자들은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물론 이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와 비교할 때는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여전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과 흥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크게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낮은 시청률은 후보자토론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과 함께 유용성과 흥미성에 대한 낮은 기대는 후보자토론회의 낮은 시청률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토론회가 보다 많은 시청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유용성과 흥미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한편,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은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 증가, 후보자 공약과 선거 이슈에 대한 인지, 선거쟁점에 관한 정보 획득, 후보 간 자질, 정책공약 및 정책수행 능력의 비교를 위해 유의미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그 효과의 크기를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과거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 효과로서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후보자토론회 효과들이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형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에게는 후보자와 선거에 대한 정보의 습득이라는 유용성을, 후보자에게는 호감도 형성이라는 혜택을 가져오는 중요한 기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유권자들의 후보자토론회를 통한 정보 습득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후보자의 자질 검증에는 매우 유용한 기제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정책수행 능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론회 시청 후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조사의 응답자들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 선택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 정책 및 공약이라고 응답했던 점을 고려하면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자의 정책을 검증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의 적극적 모색이 요구된다 하겠다.

2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후보자토론회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본 연구에서는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후보자토론회의 형식과 진행방식에 대한 조사를 진

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10인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과 흥미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 후보자토론회 횟수와 방영시간대 및 방송채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낮은 시청률일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들은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들의 후보자 및 선거쟁점에 대한 인지와 선거에 대한 관심도 증가 및 후보자의 자질 검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는 시청자 수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토론회의 효과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가장 일차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후보자토론회 횟수를 늘려서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드는 방법이 있다.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시청자들 중 약 41%는 지역구별 한 차례의 후보자토론회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약 59%는 충분하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들은 한 차례의 후보자토론회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능력 및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토론회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 더 많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후보자토론회의 형식을 고수하면서 단지 횟수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시도를 전제로 횟수를 늘리는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동시에 지역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여 지역구별로 진행되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운영 및 방송편성 체계로서는 토론회의 횟수를 늘리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다는 점 또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보자토론회 횟수가 늘어나야 할 필요성이 크다면 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유권자 참여형 토론회 방식이나 정책별, 쟁점별 토론회 방식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크다면 후보자토론회 횟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후보자토론회 횟수를 늘리는 경우, 방송 매체가 다양화된 만큼 후보자토론회가 반드시 TV를 통해서만 방송되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지역사회의 오프라인에서 개최하는 토론회를 온라인을 통해 방송하는 방식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오히려 이 방식에서 보다 자유롭고 참여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지역 방송사 및 주요단체 등이 함께 토론회 횟수의 증가 등 후보자토론회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마도 토론회의 방송시간대와 방송채널일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예외 없이 시청자의 접근성이 낮은 후보자토론회 방송시간대와 (수도권의 경우) 지역 케이블 채널을 통한 방송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사실상 어렵다 할 수 있다. 방송시간대와 방송채널의 문제는 전적으로 공영방송사들의 선택에서 오는 문제이다. 수도권의 공중파 방송사들은 대선과 같은 흥행과 시청률이 보장되지 않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편성·방송하기를 꺼린다. 지역에서는 공중파 방송사들이 후보자토론회를 편성하고는 있지만 광고 수익을 고려하여 황금시간대가 아닌 시청자들 수가 적은 시간에 후보자토론회를 배치하고 있다. 방송사의 이와 같은 정책은 후보자토론회의 시청을 제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공영방송은 시청률 지상주의를 벗어나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공중파 방송사들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공의 필요 측면에서 후보자토론회 방송 편성을 피하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황금시간대를 할애하여 가장 많은 시청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토론회 형식 및 진행방식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론회가 현장감을 가지고 흥미롭게 진행되면서 후보자들 간 우위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형식과 진행방식이 필요하다. 현재의 후보자토론회는 과거에 비해서는 흥미성과 유용성 및 효과성 면에서 크게 개선된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 토론회의 흥미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진행방식을 혼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문가 인터뷰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진행방식마다 뚜렷한 차별성이 없어 흥미도 제고에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다양한 진행방식의 혼합으로 답변시간을 짧게 가질 수밖에 없어 보충질의/답변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알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기도 하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결과, 가장 공통적으로 언급·제안되는 후보자토론회 형식은 유권자 참여형 토론회이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약 41%가 '유권자들의 질문에 후보자가 답하는 형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로 많은 응답자들이 선호한 '후보자들끼리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약 30%)보다 약 11%p 이상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현재의 토론회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역동성과 흥미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유권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는 현재와 같은 토론회의 안정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현장감과 역동성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유권자가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사전에 유권자의 질문사항을 조사한 후에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방식과 토론회 방청객이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방식에 대해 유사한 정도의 선호를 보였고 SNS를 통한 실시간 참여 방식도 상당히 선호하였다.

전문가들 또한 사전에 질문을 받는 방식과 현장에서 즉석으로 질문을 하는 타운홀미팅 방식, SNS를 활용한 참여 등을 적극 제안하였다. 후보자가 무대에서 자유롭게 패널들과 대화하는 스탠딩 형식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권자 참여형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사회자의 역할과 참여 유권자의 선정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회자 선택과 토론 참여 패널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 신중해야 함을 함께 지적하였다. 한편, 전문가 집단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듯이, 유권자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질문의 발굴과 의제 설정 과정에서부터 유권자의 참여가 전제될 때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시민참여형 후보자토론회가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유권자 참여형 토론회 외에 전문가들이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자유토론방식을 채택하고 확대하자는 것이다. 자유토론은 후보자토론회의 현장감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및 능력을 다각도로 검증하는데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토론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후보자 간 자유토론은 유권자의 관심과 흥미를 제고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이며 동시에 주도권토론과 같이 한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토론회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도권토론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도권토론에 대한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의 선호는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아마도 주도권토론이 주도권을 쥔 후보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홍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공격 등의 시간으로 활용되는 현실에서 토론회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재의 후보자토론회가 역동성과 흥미가 떨어진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토론회의 역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도권토론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주도권토론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사회자가 적극 개입하여 주도권토론의 문제점을 제한하는 방식의 토론이 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후보자 상호간 긴장감 있는 대결을 느낄 수 있는 형식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양한 형식의 개발을 통해 토론회의 흥미성과 역동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그간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공정성, 중립성, 안정

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이제는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보다 더 경합적이고 격렬하며 심도 있고 역동적인 후보자 간 토론을 가능하게 하자는 의미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질문 내용에서부터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논쟁적 의제가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보자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토론회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토론에 참여하는 후보자의 역량이 높아져야 하며 동시에 토론회를 역동적으로 이끌고 가면서도 균형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자의 역량이 함께 필요하다.

한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SNS 등 뉴미디어 플랫폼을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진행방식 또한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뉴미디어를 통해 유권자들의 질문을 받는 것과 같은 단순 활용 차원을 넘어서, 매체 간 통합적 활용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만큼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유권자 간 소통과 유권자들의 실시간 평가 및 참여 등 매체 통합적 토론회 방식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이 경우에도 다양한 매체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토론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자의 역량이 요구된다.

이렇게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과 역동성을 높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제안되는 후보자토론회 형식들은 모두 사회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후보자토론회의 사회자 역할에 대한 질문에서 설문 응답자(후보자토론회 시청자)의 약 77%는 사회자의 토론 개입 정도가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부분 현재 후보자토론회 사회자의 역할이 크게 부족하며 토론에 보다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물론 전문가들 중 일부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사회자의 역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으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사회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현재와 같은 사회자의 최소 개입과 기계적 중립은 토론회를 지나치게 경직시키고 흥미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안적 형식으로 제안되고 있는 유권자 참여형 토론이나 자유토론 방식을 활용하고 주도권토론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자의 적극적 역할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자의 역할과 선출 방식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제기된다. 사회자가 토론에 적극 개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자의 역량과 진행능력이 뛰어나야 하며 사회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도 또한 높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사회자 풀을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지만, 253개 지역구에서 공정성을 해치지 않고 토론의 질을 높게 유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토론의 역동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역량 있는 사회자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라 하겠다. 사회자의 역할과 더불어 역량 있는 사회자 양성과 선정을 위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 변화된 환경에 따른 후보자토론회 개선 방안

본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사회적 환경과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후보자토론회의 제작, 진행, 편성, 유통 전반에 걸쳐 개혁이 논의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후보자토론회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토론회의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후보자토론회의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 사회의 각 영역에서 시민의 참여가 크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유권자 참여형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권자의 참여는 토론 과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토론회의 기획과 준비과정에서부터 가능하다. 현재 각 지역의 후보자토론회 기획과 운영은 지역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지만, 후보자토론회의 기획 및 질문 설정 과정이나 의제 설정과정에 주민의 참여는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들은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되지만 대부분 지역의 유력 인사들로 구성되는 상황이라 지역민의 대표성을 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시민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사회적 환경에서 지역주민이 토론회 관객의 자격으로도 참여를 하지 않는 상황은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유권자들이 단순 관객이나 질문자로 참여하는 방식을 넘어 기획 단계 또는 질문 및 의제 설정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이를 위해 시민과 각계각층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의제선정위원회(가칭)를 운영하여 의제와 질문의 질을 높이고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한편,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있듯이, 지역별로 후보자토론회 형식과 진행방식, 시간 등에 대한 자율성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 볼 사항이다. 현재는 각 지역에서 실시되는 후보자토론회가 진행의 순서만 다를 뿐 거의 유사한 포맷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한 가운데, 지역 주민이 진행방식을 선택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가장 흥미롭고 유용한 방식을 마련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후보자토론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그리고 후보자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오프라인에서 시도해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TV 방송을 위한 최적화된 후보자토론회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후보자토론회의 질과 효과를 제고하면서 동시에 유권자의 참여와 후보자-유권자 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음으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와 같은 다매체 환경에서는 플랫폼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제작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후보자토론회 기획 단계에서부터 미디어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현재 지역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기존 토론회 방식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5년 한국 선거에 처음 도입된 이래 후보자토론회는 공정성과 신뢰성, 유용성과 흥미성 등 모든 면에서 꾸준히 개선되어 왔지만 최근에 급격히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별로 후보자토론회 진행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동시에 미디어 전문가들을 각 지역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키거나 또는 미디어 전문가들과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후보자토론회 기획 단계에서부터 미디어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타 제안

본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과 여러 미디어 플랫폼의 활용 이외에도 후보자토론회가 가능한 지점부터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화면의 구성에서부터 변화가 요구된다. 유권자들이 다양한 미디어와 영상에 하루 종일 노출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할 때 지역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사회자와 후보자가 전형적인 모습으로 앉아서 진행하는 현재의 화면구성으로는 유권자들을 TV 앞으로 유인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시청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보다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화면구성이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시청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회를 주목하여 시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보자가 발언을 할 때마다 후보자의 약력에 대한 정보를 자막으로 화면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후보자들의 정책을 다양한 표과 그래프를 활용하여 화면에 제공하는 것도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유용할 것이다. 한 전문가가 제안하고 있듯이, 후보자의 공약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언 중인 후보자의 QR코드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 현재 후보자토론회는 다양한 방식을 혼합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이 그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진행방식에 대한 설명을 자막으로 제공함으로써 토론회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제고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화면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방송국 스튜디오를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고 보다 역동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장소의 선택은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또한 필수적이다.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경우 방송 홍보가 유권자들에

게 충분히 도달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여러 미디어 채널을 활용한 다각적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방송을 비롯한 지역 언론 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후보자토론회 홍보를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SNS 등을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 실시 전부터 토론회 과정 그리고 토론회 이후에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도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일 것이다.

더불어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시청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한 홍보의 차원이 아니라 지역 언론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후보자토론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보자토론회 이후에도 경마식 보도를 지양하고 그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상세히 알리는 것이 지역 언론의 책임일 것이다. 이를 통해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만 시청한 유권자들, 그리고 시청은 하였으나 토론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시청자들에게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보완적 역할을 지역 언론이 할 수 있을 때 후보자토론회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보자토론회가 선거쟁점과 후보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토론에 참여한 후보자들이 질 높은 토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후보자들의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공격, 추상적이거나 주제를 벗어난 질문과 답변, 거짓 정보의 제공, 시간의 부적절한 이용, 규칙의 미준수 등은 후보자토론회의 질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후보자토론회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질적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후보자토론회 진행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SNS 등을 통해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후보자토론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구교태·김관규·이준웅. 2007. “선거방송토론의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1권 2호, 203-225.
- 권혁남. 2010. “유권자 밀착형 선거방송토론 방안 연구.” 『언론과학연구』 10권 2호, 5-38.
- 김경호. 20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세미나자료. 20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백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김하나·오창우. 2016.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TV 토론의 효과에 대한 연구: 20대 유권자의 정치적 냉소주의와 정치효능감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42, 117-149.
- 김연종. 200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TV 방송토론의 형식과 내용: 3개 토론회 사례 분석.” 『한국소통학보』 11권, 254-292.
- 나은영. 2002.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서울: 한나래
- 문성철·양문희. 2009. “대통령선거 토론 프로그램 시청이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방송학보』 23권 1호, 131-168.
- 박연진·김관규. 2014. “TV토론의 후보자 설득 전략과 효과에 관한 연구: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TV토론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4권 4호, 77-105.
- 서복경. 2012. “19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선거방송토론 실시현황과 시청자층 분석.” 『선거연구』 2권 2호, 157-190.
-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연구.” 2016년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송종길. 2006. “2006년 동시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토론형식 및 의제 평가.” 학회 발표문.
- 송종길·박상호. 2006. “대통령 후보 TV토론의 법적·제도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방송문화연구』 18권 2호, 37-64.
- 송종길·홍성철·오경수(미디어전략연구소). 2014.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TV토론 평가 및 효과 연구.” 2014년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양승찬. 1999. “텔레비전 선거토론 방송의 영향력 연구: 후보자 평가변화, 정책관련 지식, 정치과정 참여를 중심으로.” 『방송연구』 48호, 210-246.
- 양승찬·이미나·신지희. 2017. “미디어 이용과 TV토론 이용의 효과 연구: 후보자 평가, 정치지식, 정치효능감과 여론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0집 2호, 41-71.
- 오창우. 2012. “주도권토론 방식의 활용에 관한 연구: 6.2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31권 1호, 211-228.

- 이소영·강우진·김형철·박영득·이한수(한국정치학회).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연구.” 2017년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이소영·이재묵·이한수·한정택(한국정치학회).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연구: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2018년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이수범·박정의. 2008.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 효과 분석.” 2008년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이재묵. 2017. “19대 대선과 TV 토론회: 제도 평가와 효과 분석.” 『현대사회과학연구』 27-47.
- 이종희·오지양. 2011. “후보자 TV토론회 토론 포맷 연구: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55권 1호, 47-78.
- 이준용 1999. “텔레비전 토론의 정치적 향력: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12권. 253-297.
- 이준용. 2003. “텔레비전 토론이 후보 이미지, 이슈 근접성, 후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성곡논총』 34권 2호, 285-332. 정성호. 2010. “6.2 지방선거에 나타난 TV토론 포맷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19호, 233-283
- 이한수. 2018. “선거방송토론회에 대한 유권자 평가 분석.” 『미래정치연구』 8(3): 5-33.
- 정성호, 이화행. 2006. “TV토론이 유권자의 인지효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광역단체장 선거 경선 TV토론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4호, 63-87.
- 정인숙. 1998. “인물 품평회에 그친 TV합동토론회.” 『저널리즘 비평』 23권, 20-25.
- 정창화·윤종빈·조지현·김연중·강내원(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 개최결과 평가.” 2008년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16.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최락인. 2017. “후보 및 정책 검증과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한 선거방송토론 구축 방안.”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7), 773-782
- 최지원·허경호. 2014. “TV토론 진행자의 진행 스타일이 진행자에 대한 공신력과 수용자의 태도 및 시청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남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25권, 255-307.
- 한정택. 2014. “선거 캠페인의 특징과 유권자 반응: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TV 토론회 효과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4권 3호, 247-269.
- 한정택·이재묵·조진만. 2013.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분석: 제도, 현실, 효과.” 『한국정당학회보』12권 2호, 37-72.
- Benoit, William L., Mitchell S. McKinney and R. Lance Holbert. 2001. “Beyond Learning and Persona: Extending the Scope of Presidential Debate Effects.” *Communication Monographs* 68.

- Best, S. J., and Hubbard, C. 1999. "Maximizing 'minimal effects': The impact of early primary season debates on voter preferences." *American Political Quarterly* 27: 450-467.
- Holbrook, R. Lance, William Benoit, Glenn Hansen and Wei-Chun Wen. 2002. "The Role of Communication in the Formation of an Issue-Based Citizenry." *Communication Monographs* 69.
- Holbrook, R. Lance, 1999. "Political Learning from Presidential Debates." *Political Behavior* 21(1).
- Holbrook, R. Lance. 2002. "Presidential Campaigns and the Knowledge Gap." *Political Communication* 19(4).
- Kraus, S. 1988.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and Public Policy*. NJ: Lawrence Erlbaum.
- Lee, Han Soo, and Jae Mook Lee. 2015.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and Learning in the 2012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Does Political Knowledge Condition Information Acqui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9: 1-20.
- Maurer, Mauer and Carsten Reinemann 2006. "Learning versus Knowing Effects of Misinformation in Televised Debates," *Communication Research* 33(6)
- McKinney, Mitchell S., and Leslie A. Rill. 2009. "Not Your Parents' Presidential Debates: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CNN/YouTube Debates on Young Citizens' Civic Engagement." *Communication Studies* 60(4): 392-406.
- McKinney, Mitchell S., and Sumana Chattopadhyay. 2007. "Political Engagement through Debates: Young Citizens' Reactions to the 2004 Presidential Debat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0(9): 1093-1111.

부록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사전조사·사후조사 설문지

대상지역

1. 서울 종로구
2. 서울 강남구갑
3. 서울 동작구을
4. 서울 동대문구을
5. 서울 관악구을
6. 부산 북구강서구갑
7. 대구 수성갑
8. 대전 중구
9. 광주 북구갑
10. 인천 연수구을
11. 경기 안양시 동안을
12. 경기 고양시정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사전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 전화번호는 02-2052-6700 입니다.

SQ1. 선생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대전 5. 경기 6. 광주 7. 인천
8. 기타지역 (☞ 응답 중단)

SQ1-1. 선생님의 거주지 세부 지역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해당 선거구 2. 기타지역 (☞ 응답 중단)

SQ1-1-1. 선생님의 거주지 세부 지역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 2. 기타지역 (☞ 응답 중단)

SQ2. 성별 1. 남자 2. 여자

SQ3. 선생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2020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연령을 응답해 주십시오.

_____세 (☞ 2020년 4월 16일 현재 만 18세 미만은 응답 중단)

1. 만 18-29세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SQ4. 선생님께서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하실 생각이십니까?

1.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2. 가급적 투표할 것이다
3. 별로 투표하고 싶지 않다
4. 투표할 의사가 전혀 없다
9. 모름

SQ5. 선생님께서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1. 관심이 매우 많다
2. 관심이 어느 정도 있다
3. 관심이 별로 없다
4. 관심이 전혀 없다
9. 모름

SQ6. 선생님의 선거구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토론회를 TV로 방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시청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 응답 중단)

SQ7. 엠브레인퍼블릭은 이번 조사를 포함,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이후 추가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조사를 포함, 총 2회 진행 예정인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 응답 중단)

♣ 다음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대해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Q01. 선생님께서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하시겠습니까?

1. 정책·공약
2. 소속 정당
3. 이념
4. 도덕성
5. 납세/병역/전과
6. 후보의 능력
7. 후보의 경력
8. 주변의 평가
9. 기타 () (▶ 구체적 응답 필요)
10. 모름

Q02. 선생님께서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선생님의 지역구 주요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1. 잘 안다
2. 어느 정도 안다
3. 별로 모른다
4. 전혀 모른다

♣ 다음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해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현재 선생님 지역구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는 1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Q03. 선생님께서는 현재 1회로 개최 예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횟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충분하다 (☞Q04로)
2. 부족하다 (☞Q03-1로)
9. 모름

Q03-1. (부족하다면)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자토론회는 총 몇 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

Q04. 선생님께서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반드시 필요하다
2. 어느 정도 필요하다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9. 모름

Q05. 선생님께서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선거정보를 얻는데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효과적이다
2. 어느 정도 효과적이다
3.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4.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9. 모름

Q06.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8.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본 적이 없다
9. 모름

Q07. 지금까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흥미롭게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8.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본 적이 없다
9. 모름

Q08. 선생님께서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고 흥미로운 토론회가 되기 위해서 사회자는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후보자에게 발언기회를 부여하고 발언시간을 조정하는 단순진행 역할
2. 단순진행 역할을 중심으로 하되 가끔 보충질문을 던지는 소극적 토론개입 역할
3. 주제를 제시하거나 자유롭게 보충질문을 하는 적극적 토론개입 역할
9. 모름

Q09. 후보자토론회에서는 몇 가지 다른 토론회 진행방식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떤 토론회 진행방식을 선호하십니까?

1. 후보자들이 정책 발표 후 후보자들끼리 질문하고 답변하는 일대일 정책검증 형식
2. 후보자 간 자유토론으로 진행되는 방식
3. 각 후보자가 일정 시간에 토론 주도권을 쥐고 토론을 주도하는 주도권 토론 방식
4. 방청객 또는 유권자의 질문에 후보자가 답하는 방식
5. 기타 ()
9. 모름

♣ 다음은 역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Q10.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또는 과거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있다 (☞Q10-1과 Q10-2로)
2. 없다 (☞Q11로)
9. 모름

Q10-1. (있으시다면)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또는 과거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선생님의 투표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
2.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8. 당시에는 투표권이 없었기에 영향을 미쳤는지 말할 수 없다
9. 모름

Q10-2.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신 적이 있다면) 당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선생님의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
2.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8. 당시에는 투표권이 없었기에 영향을 미쳤는지 말할 수 없다
9. 모름

♣ 다음은 선거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여쭙보겠습니다.

Q11. 선생님께서는 누구에게 표를 던지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터 5까지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여기서 1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5는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는가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기	1 ----- 2 ----- 3 ----- 4 ----- 5	9(모름)
----	-----------------------------------	-------

Q12.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터 5까지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여기서 1은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5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기	1 ----- 2 ----- 3 ----- 4 ----- 5	9(모름)
----	-----------------------------------	-------

※ 이제 끝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

DQ1. 정치에서 사람들은 보통 진보와 보수를 구분합니다. 숫자 0부터 10까지 중 선생님의 정치적 이념 성향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0에 가까울수록 진보적, 5는 중도적, 10에 가까울수록 보수적입니다.

- ① 0 ② 1 ③ 2 ④ 3 ⑤ 4 ⑥ 5 ⑦ 6 ⑧ 7 ⑨ 8 ⑩ 9 ⑪ 10 ⑫ 모름

DQ2. 선생님께서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1. 종이 신문 (오프라인에서 종이신문을 이용)
2. 인터넷 신문 (개별 언론사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이용)
3. 인터넷 포털 (네이버, 다음 등)
4. 지상파 방송 (KBS, MBC, SBS)
5. 케이블 및 위성 방송 (YTN, 연합뉴스TV 등 뉴스 채널 포함)
6.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채널A, MBN)
7. 종합편성채널 (JTBC)
8. SNS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 밴드 등)
9. 유튜브
10. 라디오 방송
11. 모름

DQ3. 선생님께서는 평소 주변 사람들과 이번 선거와 정치에 대해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으십니까?

1. 매우 많이 했다 2. 조금 했다 3. 별로 하지 않았다 4. 전혀 하지 않았다

DQ4. 선생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 중이시면 '재학 중'을 선택해 주십시오.

1. 초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재학 중 4. 고등학교 졸업
5. 대학교 재학 중 6. 대학교 졸업 7. 대학원 이상 8. 기타

DQ5.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농업/임업/어업 (☞ DQ6 으로)
2. 자영업 (상업, 소규모 장사, 개인택시운전사 등) (☞ DQ6 으로)
3. 판매/영업/서비스직 (상점 점원, 세일즈맨, 방문 판매원, 미용사 등) (☞ DQ5-1 로)
4. 기능/숙련직 (운전기사, 세탁, 선반, 목공, 기능공 등) (☞ DQ5-1 로)
5. 생산/노무직 (제조업 생산직, 현장직업, 일용노무직, 청소관리, 경비원 등) (☞ DQ5-1 로)
6. 사무직 (차장이하 사무직, 초중고 교사, 6급이하 공무원) (☞ DQ5-1 로)
7. 경영/관리직 (5급이상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 DQ5-1 로)
8. 전문/자유직 (변호사, 의사, 건축사, 교수, 예술가, 종교지도자 등) (☞ DQ5-1 로)
9. 가정주부 (가사와 육아만 하는 전업주부) (☞ DQ6 으로)
10. 학생 (☞ DQ6 으로)
11. 무직 (☞ DQ6 으로)
12. 기타 (☞ DQ6 으로)
13. 잘모름 (☞ DQ6 으로)

DQ11. 선생님께서는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때 어느 후보에 투표하셨습니다?

1. 문재인 2. 홍준표 3. 안철수 4. 유승민 5. 심상정
6. 기타후보 7. 기권했음 8. 투표권이 없었음 9. 모름/밝힐 수 없음

DQ12. 선생님께서는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어느 후보에 투표하셨습니다? (지역 별로 차이) - 서울의 경우

1. 박원순 2. 김문수 3. 안철수 4. 김종민 5. 기타후보
6. 기권했음 7. 투표권이 없었음 8. 모름/밝힐 수 없음

참조: 지역별 제7회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 (조사회사 참조 사항)

시도	1	2	3	4
서울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김종민
부산	오거돈	서병수	이성권	박주미
대구	임대윤	권영진	김형기	
대전	허태정	박성호	남총희	김윤기
광주	이용섭	나경채	전덕영	
인천	박남춘	유정복	문병호	김응호
경기	이재명	남경필	김영환	이홍우

DQ11. 선생님의 고향은 어느 지역입니까?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세종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7. 기타(이북) 18. 기타(해외)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Q02. (시청자만) 선생님께서는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얼마나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1. 많은 관심을 갖고 보았다.
2.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보았다.
3.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보았다.
4. 특별한 관심 없이 지나치며 보았다.

Q03. (시청자/미시청자) 선생님께서는 지역구별로 한 차례씩 진행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1. 충분했다 (☞Q04로)
2. 부족했다 (☞Q03-1로)

Q03-1. 부족했다면, 토론회를 몇 회로 늘려야 할까요?

(_____)회

Q04. (지역별로 다르게, 시청자/미시청자)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약 (지역별 다름) 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시간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 (☞Q04-1로)
2.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Q05로)
3. 시간을 줄여야 한다 (☞Q04-1로)
9. 모름

Q04-1. 시간을 줄이거나 늘려야 한다면, 토론회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_____ 시간 _____ 분)

지역별 후보자토론회 진행 시간

서울 종로구	강남갑	동작을	동대문 을	관악을	부산 북강서갑
1시간 10분	1시간 14분	1시간 17분	1시간 10분	1시간 27분	57분
대구 수성갑	광주 북갑	대전 중구	인천 연수을	경기안양동안을	경기 고양정
52분	1시간 40분	52분	1시간 27분	1시간 22분	1시간 14분

Q05. (시청자/미시청자)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떠한 후보자토론회 유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후보자들끼리 질문하고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
2. 유권자의 질문에 후보자가 답변하는 형식
3. 사회자의 질문에 후보자가 답변하는 형식
4. 전문가의 질문에 후보자가 답변하는 형식

Q05-1. (시청자/미시청자) 선생님께서는 후보자 검증을 위해 다음 중 어떤 상호토론방식을 선호하십니까?

1. 후보자들이 정책(공약) 발표 후 후보자 간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등의 정책검증 형식
2. 사회자가 제시하는 공통질문에 대해 후보자들이 답변하고 상호 보충 질문하는 형식
3. 각 후보자가 일정 시간 질문 권한 등 토론의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후보자를 지명하여 토론하는 주도권토론 방식
4. 기타 ()
9. 모름

Q05-2. (시청자/미시청자) 선생님께서는 각 후보자들이 정책 발표 후 후보자들끼리 질문하고 답변하는 정책검증토론 방식이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상호 비교하는데 어느 정도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유용하다.
2. 어느 정도 유용하다.
3. 별로 유용하지 않다.
4. 전혀 유용하지 않다.
9. 모름

Q05-3. (시청자/미시청자) 선생님께서는 각 후보자가 일정 시간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후보자를 지명하여 토론하는 주도권토론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바람직한 방식이다.
2. 어느 정도 바람직한 방식이다.
3.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다.
4.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다.
9. 모름

Q06. (시청자만)선생님께서 시청하신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사회자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토론에 지나치게 많이 개입했다.
2. 토론에 적당히 개입하면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했다.
3. 토론회 진행 등 역할이 미숙했다.
9. 모름

Q07. (시청자/미시청자) 선생님께서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유권자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 유권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Q07-1로)
2. 유권자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다 (☞Q08-1로)

Q7-1. (시청자/미시청자) 선생님께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유권자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방식의 참여를 선호하시는지요?

1. 사전에 유권자 질문사항을 조사한 후 후보자에게 질의
2. 토론회 중간에 즉석 전화 통화
3. 토론회 방청객이 후보자에게 질문
4. SNS를 통한 실시간 참여
5. 기타()
9. 모름

Q12. (시청자만)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을 통해 선생님의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높아졌다.
2. 조금 높아졌다
3. 변화가 없었다
4. 조금 낮아졌다
5. 매우 낮아졌다

Q13. (시청자만) 선생님께서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 이번 선거와 후보자토론에 대한 대화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 매우 많이 했다
2. 조금 했다
3. 별로 하지 않았다
4. 전혀 하지 않았다

Q14-1. (시청자만) 선생님께서는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이번 선거의 쟁점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효과적이었다
2.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다
3.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다
4.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다
9. 모름

Q14-2. (시청자만) 선생님께서는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 모름

Q14-3. (시청자만) 선생님께서는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흥미롭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 모름

♣ 다음은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Q19. (시청자/미시청자) 선생님께서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하셨습니다까?

1. 투표했다(☞Q19-1로)
2. 투표하지 않았다(☞Q20으로)

Q19-1. (시청자/미시청자) 하셨다면, 선생님께서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셨습니다까?
(지역별로 후보이름 변경)

- 1.
- 2.
- 3.
- 4.
5. 기타후보 ()
9. 모름

Q19-2. (시청자만) 이번 후보자토론회가 선생님께서 후보를 선택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1.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
2. 영향을 미친 편이다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Q19-3. (시청자만) 그렇다면, 이번 후보자토론회가 선생님께서 지지하신 후보에 대한 지지 정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1. 토론회 이후 지지하던 후보에 더욱 호감을 갖게 되었다
2. 지지하던 후보가 있었는데 토론회를 보고 바뀌었다
3. 지지하던 후보가 없었는데 토론회를 보고 지지하는 후보가 생겼다.
4. 토론회가 후보 지지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Q20. (시청자만)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토론을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후보자는 누구입니까? (지역별로 후보이름 변경)

- 1.
- 2.
- 3.
- 4.
5. 기타후보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 KPSA